

月刊

미사일

創刊 4293年 10月 25日 印刷
創刊 4294年 11月 1日 發行

4294

6호

바른 생각은 곧 「힘」이다
再建 座右銘 七章

設問

나는 이렇게 實踐했다



화보(畫報)

공중 전시

건군 13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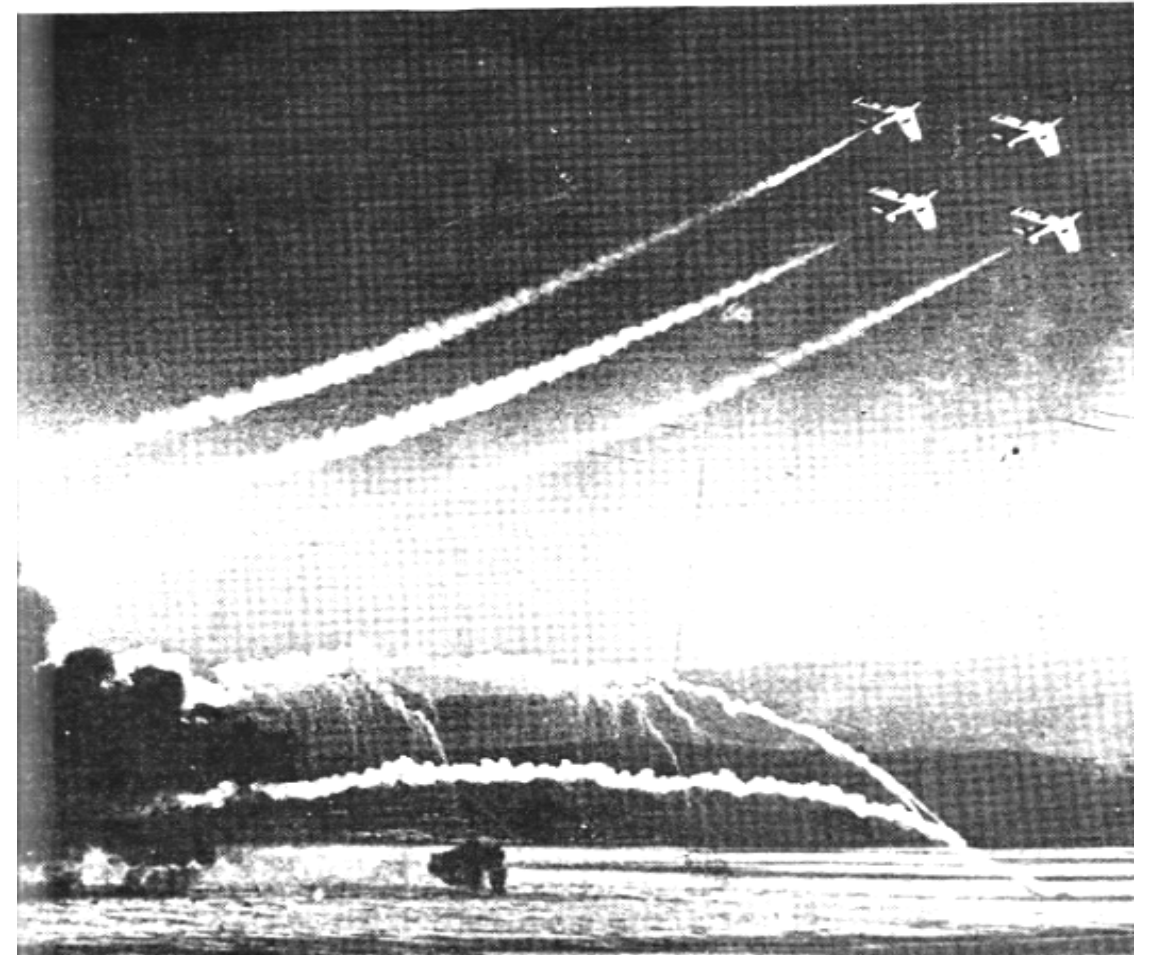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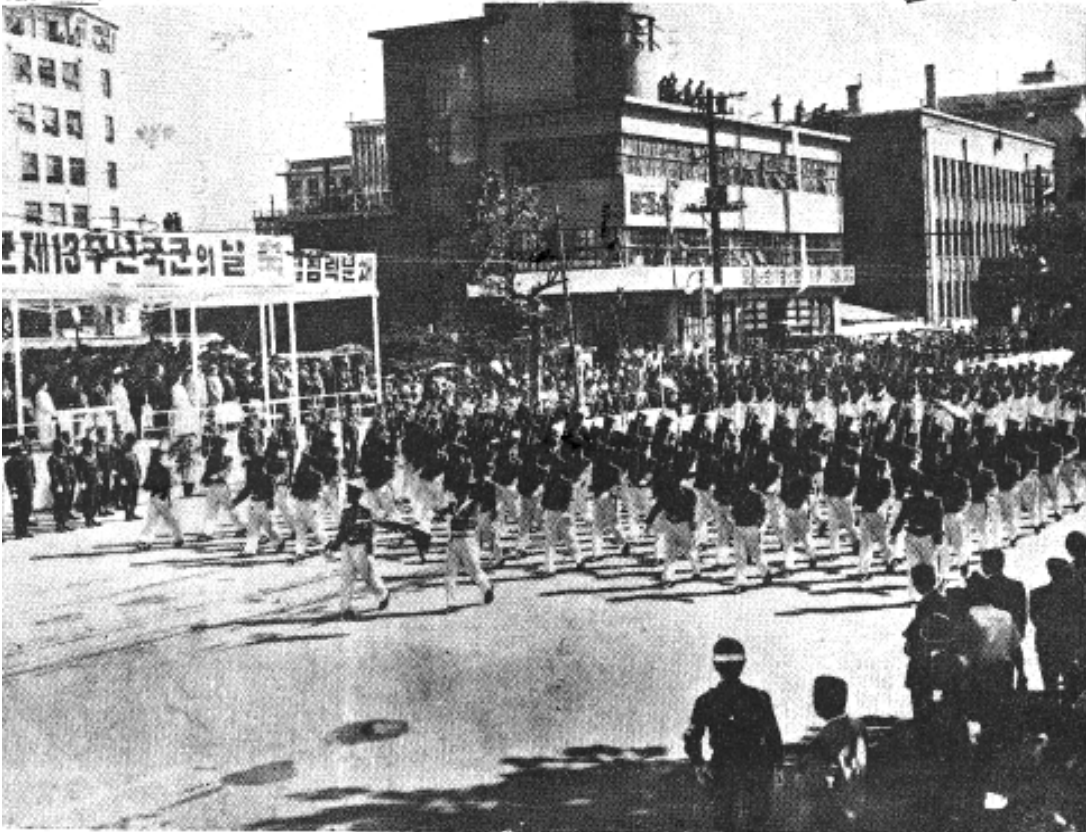
국군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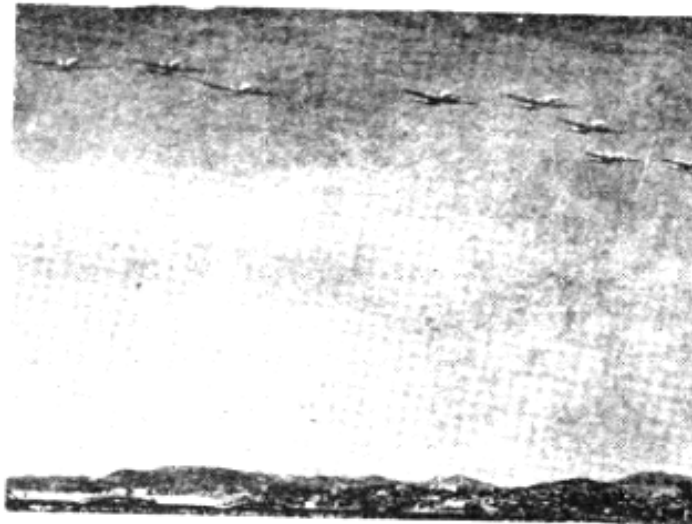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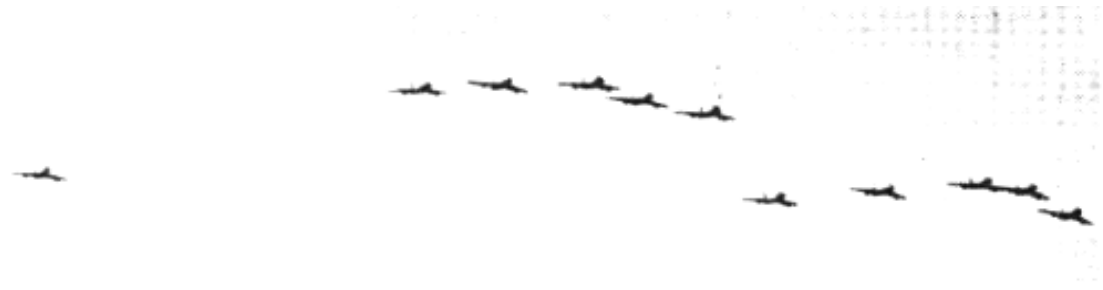
건군1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공중전시가 30만 시민의 눈과 전국민의 귀를 모은 가운데 지난 10월 2일 한강 백사장 상공에서 성대히 열렸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지공격 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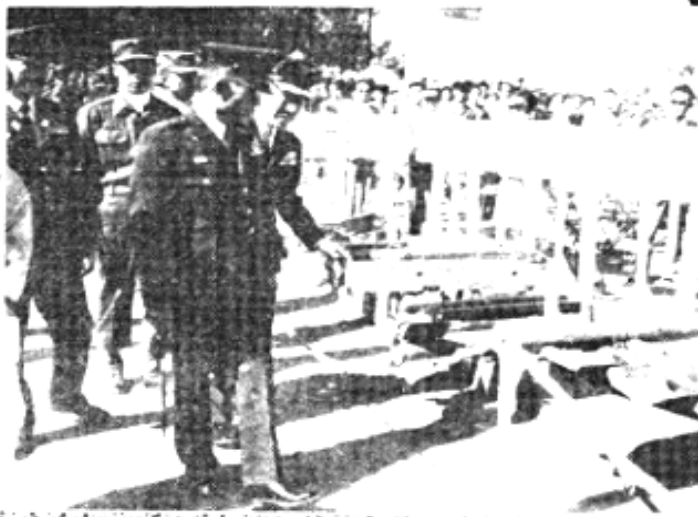


(상)청와대에서 윤대통령의 치사를 듣고 있는 3군 모범용사들
(하) 경축 분열식전에서 사열대 앞을 행진하고 있는 공사생도들





C-46기의 편대비행



F86F 제트전투기의 다이아몬드 편대비행
수십만 관중의 손에 떠밀을 쥐게 한 수상구조시범

한강(漢江) 백사장(白沙場)에 만든 공정투하(空挺投下)



飛行墜도 아



수십만 관중의 손에 땀을 쥐게 한 수상구조
시범

F86F 제트전투기의 다이아몬드 편대 비행



미 사 일 제 6호



표지(表紙)---국민(國民)의 단결(團結)·건설(建設)·극난정신(克難精神)을 표현(表現)한 민철홍(閔哲泓)

<목차(目次)>

★ 화보(畫報) 국군(國軍)의 날 항공전시(空中展示)

바른 것은 곧 힘이다 성인기(成仁基) 2
 재건좌우명(再建座右銘) 7장(章) 주윤호(朱允鎬) 5
 먼저 알아야 할 것 조풍연(趙豐衍) 8
 군인(軍人)의 교양(教養)과 인품(人品) 홍종인(洪鍾仁) 10

양케이트 나는 이렇게 실천(實踐)했다 26

공군가족에게 드리는 글 특수(特殊)한 기질(氣質) 이해(理解)하기를 정충량(鄭忠良) 18
 언니에게 부치는 편지 정진구(鄭珍九) 15
 강화요새(江華要塞) 30년의 저항(抵抗) 조설령(趙雪嶺) 14
 방공(防空) 구국(救國) 3개월(個月) (1) 외지(外誌)에서 42

양케이트 최근에 읽은 감명(感銘)깊은 책 34

해설 <시사(時事)> 한일회담(韓日會談)의 어제와 오늘 39
 <과학(科學)> 미국(美國)의 로봇 위성(衛星) 25

미사일의 역사(歷史) ④ 20
 군인(軍人)과 신앙(信仰) 임동선(林東善) 51
 제후낭(際厚娘)과 백운랑(白雲郎) 김일순 48
 그랜드·캐니언 (세계(世界)의 경이(驚異)를 찾아서) 하리바톤 38
 명화안내(名畫案內)·선풍(旋風)을 일으킨 질투(嫉妬) 유기영 45
 세계신문(世界新聞) 이야기 서전편(瑞典篇) 김기점(金基漸) 33
 ★삼강오륜(三綱五倫) 강소천(姜小泉) 22
 ★속담춘추(俗談春秋) 고객자(孤客子) 28
 <수필> 낙엽(落葉) 잃은 가로수(街路樹) 김광용(金光鏞) 52
 스튜디오의 사상(思想) 이현숙(李賢淑) 53
 하늘을 달리는 그리움 박현서(朴賢緒) 54
 <시(詩)> 태백준령(太白峻嶺) 이인석(李仁石) 58
 찬가(讚歌) 이흥우(李興雨) 12
 <소설(小說)> 푸른 하늘처럼 유 호(俞 湖) 56
 저항(抵抗)하는 사람들 박찬흥(朴贊興) 60

바른 생각은 곧 힘이다

성인기(成仁基)



위인이나 열사의 전기 또는 자서전을 읽을 때 제일 감명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의지력이 굳세고 실천력과 희생정신이 강한 그것이다. 그들이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온갖 고초를 참아가면서 실천해 간 용기에 저절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인과 열사는 거의 예외없이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목숨을 홍모(鴻毛)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또한 바쳐왔다.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하며 위험한 것을 피하려 함은 사람의 상정인데 이들 위인 열사들은 어찌서 그들의 몸과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이 하고자 한 일을 용감히 결행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정의감에서 솟아오르는 용기요 힘 때문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구한국말에 하얼빈(哈爾濱) 역두에서 일본의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쏘아, 넘어뜨린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생각해 보자. 이등을 없애야만 당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국난을 건질 수 있으리라는 굳은 신념에서 그는 이등을 저격하였던 것이다. 그때 안 의사는 국가의 위기와 민족의 예측화를 막기 위해서 이등을 없애야만 한다는 신념에서 자기의 한 몸을 가볍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아(小我)를 버려서 대아(大我)를 살리려는 희생정신이 안 의사로 하여금 의거를 결행할 큰 용기를 갖게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기미독립운동 때에 어린 몸으로 항일투쟁의 선두에 서서 독립 만세를 부르고 격문을 돌리고 하다가 일제의 앞잡이 헌병에게 붙잡혀 끝끝내 사실을 불지 않고 항거하다가 고문에 의해 쓰러진 유관순 소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 겨레가 독립하자라는 것은 천리(天理)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우리 겨레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천만번 당연한 일이다.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거족적인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인데 왜 일제헌병은 괴롭게 고문하느냐. 배후나 동료들 헌병에 붙어서 그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차라리 한 몸을 희생함이 정의요 '대의'라는 굳은 신념에서 끝끝내 항거할 용기가 샘솟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성삼문, 박팽년, 이개, 유성원, 유응부, 하위지 등 사육신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문종의 유혹을 받아 단종을 보필해 오던 타이므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은 찬탈로서 불의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몰려나간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만이 정의요 충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단종복위의 기회를 엿보고 도모하여 왔던 것이다. 물론 그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조에게 가담하면 중용될 것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끝끝내 절개를 지켜서 세조의 달램도 위협도 거역하고 참혹한 형벌을 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기 한 몸뿐만 아니라 삼족이 다 멸문의 환을 당함을 모른 바도 아니었다. 아무리 그런 큰 화를 당한다 하더라도 대의를 버리고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다는 신념 밑에 그들의 충과 의를 깨끗이 살려온 것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는 신념 밑에 살고 죽었다는 것은 '임금의 밥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었으니 평생에 깨끗한 뜻이 그릇되지 않기를 원한다(食君之食衣君衣, 素志平生莫願違)'는 성삼문이 남긴 시구를 보아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별정계 불에 달군 쇠끝으로 단근질을 당하면서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마음은 빼앗을 수 없으리라'고 저항하는 그들 사육신의 태연자약한 태도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한 손에 쥔 세조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요약해서 간단히 말한다면 정의, 대의 대신에 부(富)니, 귀(貴)니 와도 바꿀 수 없다는 굳은 신념이 결국 사육신의 이름을 천추에 남기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17세기 초엽의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이 갈릴레오의 얘기는 재미스러운 한 예다.

그는 1609년에 망원경을 발명하여 천체를 관측한 결과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설명 주장하였다. 그때는 종교만능시대였다. 교회에서는 '하느님이 만드신 땅덩어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그런 주장은 성서(聖書)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여 1616년에는 법왕(法王)으로부터 다시는 지동설을 말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천문대화(天文對話)라는 책을 발간하여 자기의 의견을 밝힌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그는 다시는 그 학설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뿐더러 그는 항상 감시인의 감시를 받는 유쾌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그는 그런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원고로 정리해서 몰래 폴란드에서 「신과학대화(新科學對話)」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는 종교의 압력으로 부득이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그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구이고 태양은 아닌 것으로 믿는다고 지동설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갈릴레이가 맹세까지 하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는 일반에게 퍼놓고 주장하지는 못했으나 외국에서 몰래 저서를 발간한 것은 자기의 학설이 바르다는 것을 확신한 나머지 희생을 각오하고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지동설을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의 종교만능시대에 법왕의 금지명령을 받고도 저서를 낼 수 있는 그 용기 역시 자기 학설이 바른 것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예를 들자면 동서고금을 통하여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위에서 들은 몇 가지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 생각이 바르다는 확신이 생기기만 하면 거기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한 것도 능히 견디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가볍게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쉽사리 추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맹자가 고자장구(告子章句) 상편에서 '생명도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요, 의도 내가 지니고자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겸해서 얻을 수 없어서 어떤 것이고 하나만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생명보다도 의가 더 중하므로 생명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생명도 역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의를 말함). 그러므로 의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죽는 것 역시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불의를 말함). 그러므로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여 생명을 아끼려고는 하지 않는다(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欲,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고 논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면 바른 생각—정의감이란 어떤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자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며 정의감이냐 이것은 간단히 말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맹자는 맹자 이루장구(離屢章句) 상편에서 '인(仁)은 사람이 사는 편한 집과 같은 것으로 사람이 인에 살면 양심에 거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의는 사람이 다니는 곧은 길로서 의에 맞도록 행동을 하면 천리 내로 잘 되므로 무리한 사사욕심에 사로잡힐 걱정이 없다. 그런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살기 좋은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고, 곧은 길을 버리고 다니지 않는다. 실로 애달픈 일이다(仁人之安宅也。義人之正路也。曠安宅而弗居，舍正路而不由。哀哉)라고 하여 의를 사람이 다니는 곳은 길 바른 길에 비유하였다.

지금도 옛날 맹자가 비유하여 말한 그것을 그대로 인용 설명해서 조금도 틀림이 없으리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회의 한 구성분자로서 사람다운 사람의 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정의라고 할진대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적에 반드시 걸어가야 할 곧은 한 길과 같다고 한 것은 참으로 잘 된 설명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일은 정의는 객관성을 띠어야 하고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력을 가지게 되면 사물을 관찰하고 판단력을 가지게 되면 저것은 바르지 않다든지, 이것은 좋고 그것은 나쁘다든지, 그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든지, 이것은 옳고 그것은 그르다든지 하는 분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은 판단력의 척도에 따라 구구해서 반드시 일치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개인이 주관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행동이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여러 말 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비로소 사회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회정의도 시대에 따라 약간 변하고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노예해방전쟁이 있던 후 까지에도 노예는 주인의 산 도구라는 것이 사회의 정의인 양 생각되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인류평등이라는 관념이 높아짐에 따라 불의로 지탄받게 되었으며 봉건제도하에서는 계급의 차별이 사회정의 같이 인정되었으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계급차별은 불의 중에서도 불의로 자타가 공인하게 된 것 등을 생각할 때 곧 알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사람은 천성이 선하다는 설과 악하는 설이 예부터 있으나 성선설이 보다 우세하고 또 그 설이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불의한 짓을 해서 지탄을 받고 또는 법에 걸리어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는 자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마는 그들 자신도 사육에 양심이 흐려져서 그런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불의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하는 자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의한 짓을 하는 인간은 대개 비굴하고 또 뒷구멍을 찾고 짐을 먹어 당황 낭패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역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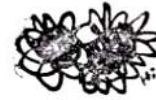
사람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은 지나친 물욕 금전욕, 권력욕 같은 욕심 때문이다. 남을 해치더라도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불의의 돈과 뇌물을 받게 되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며 남을 내쫓고 제가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모략, 중상, 음모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바른생각—바꾸어 말해서 정의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지나친 사사로운 욕심만 버리면 되는 것이다. 소아를 위하는 욕심만 제어할 수 있다면 저마다 위인열사는 못 될망정 그 사회에서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것이다. 남과 함께 즐기고 함께 고생할 각오만 한다면 저절로 바른 생각이 들고 정의감에 불타서 행동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을 보면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올해 90세나 된 버틀랜드 러셀 경(卿)은 60세인 그의 부인 에리스 핀질 러셀 여사와 함께 핵실험 반대운동을 선동한 죄로 7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90이나 된 노인이 자기가 더 오래 살겠다고 핵실험 반대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 인류전체를 위해 핵실험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정의감에 불타서 노구를 이끌고 반대운동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그는 영국의 국내법에 저촉되어 7일 동안 구류처분을 받았지만은 변명과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류는 그를 위대한 선각자로서 존경할 일이 아닐 것인가?

위에서 바른생각—정의감은 힘이라는 것을 보아 왔다. 우리나라는 힘과 용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 국민은 다 함께 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일을 힘차게 실천함으로써 당면한 혁명과업완수, 승공통일의 중책을 두 어깨에 걸머진 국군장병에 있어서라.

바른 생각은 곧 힘임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필자·한국일보사 부사장)



재 건 좌 우 명 7 장 再 建 座 右 銘 七 章

주윤호(朱允鎬)

1.

5·16 혁명이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국가재건과 신질서의 확립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것은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의 전분야에 대하여, 구질서로부터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기하려는데 있다 함도 재삼 चे인(贅言)을 요(要)치 않는 바이다.

새삼스럽게 되풀이하는 바이지만 우리나라가 8·15해방 후 16여 년 동안 극도의 부패와 무능을 일삼아 온 결과 국민경제는 파탄일로에 빠졌으며 사회는 날로 혼란만을 조장하였는가 하면 반공은 한낱 구호와 형식에만 그쳤을 뿐이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자는 누구나 이대로 좌시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5·16군사혁명이 이와 같은 조국의 각박한 운명을 타개하려고 애국적인 청년장교의 궤기에 의하여 거사된 비상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군사혁명은 다른 혁명과 달라서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 필연적인 켈개가 아닐 수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공산침략분자와 대결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먹히느냐의 판가름에 놓인 제반내외정세(諸般內外情勢)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국가재건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공산괴뢰(共產傀儡)를 분쇄하여야 할 승공체제(勝共體制)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숙명적 사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우리들이 5·16혁명을 마지막 혁명이라고 일컫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혁명과업의 완수여부는 그대로 우리의 운명과 직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군사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라든가 흔히 외국에서 볼 수 있었던 평범한 혁명이 아니고 그야말로 구국혁명이고 마지막 혁명이니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그 본래의 성공적 달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이른바 국민혁명이라도 이해되어 있는 것이다.

즉 5·16혁명이 구국혁명이고 국민혁명으로서 모든 재건사업에 국민 개개인이 직접 자기의 혁명으로 알고 인간혁명과 생활혁명을 통한 확고한 이념과 과감한 실천없이 국가재건의 지중환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혁명적인 중요성과 그 요청에 따라서 재건국민운동을 전개키로 되었으며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국민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고되어 있고 이미 국민운동 7대 요망이 발표되어 있음은 이 또한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다.

이에 필자는 재건국민운동에 몸을 던진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의 재건좌우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여 보겠다.

2.

첫째, 승공체제의 강화와 생활화

우리나라는 국토가 양분된 채 언제든지 공산침략에 맞서고 있고 지난 6·25와 같은 참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가 반공을 국시로 함은

물론인 바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새삼스럽게 공산제국주의에 대해서 더 논할 여지조차 없거니와 언제든지 그들과 대결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태세를 갖추어야 할진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공산주의자의 이론이나 그들의 제도 기타 일체를 능가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하여야 한다.

일핏 생각할 때 반공이라 하면 어느 때나 부르짖어왔고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의 인식이 충분한 것 같이 소인(疎忍)히 하기 쉬울 뿐 아니라, 구정권이 모두 반공을 한낱 구호에만 그쳐 온 반면에 적은 간접적 침략방법을 써서 우리를 내부로부터 붕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음에 상도(想到)할 때 우리는 이를 자기생활화 하자는데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존엄된 자유와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안으로 자기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누구를 대하더라도 중립주의와 기회주의 그리고 안이(安易)주의 방만주의를 일체 용납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여사(如斯)한 타성이나 파괴분자에 접할 때에는 가차없이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응징할 수 있는 적극성과 용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반공을 형식이나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국민 개개인이 실제행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자기의 생활화에 구체적으로 옮겨 감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국시의 참된 이해자가 되고 행동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근로정신(勤勞精神)의 고취(鼓吹)

우리나라 민족성의 결합 중의 하나가 근로정신의 결핍이라는 말은 이미 식자층에서 운위되어 왔고 외국사람이나 외국에 다녀온 인사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온 것을 기억한다. 외국에 비하여 우리는 고래로 유희도식(遊休徒食)을 하듯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습성이 있으며 봉건적가족제도하의 조로증(早老症)이 우심(尤甚)하였는가 하면 일하는 것을 마치 천하게 여겨온 사농공상의 사상이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어 일언이폐지(一言而蔽之)하여 근로정신과 노력이 결핍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재건사업은 근로로부터'라는 새 슬로건을 내걸고 직업의 귀천 없이 각자가 맡은바 직역(職域)에서 한 방울의 땀을 더 흘릴 수 있는 날에 그만큼 국민소득의 증가와 나라의 부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가 근로정신을 고취하는 새로운 생활 노력을 경주(傾注)하여야 하겠다.

셋째, 내핍생활(耐乏生活)의 여행(勵行)

위에서 말한 근로정신의 고취가 자기의 수입증가운동이라고 한다면 내핍생활의 여행은 자기의 지출억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의식주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범(汎) 생활을 일상화하는데 있어서 수입내 지출을 원칙으로 함은 물론인데 우리 국민은 자기의 수입을 도외시한 허영과 허식에 흘러서 과도한 사치와 과다지출을 일삼아 왔음도 또한 누구나 부인 못 할 것이다. 외국에 간 인사나 외국인 자신이 놀랄만큼 의복이나 소지품이 선진국가의 그들에 비견(比肩)이 안 될 만큼 사치와 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축의식이나 사회의례에 있어서도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형식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자기의 분을 넘치고 있었으니 이 어찌 통탄(痛嘆)을 금치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대부분이 도시층에서 그러했지만 이러한 허례허식의 이면에는 정당한 자기수입 외에 음성수입이나 부정부당수입을 전제하거나 그것을 조출(造出)케하는 악성적불법수단이 부수되기 마련임으로 우리는 지난날의 악풍을 단연불식(斷然拂拭)하고 건전한 정당한 생활태도와 사회기풍을 가짐으로써 개개경제와 가족경제 그리고 국민경제의 신장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내핍과 인내가 곧 재건보(再建譜)의 새로운 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넷째, 생산건설(生産建設)의 증진(增進)

지난 십여년 동안의 사회질서와 경제체제가 고식적(姑息的)이고도 일관성없는 무계획 위에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새로운 국가재건과 경제부흥을 이룩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된 경제건설에 달려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차차 도시에서 실업자는 홍수같이 밀려들고 농촌에서도 절량농가니 이농이니 예년(例年)마다 모두 살 수 없다는 아우성과 기아선상(飢餓線上)에 허덕이면서 우리가 반공과 승공을 앉아서 바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정부의 새롭고도 과감한 경제시책에 기대하여 둔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자율적인 생산건설의식의 앙양(昂揚)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민족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자금의 형성 내지 조달문제는 무엇보다도 긴요한 바인데 우리는 모든 유희자금(遊休資金)이나 영세자금(零細資金)을 산업화 생산화하는 정신운동과 경제운동을 전개하여야겠고 이르기 위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은 저축의 여행(勵行), 창의력의 발휘, 기술의 보호, 생산증대와 건설사업의 진흥을 기하는 전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증대에 의한 자주경제건설의 첩경이 바로 각자의 건설의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섯째, 국민도의(國民道義)의 앙양(昂揚)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마비된 곳에 국민도의만이 고고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은 잊어버린 듯 각자의 영리주의 공리주의 및 이기주의에만 사로잡혀 국민도의는 땅에 떨어져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모든 경제악과 사회악은 연이어 악순환하면서 국민은 사회도덕과 사회규범을 도외시한 나머지 도시(都是) 사회정의란 찾아볼 길이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 국가재건이니 경제부흥이니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정의의 실현이 없는 곳에 그 본연의 성공과 자세를 바랄 수 없을 것이며 이 사회정의는 다시 국민도의의 진작과 복고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 땅에 떨어진 도의심을 되찾고 각자의 생활정의와 생활이성에 돌아가서 서로 도의 도덕심을 앙양하고 양심적이고도 성실한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법질서를 지키고 사회정의와 공중도덕에 투철하여 공익선행의 원칙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정이나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도의심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회정의와 국민주의의 앙양이 바로 재건사업의 참된 원동력이 되고 모든 신질서를 확립하는 기점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섯째, 파벌의식(派閥意識)의 근절(根絶)

필자는 재건좌우명을 말하는 자리에서 파벌의식의 근절을 드는데 주저치 않는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고질화되어 온 이 파벌쟁투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골치덩어리가 되어오고 있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사실화되어 있다.

이 파벌의식은 건전한 사회질서와 정당한 사회체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나 더욱 독재와 부패정치 속에서 파벌쟁투와 파벌조장은 그 극을 다하여 왔다.

우리가 국가재건이라는 성업(聖業)완수를 다 함에 있어서 공동정의와 공동목표에 어긋나는 파벌이란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며 이 파벌이 번식하는 곳에서는 그 대본을 그릇치는 결과에 함입(陷入)할 것임은 명약관화함으로 국민이 개개인된 입장에서 소리(小利)와 소승(小乘)을 일척(一擲)하여 민족대아(民族大我)와 사회전체의 1인이라는 대의에 입각하여 일체의 지방색이나 학교색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문벌이니 족벌이니 하는 자신없는 경거망동을 일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남이 잘되는 것을 헐뜯고 모략하는가 하면 상사에게 가진 아침과 아부로 대하거나 상사된 자가 노력에 의하지 않은 정실(情實)과 사심에 흐른다면 그것이 바로 공익생활의 질폐(疾弊)가 되어 전체를 그르칠 것이므로, 파벌조장이란 이와 같은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는 곳에서 가산(加産)될 것이니 우리 국민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모두 이 파벌의식을 근절하는데 각별한 결심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며, 능력과 성심을 본위(本位)로 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파벌이 없는 곳에 반드시 직장단합이나 사회융화가 조성될 것이며, 국민융화의 건전한 토대 위에 비로소 민족단결의 대업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국민의무(國民義務)의 준수(遵守)

끝으로 필자는 우리의 좌우명으로 국민의무의 준수를 열거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생을 향유하는 영광을 잊어서는 아니되거나 민주주의가 곧 방종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진대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대가로 개인생활과 국가생활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겠다.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곳에 아무리 위정자나 지도층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국가건설이 백년대계의 반석(盤石) 위에 놓일 리 없다.

국민의무가 납세의무이건 병역의무이건 그리고 교육의무이거나 근로의무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어느 하나라도 국가재건에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나 탈세나 기타 가지가지의 우리의 의무가 마치 남의 일같이 동떨어져 이행되지 않는 곳에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우리는 개인생활에서나 가족생활에서나 나아가서 국가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이는 국민적 각오와 실천이 요청되는 것이다.

일핏 생각하면 우리에게 과중한 책임이나

의무가 부하됨을 이유로 그 근본마저 있어버릴 수 있다는 구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을 표시하고 관철케하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의무를 다할 줄 아는 국민적 긍지와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며 그리함으로서 명랑하고도 진정한 민주주의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안으로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5·16혁명은 그간 민족정기를 되찾고 국가재건의 모든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민주공화국의 앞날의 새 살림을 위하여 과감한 제반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불과 수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은 거대한 업적(業績)을 거양(擧揚)하게 됨은 혁명정부의 눈부신 활동과 주야를 가리지 않은 분투의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재건의 토대를 반석 위에 놓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절대적인 협력과 참여 없이는 그 조속하고도 성공적인 달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민 서로가 자기의 혁명으로 알고 인간혁명과 생활혁명을 통한 진지한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아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혁명인 5·16의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알고 멸공 승공(勝共)의 굳은 이념에 뭉쳐 위 의 좌우명을 염두에 두고 재건사업에 총매진하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재건국민운동본부 보도과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조풍연(趙豐衍)

병법 손자에 이런 대문이 있다.

‘고왈, 지피지기, 백전불위, 불지피불지기, 매전필태(故曰, 知彼知己, 百戰不危.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적정(敵情)을 잘 알고 우군(友軍)의 실력을 잘 알고 나서 전장에 나가면 몇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적정도 모르고 우군의 실력도 모르므로 암중모색(暗中摸索)으로 대드는 자는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대개 이런 뜻이다.

적정을 알려 드는 것은 모공(謀攻)의 바탕이 되므로 누구나 하고 있다. 현재도 간첩을 써서 적정의 장악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방(我方)의 장점을 잘 알고 이것을 이용선용(利用善用)하는 일은 뜻밖에 드문 법이다. 관중은 알다시피 제환공(齊桓公)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한 정치가다. 그는 어떠한 적에게서나 협위(脅威)를 느끼지 않고, 어떠한 적도 정복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치가 한가하여 정청(政廳)은 질서가 있고, 공법(公法)이 행해져 사의 악사(惡事)가 행해짐이 없고, 광에는 곡물이 가득 차고 감옥은 텅 비었으며, 현인이 나아가고 간민(姦民)이 물러나고, 상무(尙武)의 기상이 충만하여 사리(射利)를 천히 여기고, 농민은 밭갈기를 좋아하여 음주미식(飲酒美食)을 바라지 않으며, 재용(財用)에 부족이 없이 시량(柴糧)이 도처에 풍부하고, 상하가 화합하여 예의(도의)가 선다. 그런 고로, 처해 있으면 안정되고, 동하면 위엄이 있으며, 싸우면 이기고 지키면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한 관중은 이를 말에만 그치지 않고 대뜸 실행했으므로 제나라는 패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방금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궁극의 목표가 관중이

시사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관중의 이상은 모두가 국가와 민생에 두어져 있다. 외적을 이기려 하기 전에 안을 먼저 튼튼히 하였다. 우리가 공산복괴에 이기는 첩경은 진실로 여기에 달린 것이다. 단결해 쫓기할 때는 왔는가 한다.



이씨명종조(李氏明宗朝)의 상진(尙震)은 영의정의 자리에 오를 만큼 학식과 슬기가 있었다. 단 하나 남을 비평하기를 소홀히 하는 결함이 있어 상공의 성미를 꺾는 자가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시골길을 지나다가 농부가 밭 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농부가 두 필의 소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는 황소요 하나는 칩소다. 두 필이 모두 튼튼해 보이며 바라보던 상공이 이윽고 농부에게 물었다.

“황소와 칩소, 그 어느 것이 더 쓸만한가?”

이 말을 들은 농민은 자못 난처한 듯이 상공에게 걸어 왔다. 그리고 나서 상공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소리를 낮추어 말하기를

“황소가 더 쓸만한지요.”

한다. 그까짓 말을 하고자 일부러 다가와 꺾속말한 것이 궤이쩍어서 인하여 상공이 되물었다.

“그토록 가만히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때에 농부가 다시 은근한 목소리로

“예. 한쪽을 좋게 보면 한쪽을 나쁘게 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들이 들을까봐 던지시 여쭙는 것입지요.”

이 말을 들은 상공은 놀라 깨달은 바가 있었다.

“세상에는 소가 듣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다 보았다. 이에다 대면 나는 얼마나 진중치 못한가?”

상공이 훗날, 결단코 남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 리가 없다. 그 농부는 일국의 재상을 우롱하려던 것이거나, 아니면 노둔하기 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옳다고 나도 동감이다. 그렇지만 이 일화의 핵심은 신화된 농부의 심경에 있지 않고 인간 상공의 각성에 있는 것이었다. 상공을 이보다 더 미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봉건군주시대의 권력자가 이처럼 반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주사회에서의 소위 공복(公僕)으로 자처하는 우리는 그야말로 아침저녁으로 자기를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적어도 그런 시간을 스스로 내라. 바쁘다 함은 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는 바빠야 하나 함도 모르는 말이다.



석학 임어당옹(林語堂翁) 「언론자유」론의 일절(一節)을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인간이 말을 하는데 반하여 동물은 가까스로 울음소리를 내는 정도이다. 버너드 쇼 우씨는, 단지 하나 가질만한 자유는 피압박자(被壓迫者)가 위해(危害)를 받았을 경우에 울부짖는 자유와 그들에게 해되는 조건을 제거하는 자유라고 말했는데 바로 맞는 말이다.

오늘날 중국에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자유란, 바로 이 종류의 위해를 당했을 때 울부짖는 자유인 것이며 말을 하는 자유는 아닌 것이다. 우리들은 지껄이기는 누구에 지지 않을만큼 지껄이지만 위해를 당했을 경우에 감히 울부짖는가 하면 이는 심히 없다. 우리들의 언어는 세련된 것이니까 우리들의 생활상의 필요를 표현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것은 내 생각한대로 말할 양이면 이 또한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인 것이다. 밤중에 울며 쓰다니는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제가 욕구하는 자유를 모조리 향유하고 있다. 그리고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항상 표현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농민은 그렇지 못하다. 위해를 입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욕설과 악담을 퍼뜨리지만 그 욕설악담이 남의 귀에 들리기를 겁낸다.

언론의 자유란 외국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큰 상식으로써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침묵함을 찬양해 왔던 것이다. 중국 잠언에 말하기를 병중구입(病從口入), 화중구출(禍從口出)—병은 입으로서 들고, 화는 입으로서 난다—하였다. 중국의 관료들은 ‘넷물을 막느니보다 백성의 주둥이를 막는 것에 노상 머리를 썼었다.—방민지구(防民之口), 심어방천(甚於防川)—그리하여 백성의 입은 끊임없이 탄압되었다.

단지 하나, 여기 혹종(或種)의 언론의 자유를 허한 듯이 보이는 잠언이 있다. 그것은 소매유타(笑罵由他). 소매호관(笑罵好官). 아자위지(我自爲之)—웃으면 웃는대로 내버려 두라. 투덜대면 투덜대는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양리(良吏)이거든. 그렇지만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백성이 웃거나 투덜대거나 아를 것이 없을 때에 한하여 자유가 허락된 것 뿐이지 만약에 아픔을 느꼈을 때, 그 양리는 백성을 사살해도 좋은 것이다. 중국 사람을 닮았는지 모르나 과거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는가. 아주 먼 과거가 아니라 가까운 과거에도.

언론의 자유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가 한정없이 발전함에 따라 역시 복잡해 간다. 언론의 대상에도 언론의 자유는 있는 것이니까.

언론의 자유가 속박을 받으면 민중이 이를 싫어한다. 언론의 자유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민중에는 해를 입는 사람이 생긴다.

언론인 중에 오만하거나 부패한 자는 제가 발설한 언론은 총알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을 쏘아 넘어뜨리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총알은 다시 제게는 돌아오지 않는 물건이라고 여기는 점에서.

○

파스칼의「팡세」(사상록)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시간은 괴로움을 덜어 준다. 그것은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미 동일한 사람은 아니다. 모욕한 자도 모욕당한 자도 이미 동일한 사람은 아니다. 일찌기 노하게 한 어느 국민과 20세대를 지내서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는 지금도 프랑스 사람이지만 동일한 프랑스인은 아니다.」(122)

「그는 십 년 전에 사랑한 그이를 이미 사랑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자는 이미 같은 그 여자가 아니며 그도 또한 같은 그는 아니다. 이전에는 그도 젊었고 그 여자도 젊었다. 그 여자는 전혀 딴 사람이다. 그 여자가 옛날과 같은 그 여자였다면 그는 지금도 그 여자를 사랑했으리라.」(123).

사람은 자꾸 변하는 법이다. 발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일진일퇴하기도 한다. 어쨌든 생명있는 것 중에 사람처럼 고정하지 않는 동물은 없다.

십 년 전에 평가했던 기준으로 지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물을 잘못 아는 수가 있다. 특히 어느 인물을 기용하고 싶어도 과거의 인상 때문에 용단을 못 내리는 상사가 있다. 이런 사람은 극심한 인물난에 부딪치리라. 언제나 고독을 느끼리라. 자신은 변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가 하면 남이 변한 것만 아는 사람도 있다. 자신도 변했는데도.

시간은 정을 떼고 시간은 망각시킨다. 그것을 매꾸는 것은 남의 변한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자기의 변한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사람의 노쇠하는 과정은 공교롭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있다. 우선 두발이 희거나 빠진다. 다음에는 눈이 어두워진다. 다음에는 치아가 부실해진다.

그러나 한편 고령에 달하면서 원숙해지는 것도 위, 즉 머리다. 공자는 칠십에 이르러 자기가 뜻한대로 되었다고 말한다. 공자는 73세에 서거했으니까 그가 진실로 세상을 안 것은 겨우 3년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자는 신체의 노쇠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바가 원숙을 지향하여 상승하였던 것이다. 지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높아진다.

이것도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시간에서 오는 망각을 초월한 때문이다.

<필자·소년한국일보 주간(主幹)>



군인(軍人)의 교양(教養)과 인품(人品)

홍종인(洪鍾仁)

1.

현대의 군인으로서 절대 지녀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양이요 그 인품이라 하겠다. 옛날 말에도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왔으면 재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문무의 겸전(文武겸전)을 높이 말한 바 있다. 군인정신이라던가, 군대의 전통이란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면 그 역시 군인 각 개인이 가진 교양과 그 군대의 품격을 떠나서 말하기 어려우리라고 믿는다. 군인의 교양을 말한다면 그중에서도 장교의 교양, 지휘관의 인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곧 그 군대의 사기 전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군인 복무령에 보아도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보다도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신사도의 일반적인 교양과 품위에 관한 규정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 것을 비롯하여 청렴검박하여야 할 것, 낭비함이 없이 부채를 저서 안 될 것,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안 될 것,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어 동작을 삼가야 할 것 등 모두가 어느 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어느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교양과 인품을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군인 교양은 군인 복무령에 규정된 바와 같은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아니다. 군인 복무령의 규정은 군인으로서 잘못이 있어서 안 될 경우를 경계하는데 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군인의 교양은 군대생활 중의 잘못이나 부족의 범위를 넘어서 각 개인의 군인이 군대의 명예와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중에서 선발된 대표적 청년인 그 지위와 면목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미더운 일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군대라면 어느 나라이고 그 나라의 청년 기백과 품격을 높이고 닦고 다룰 수 있는 그 나라 청년 대표적인 집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대는 단순한 전투집단일 뿐 아니고 군사교육을 통하여 보다 더 훌륭한 나라의 모범인물을 길러내는 곳이라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2.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서 교양이라고 하며 당면하여 우리 군대에 요구되는 교양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점을 몇 가지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군인에게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무기의 지식과 아울러 그 기민한 조종의 지식을 포함한 전술에 능란하여야 할 것이 그 특수 임무로서 가장 크게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더 크게 요구되는 것을 정신무장이라고 한다. 강력한 정신무장에 의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떨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강한 군대의 강한 표시가 그 군대의 각개의 정신력과 전군의 정신적 통일에 있다고 일러 왔다. 이는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적과 나와의 화력이 꼭 같다고 할 때에 우리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힘의 차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는 오로지 정신력이 어느 정도로 더 강하나 하는데 달렸다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정신력의 무장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군대의 지휘관 이하 각개 군인이 평소의 훈련 이외에 전투의 상황판단이 유능할 수 있는 두뇌와 지식의 종합적인 것도 정신력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서 정신력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한 것은 결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애국심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될 것이 아닌가 한다. 애국심은 곧 그 국민의 국민정신이요 그 국민정신은 국가목적에 위하여 국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 내지 않아서 아니 될 국민의 최고의 의무요 또 그것이 최고의 명예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각자의 신념으로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애국심—국민정신은 어떻게 해서 길러 낼 수 있으며 또 무엇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좋은 국민교육에서 얻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생활을 통하여 애국심을 더 널리 또 더 깊이 닦아 나감으로써 국가정신에 더 투철할 길을 각자가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니 그 길은 이민족, 이 국가 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파란 속에 어떤 어려움과 싸우며 우리들의 이 종족을 유지발전 시키며 우리의 문화를 창조하며 생활의 전통을 쌓아 올렸던가하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잘 더듬어 그것을 가슴에 새겨 넣음으로써 우리는 우리들의 장래에 대한 많은 교훈과 아울러 희망과 포부와 그리고 내일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문명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육 중 가장 중요한 교육 과목을 살펴볼 때 그 어느 나라이고 가장 중요하게 힘써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국사 교육인 것을 볼 수 있다. 국사 교육과 같이 중요하게 엄격한 교육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국어 교육이다.

3.

한민족이 한 핏줄 속에 번영했다는 동포애의 정신은 그 핏줄에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한땅의 한 테두리 안에서 같이 서로 도와서 살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여야 할 공공운명에 처해 있고 그 때문에

같은 국가목적은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족의 발전을 살펴볼 때 그 시초의 그 민족의 정신은 무엇으로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는 다름 아니라 그 민족 혹은 민족이라고 부르기 이전의 그 종족이 오랫동안 애써서 발견하고 발전시켜온 그 말(언어)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민족 그 나라의 말이란 것은 그 민족의 사상과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방법—논리와 철학을 가지는 것이다. 또 한 민족의 말이 어느 정도로 그들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민족의 말 자체의 발전 정도를 저울질할 수 있는 동시에 그 민족의 생각할 수 있는 힘의 정도 내지는 그 민족의 발전의 욕구—역사적 장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동시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여 4천 년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역사와 우리의 문화, 그 전통은 어디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는 우리의 생각의 발표수단 중의 가장 처음되며 가장 자연스럽게 또 크게 발달된 우리의 말을 토대로 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말—즉 우리들의 언어생활은 어떤 것이냐? 일본사람들의 침략과 그들의 잔악한 한민족소멸정책은 우리의 말과 글을 없이할 정책을 썼다. 그들은 우리말과 우리글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크게 해쳐왔다. 그 때문에 해방된 오늘까지 소위 지식계급에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너무도 무자각하게 함부로 일본말의 낱말을 섞어서 쓰는 것을 본다. 우리는 우리말이 아니 저 침략의 원수이었던 왜적의 말을 섞지 않으면 우리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가, 그만큼 우리말은 미개한 것인가? 묻고 싶다. 혹은 습관 때문이라고도 한다. 나쁜 습관을 십수 년을 두고 버리지 못할 정도라면 그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사람된 명예를 저버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의 아들 딸된 명예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정신의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말을 살려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 국민의 국민적 정신무장의 보편적인 길이요, 이것이 또 우리네 청소년의 장래를 독립·자유를 가장 건전한 민족으로 그 길을 닦아 주는 방도요 또 목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군대의 정신무장 또는 그 건전한 교양을 위하여 특히 장병들은 우리 국사와 국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공부할 많이 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고 부탁하는 바이다.

(필자·조선일보 취체역회장(取締役會長))

시(詩)

찬가(讚歌)

—젊음·하늘·무한의—

이흥우(李興雨)

푸른 창공(蒼空)을 향하여
젊은 의욕이
날개친다.

푸른 창공(蒼空) 안에서
젊은 가슴이 활개친다.

무한(無限)
오직 이
무한(無限).

무한(無限)은
인간(人間)의 영원히
동경(憧憬)하는
인간의 고향(故鄕).

무한(無限).
인류(人類)의 영원한 이상(理想)의 나라.

무한(無限).
푸르른 무한(無限).

무한(無限)한 강물처럼
푸른 대기(大氣)의
바다.
무한(無限).

사나이의 의욕(意欲)의
무한(無限)한 승리(勝利)가 잠재(潛在)한
우주(宇宙)의
광장(廣場). 광막(廣漠)한 공간(空間).

젊은 피가
끓으며
날개치는.

무한(無限)
아아 무한(無限).

날개 날개
치는 날개
치는 하늘의
젊음의
아아 무한(無限)의

젊음의
무한(無限)의

젊은, 젊음의 무한(無限)
아아 무한(無限)이여.



강화요새(江華要塞) 30년(年)의 저항(抵抗)

우리 선조(先祖)는 이렇게 단결(團結)하였다

한민족이 외적의 침습(侵襲)으로부터 그 자신을 방어하여 불요불굴(不撓不屈)의 민족정신과 완성한 독립자주의 기백으로서, 강적에게 저항한 것은 사상 무엇보다도 강화 30여 년의 몽고에 대한 투쟁일 것이다. 대몽고항쟁 근 반세기의 이 혈혼에 아롱진 민족항거야말로 당시의 세계제국인 대(大)몽고를 상대로 하였음에 그 의의가 한층 크고 새롭다 할 것이다. 몽고족은 본시 흑룡강(黑龍江) 상류의 알난하(斡難河)의 원류지(源流地)에 웅거하던 유목민족으로서 대대로 금(金)과 요(遼)에 예속하여 지내던 중 고려 신종(20대) 때에 철목진(鐵木眞)이란 일개 영웅이 그 족속 가운데서 일어나 근방 제(諸)부족을 아우르고, 내외 몽고의 여러 부락을 통일하여 희종(熙宗) 2년경에는 대한(大汗)(군주)의 위(位)에 나아가 호(號)를 성길사한(成吉思汗)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몽고의 세력은 점점 강성하여 동서남북 닥치는대로 근린(近隣)을 병탄(併呑)하여 마침내 대금(大金) 제국(帝國)으로 황하 이북의 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금에게 북변(北邊)의 지역을 약취당하였던 거란(契丹) 유족들은 대요국을 세우고, 금의 요동 선무사(宣撫使) 포선만노(蒲鮮萬奴)도 자립하여 대진(大眞)이란 국가를 세웠다. 미구(未久)에 이들은 몽고대군에게 밀린 바 되어 저항이 약한 고려로 밀려들었다. 고종(高宗) 4년에 거란인들은 대거 남진하여 철원과 원주 등지를 유린하다가 우리의 맹장 김취려(金就礪)와 주남(州南)에서 싸워 대패(大敗)를 입고 연전연패하여 동북여진으로 달아났다. 미구에 거란군은 여진의 병(兵)을 얻어 남하하여 지금의 함(咸)·평(平) 양도(兩道)에서 동서로 전전(轉戰)하면서 거적(擧賊)과 같이 약탈을 업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 몽고는 동진과 화맹(和盟)을 맺고 협력(合力)하여 거란의 잔적(殘敵)을 소탕한다 하고 또 고려를

조설령(趙雪嶺)



구출한다고 양언(揚言)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해에는 양국의 연합군은 반도 동북면으로부터 서남에 나타나 거란의 제성(諸城)을 깨뜨리고 그 주력인 강동성(江東城)에 육박하였다. 그때 대설(大雪)이 내려 양도(糧道)가 두절되어 몽장 함진(哈眞)은 서북면 원수(元帥) 조충(趙冲)에게 병량(兵糧)을 청하였다. 조정은 이를 반대하였으나 조충은 그 요구에 응하여 장병 1천과 미곡(米穀) 1천 석을 보내고 다음 해 정월에도 김취려를 보내어 강동성을 깨침에 몽고군과 연합하여 이를 함락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몽고는 대요 거란을 평정하는 것으로서 고려에 대하여 큰 은혜나 베푼 것 모양으로 해마다 과중한 공물을 요구하고 뿐만 아니라 몽고의 사절을 올 때마다 그 행동거지(行動舉止)가 오만불손하였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다. 고종 12년 정월에(몽고 태조 20년) 몽고 사자(使者) 저고여(著古與)가 사명(使命)을 마치고 자국으로 귀환 도중 초적에게 암살되어 몽고 정부는 고려인이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여 다수한 질문을 아정(我廷)에 보내왔다. 아정에서는 강외(압록강)의 금인(金人)의 소행(所行)이라하여 극구변명하였으나 몽고인들은 끝내 고려인의 소행으로 돌렸다.

그리하여 양국의 관계는 점차 험악하게 되었고 국제단절에까지 이르렀으나 몽고제 성길사한은 타고(他故)로 인하여 고려침범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의 제3자 태종이 후계자로서 내부(乃父)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고종 18년에 금국을 정벌하는 동시에 별군(別軍)을 철레탑(撤禮塔)에게 주어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고려는 무신 최충헌(崔忠獻)은 이미 죽었으며 그의 아들 최우(崔瑀)가 정권을 잡아 정방(政房)을 두고 백관출척(百官黜陟)을 임의로 할 때였다. 몽고 대군은 손쉽게 압록강을 건너 장구(長驅)하여 송경(松京)을 포위하였다. 몽고대군의 경과(經過)하는 도시나 촌락은 형적(形跡)이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가옥은 소각되었으며 금은(金銀)은 탈취

언니에게 드리는 편지

정진구(鄭珍九)



펜을 드니 먼저 무엇을 써야 될지 잠시 망설이게 되는군요.

물론 안녕하시겠기에 긴 인사말 줄입니다. 가을밤의 다사로움과 아쉬움을 맛보면서 적어도 이 순간만은 나의 모든 생각은 언니 곁을 맴돌고 있어요.

글쎄 귀뚜라미 탕도 아닐텐데…… 이렇게 센치해지는 밤 언니라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 다 못해 이내 이렇게 펜을 든 거예요. 웬지 모르겠어요. 늘 언니의 화제는 내게는 별로 흥미 없었던 형부의 것이긴 했지만 이 순간 문득 그리워지는군요. 형부도 안녕하시겠죠. 남달리 뽀족하고 날카로운 성질의 소유자인 언니이기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새 혹시 싸움은 안 하셨겠죠?

이 글을 보는 순간 언니는 약간 부끄러울 걸요. 곧잘 흥분한 나머지 눈물까지 섞어가며 무엇이 잘못하고 무

엇이 틀리고 덜 뻘뻘하고, 있는 흥 없는 흥 다 보아 놓고는 혹시 내가 부채질을 할라치면 도리어 나를 면박하며 눈까지 흘기고는 어느덧 기분은 차차 변해 꿈을 그리는 소년인양 “난 그래도 그이가 좋아. 하늘을 나르는 그이가 말야. 그 하늘색 유니폼 그이의 눈동자 음…… 나는 그이가 좋아”

내 땀에는 언니 편을 들어 주느라고 한 말이 효력을 잃고 이렇게 돌변하면 나는 그만 어이가 없어지곤 했죠. 항상 언니의 진실을 알기엔 알쏭달쏭했으니깐요. 언니, 엇그저께 같건만 벌써 철이가 있군요. 철이도 많이 예뻐졌을걸요. 아빠 닮아 비행기를 좋아한다구요. 무엇보다 내가 보낸 선물을 좋아한다니 정말 기뻐요. 지금은 밤, 귀뚜라미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군요. 좀 전에 귀뚜라미

금군(金君)에게 부채질(부채질)을 글

되었다. 가는 곳마다 분탕질이었다. 실로 가한 분략(焚略)이었다. 귀주, 서경의 양전(兩戰)에서 다소의 전공을 세웠으나 아군의 무력함을 보인 것 뿐이었다. 무서운 동절, 수도 개경은 운명이 조석에 박두(迫頭)하였다. 고종은 철레탑의 권항사(勸降使)를 인견(引見)하고 예폐(禮幣)를 후히 하여 왕제(王弟) 준안공(淮安公)을 철레탑의 본영인 안주(安州)에 보내어 몽장과 화(和)를 강(講)케 하였다. 철레탑은 이를 허하고 다음 해 정월에 군사를 돌이켰다. 몽군의 오고 가는 도중에 민가의 피해는 필설(筆舌)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고려는 만부득이(萬不得已)하여 적에게 화친을 강하였지만 적의 동향은 예측을 불허하였다. 권신(權臣) 최우는 재추(宰樞)회의를 열고 강화전도를 제창하여 아무도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 마침 죽을 때가 되었던지 야별초(夜別抄) 지휘관인 김세충(金世沖)이 회석(會席)에 돌입(突入)하여 환도의 불가를 논하고 적극적으로 방수(防守)할 것을 주장하다가 그 수성(守城)방책을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했다 하여 중의의 방해자로 몰리어 참형(斬刑)되었다. 고종 19년 6월에 수도를 강도(江都)로 옮기고 적의 예봉(銳鋒)을 피하고 지구(持久)항전을 각오하였다. 송도의 민호 10만은 강제로 강화에 이거(移居)하였고 노약과 일부는 산성과 해도(海島)로 피난케 하였다. 이러한 고려의 처사는 끝까지 몽고에게 적의를 보인 것이므로 몽고는 다시 철레탑에게 대병을 주어, 다시 고려를 엄습케하니 개경은 순식간에 함락되고 한강 이남까지 분탕하였다. 철레탑은 처인성(處仁城)(용인) 공격 중에 우리의 승려 김윤후(金允侯)의 화살에 사살되어 그 군사는 부장 철가(鐵哥)의 인술하에 북으로 철귀(撤歸)하였다. 고려는 이에 다소의 힘을 얻어 최우는 가병(家兵) 3천 인을 보내어 북계병마사 민희(閔曦)와 함께 서경의 반적(叛賊) 홍복원(洪福源)을 토벌케 하여 그 가족 수인을 사로잡고 복원을 요동으로 축출하였다. 그리하여 북부 제주현(諸州縣)은 회복되었으나 그 피해는

한 마리가 내방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잘도 뛰는지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간신히 수건으로 닦아서 잡았어요. 나 겁보인 것은 언니가 아니니까……. 귀뚜라미 합창은 가을의 특산물, 정말 듣기 좋아. 어딘지 좀 구성지고 서글퍼. 게다가 바람 소리와 함께 들리는 소리, 언니 느낄 수 있겠수?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을 가진 언니, 지금쯤은 포근한 잠을 자고 있겠죠. 순간 언니가 부러워지는군요. 요 며칠 전 나는 변두리 극장에서 공군의 가족을 그린 영화를 보았어요. 특히 공군의 조종사를 그린, 마치 언니와 형부를 연상시키더군요.

남편을 지극히 협조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로 엮어진 두 사람의 애정……거기엔 아무런 두려움도 거리낌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영국의 시인 존 키츠가 말했듯이 ‘한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겠죠? 나는 재차 이 스토리 그리고 내가 거기서 느낀 믿을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이 거기에 공감과 생각을 같이할 수 있었어요. 물론 두 사람 사이에는 경제적 조건에서 오는 고난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리 문제시되진 않더군요. 남편을 비행장에 내보내 놓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오는 초조감 그리고 안도감, 조종사의 아내 되기는 힘들게 보이더군요. 비록 조종사 아니라 현명한 아내가 되기는 힘든 일이죠. 여자의 앞은 성격에서 오는 비유—어떤 친구는 어떻게 누구는 잘 살고 남이 가진 것은 다 갖고 싶은 공통된 사람의 심리에서 오는 마음 그리고 허영—쉽게 이것들이 남편을 괴롭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예요. 여의치 않은 경우, 언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나머지 열등 의식을 가질 거고 하찮은 것에 신경을 분산시킬 거예요. 정말 좋은 아내라면 우선 완전히 남편을 이해하여 야 되겠죠. 그 Job과 Situation 속속히 알아야 되요. 모른다면 노력해야죠. 내가 알기에는 남자들은 어딘지 어리석은 데가 있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 아내의 힘 또한 커요. 세상이 말하는 내조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언니처럼 조종사의 부인, 색다른 직업을 갖고 넓은 하늘을 나는 분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만일 내가 언니처럼 조종사의 아내가 된다면 크게 외치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잘 할 것 같군요.

첫째 믿음과 안정감으로 하늘을 날게 하겠어요. 폭음을 영원히 내 벗 삼아! 언니 우습죠? 왜 이렇게 이야기가 탈선됐는지, 아마 언니가 조종사의 부인이니깐 나도 이렇게 동화된 모양이에요.

언니 우리 다 자기 일에 충실하여 좀 더 협조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건설에 이바지해야 되겠죠. 작은 일부더라도. 이렇게 꾸념을 하다보니 밤도 깊었군요. 두서없는 글 읽느라고 지루했죠. 언니와 형부 얼굴을 번갈아 그리면서 나도 모르게 웃어 버렸군요. 언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형부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형부가 참 좋아. 아 참 철이 데리고 집에 좀 놀러 오세요. 그럼 기다리겠어요. 안녕

동생 친구가 (필자·여대생)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어서 북부 지방은 황막(荒漠)한 산야와 초원 뿐이었다. 홍복원은 서경의 반장(叛將)이었으나 그는 요양(遼陽)에서 안무 고려 군민총관(軍民總管)이 되어 고려의 항중(降衆)을 다스렸다. 몽고는 잠시 동진을 토벌하는 사이 숨을 돌리게 하였으나 금과 동진을 멸하고는 다시 예봉을 고려로 돌리어 고종 22년에는 당올태(唐兀台)에게 대군을 주어 전국이 그의 말발굽 아래 유린(蹂躪)되게 하였다. 그 약탈은 참혹이란 문자만을 가지고는 표현에 궁하다고 할까. 고려의 전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이 세기적 대적 앞에 항거하였다. 고려의 제장(諸將)은 전력을 기울여 방어하였고 조정의 군신은 강도에 편재(偏在)하여 중성 외성을 쌓으며 연안을 철동같이 방어하였다. 원래 몽고인들은 대륙에서 장성(長城)하였으므로 기사(騎射)에는 능하나 해중(海中)에는 능숙치 못하여 지호(指呼)의 간(間)인 강도에는 한 발자국도 밟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정은 화전(和戰) 양면의 태세를 정비할 새 25년 겨울에 김보정(金寶鼎) 등을 특사로 하여 몽고에 보내어 철병을 최촉(催促)할 뿐이었다. 이로부터 몽고는 자주 왕의 입조(入朝)를 촉(促)하여 올 뿐, 아정에서는 자주 사자를 보내어 고종 입조의 불가능을 말하고 대신 왕족 영녕공(永寧公) 준(綽)을 왕자(王子)로 가칭하여 몽고에 보내어 인질을 삼게 하였다. 몽고에는 또 태종의 상사(喪事)가 나고 동시에 후계자 선거에 관한 분쟁 때문에 4, 5년간은 뜸하다가 고종 33년에 정종(定宗)이 왕위로 피선(被選)되어 고려의 세공불입(歲貢不入)을 이유로 아모간(阿母侃)을 장으로하여 대군을 파견하니 또 분탕이 벌어졌으며 태종 후에 헌종(憲宗)이 즉위하여 다시 고종 38년에는 야고(也古), 박자대(朴刺帶) 등 제장을 보내어 전국을 점탈하였다.

해전에 미숙한 몽고 대병은 육지의 제성만을 공함(攻陷)할 뿐이요, 강화의 요새에는 꿈쩍도 할 수가 없었다. 박자대의 지나간 곳에는 옛날의 몽적의 화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았다.

이때 몽고는 이미 원국으로 중원을 잡았을 때였다. 그 군마가 거친 지방마다 완전무결하게 소진되어 당시인의 머리에는 원구(元寇)는 몽적보다 못지않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자주 사절을 보내어 그 군사의 철귀를 요구하였으나 박자대는 국왕의 출륙(出陸)항복을 권하였고 조정에서는 선철군 후입조를 제의하여 조건문제로 피차 양보하지 않았다. 아방(我方)은 비록 강도에 침거하여 맹렬한 저항으로 몽적 및 원구에 대항하였으나 그 문화는 고려 475년을 통하여 가장 발전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청자의 최우수품 가운데는 이 시기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라 한다. 이때 강화도에서는 무신 최우가 이미 사망하고 그 아들 향(尙)이 뒤를 계승하였는데 인심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 계모 대씨(大氏)와도 불화를 낳아 모(母)를 살(殺)하고 모의 죽문(族門)을 멸하는 등의 행위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러다가 최항이 집정 9년 만에 죽고 고종 44년에 그 비첩의 소출인 의(頤)가 정권을 놓하다가 다음 해에 김준(金俊) 등에게 주륙(誅戮)되어 4대 69여 년에 궁(亙)한 최씨 왕국이 붕괴하고야 말았다. 이에 정권은 다시 왕에게 돌아가고 이에 대몽 태도도 다소 달라지게 되었다. 몽고의 주장과 요구는 여전히 강경하여 별도리가 없게 되었다. 몽고는 이제 구아(歐亞)에 궁한 전고미증유(前古未曾有)의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조그만 고려가 30여 년을 저항하여 온 것만 하여도 민중과 지배층이 얼마나 강대한 결속을 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원제국의 형성을 안 이상 더 저항하는 것은 무익할 것 같아서 고종 46년 3월에 박희실(朴希實)을 특사로 하여 개경에 보내어 박자대와 회견하고 국왕의 출륙과 태자의 입조를 약속하여 40인의 종자와 더불어 태자 전(腆)을 몽고에 치송(致送)하였다. 몽고에서는 아방의 방위시설을 철해(撤毀)하여야만 강화의 실을 얻을 수 있다 하여 특사를 아국에 파견하여 강도의 시설을 파괴케 하였다. 고종은 강도에서 송경으로 귀환치 못하고 그해 6월에 강도에서 하세(下世)하여 태손(太孫) 심(諶)이 임시로 국정을 재단하게 되었다. 몽고에 가 있는 태자는 2월에 귀국하여 왕위에 나아가니 원종(元宗)이 그이다. 신왕 원종은 개경 궁궐 조영(造營)에 칭탁(稱詗)하고 왕도를 떠나지 아니하여 몽고왕의 최촉을 여러 번 받았으나 그 대신 원종은 태자를 수차나 몽고에 파견하여 성의있음을 표시하였다. 최씨 집권을 전복한 공훈으로 김돌(金堧)은 전자발호(專恣跋扈)하였으므로 무신 박연(朴衍)에게 족멸(族滅)되고 박연은 끝까지 몽고에 불항하여 재거(再擧)를 모의하는 가운데 원종 이하 근신의 친몽출륙책으로 경도(傾倒)하므로 다음 해에는 왕을 별실에 가두고 왕제 안경공(安慶公) 창(滄)을 세워 일권(一權)하다가 몽고의 질책을 받아 할 수 없이 원종을 복위하고 박연은 우만(憂瀆)한 끝에 병이 발하여 사망하였다. 전년에 서북병마사의 관리 최탄(崔坦)이란 자는 박연을 토멸한다고 크게 떠들더니 그 군사를 통틀어 원종(元宗) 2년에 서경 이하의 제성을 가지고 몽고에 항복하여 몽고에 붙으니 몽고왕 흘필렬(忽必烈)은 병 3천을 보내어 고려의 서경을 진수(鎮守)케 하고 그곳에 동녕부(東寧府)를 두고 자비령(慈悲嶺)으로서 양국의 경계선을 삼고 최탄으로 그 총관을 삼았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고려 전체가 원의 대제국적 무력 앞에 불가항력일 것을 알고 동북면에 있어 서도 고종 만년에는 용진인(龍津人) 조휘(趙暉)가 정주인(定州人) 탁청(卓淸)으로 더불어 배반하여 화주의 관리를 살해하고 그 이북의 지역을 통틀어 몽고에 항복하니 화주(지금의 영흥(永興))에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두고 조휘로서 총관을 삼았다. 반도의

특수(特殊)한 기질(氣質) 이해(理解)하기를

정충양(鄭忠良)



비행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던 어린 시절의 꿈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소녀 때 꿈이 무지개를 타고 번질대로 번지는, 환상이 양식이 될 수도 있는 시절에 나는 하늘을 날 무한한 공상에 가슴이 부풀대로 부풀었다.

엄(嚴)여사가 하늘을 날 때, 나는 겨우 여학교 1년생이었다. 졸업할 때까지 줄곧, 이 비행사가 되려던 지망(志望)이 어떻게 변해서 문화를 택했는지 기억에 확실치 않지만, 어찌했던 지금도 여객기를 타면 그 옛날 꿈이 아련해진다.

약간 높은 산을 정복하여도 그 기쁨이 대단한데 하물며 거칠 것이 없고 한이 없는 푸른 하늘을 고속도로 난다는 일은, 인간의 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 옛날 원시인들이 걸어 다니다가, 약간 발전해서 동물 등에 올라타게 되고 그러니까 가마를 만들어 타고, 그것이 발전해서 배, 기차, 자동차 등으로 발전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란 아마 기쁨 중에서도 절정이었으리라. 이런 것이 번져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교통에 이용

북부의 태반은 몽고령으로 화하였으나 그 이남의 지역으로 강토를 유지하면서 원종 11년에 가서야 구도(舊都) 개경으로 이어(移御)하니 이로부터 완전히 몽고의 절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출륙문제를 에워싸고 여러 복잡한 암류(暗流)가 흐르고 있었음은 고려인의 대부분이 강화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대원강화는 대세에 부득이하여 일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출륙문제는 성질이 달랐다.

‘몽고에의 완전 예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원종을 중심한 문신일파는 출륙항복을 희망하였으나, 앞서의 입연 일파는 끝까지 항거를 시도하였다. 입연이 한때 원종을 유폐하고 왕제 갈(渴)로 왕을 삼아 독제를 한 것도 이와 같은 대원항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강약이 부동으로 원의 간섭으로 원종은 복위되고 입연은 병졸하였으며 그 자, 유무(維茂)의 도륙으로 왕권은 회복되었으나 원종은 몽고에 갔다가 개경에 귀환하는 길로 강도(江都) 내의 모든 계급과 기구를 옮길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삼별초를 중심으로 한 병장일파는 불복의 태도를 명시하였다. 이 삼별초군 가운데는 고려인으로 원에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 온 사람을 모아 신의군(神義軍)이란 한 특수부대를 조직하였는데 그들의 투지는 보통 다른 군대와는 천지의 차이였다. 몽고에 대한 적개심은 충천의 세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몽고에 굴복하는 것은 영원한 취육이요 굴종이었다. 그들은 왕의 명에 복종치 않으려는 것은 아니나 몽고에 굴복하는 것만은 싫어하였다. 그러자 송경의 왕정부(王政府)로부터 이 삼별초군을 벌하고 그 명부를 탈취해 갔다. 이에 별초군들은

“우리의 명부를 몽고군에 제시하여 우리 전부를 살해코자 한다.”고 하며 정부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반의를 품었다.

삼별초군의 지휘관인 배중손(裵仲孫)은 드디어 군졸들을 총동하여

“몽고병이 상륙하여 크게 인민을 살해하려고 한다.”

하고 외치고 연안과의 경비를 엄히 하여 송경과의 교통을 차단하였다. 그러므로 도내의 인심은 극도로 흉흉하여 인민들은 전전궁궁하였다. 배중손 등은 왕족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왕으로 추대하여 관부를 설치하고 송경정부와 몽고에 대하여 적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오래 지탱하기 힘들 것을 알고 천여 쌍의 함선에 공사재물과 도내의 자녀들을 싣고 남방으로 가서 진도에 들어가 그곳을 중심으로 연안 주군(州郡)을 약탈하였다. 조정에서는 후일 일본원정시의 명장 김방경(金方慶)에게 명하여 몽고원수 혼도(忻都) 등과 함께 삼군을 거느리고 진도를 공격하였으므로 반중의 별장 김통정(金通精)이 여중을 거느리고 탐라(지금의 제주도)로 들어가 내외에 성을 쌓고 새로운 해상왕국을 건설하면서 저항하였다. 몽고가 고려를 지배한 지 오래인 동안에도 그들은 끝까지 항거하여 최후에 원종 14년에 참패하여 여중 70여 인을 모아 산중으로 피하여 가다가 목매어 자진하였다 한다. 삼별초의 난은 이리하여 평정을 보았지만 그들이 3, 4년 동안 고세약형(孤勢弱形)으로 세계적 대제국 몽고와 그 괴뢰정부에 대하여 최후까지 항쟁한 것은 고려무인의 전통적 정신의 발로이며 또한 한 과중(寡衆)이지만 단결된 위력의 과시일 것이다. 강화도란 탄환만한 일 소도를 안전지대로 하여 질풍신뢰(疾風迅雷)와 같은 유목야생적인 몽고의 대군을 유격하여 30여 년을 항거하는 동안 모든 계급의 민족적인 의식과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단결과 투쟁

하여 지구 어디건 마음대로 날아다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지구 밖 우주까지 날게 된 이 마당에서, 파일럿은 확실히 멋쟁이가 아닐 수 없다. 멋쟁이만 아니라 파일럿은 또한 공간을 개척하는 용사이기도 하다. 라이트 형제나 세기적인 조인(鳥人) 린드 벅의 꿈과 용기와 기백이 아니었던들 오늘의 항공사는 그렇게 혁혁하고 화려한 것이 못 되었으리라.

어찌했던 오늘의 파일럿은 전쟁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세계우방과의 문물교환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그 역할이 대단하다. 그들은 단 직업에 비해서 재질과 취미에 병행해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일럿이란 가장 화려하면서도 또한 그 생명을 걸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난 용기와 슬기로움이 있어야 한다. 파일럿은 비행기와 생명을 같이 해야 하는 운명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이 일에 헌신하려는 의미와 용맹심과 영웅적인 기개는 정말 남아다운 일이라 하겠다. 이 남아다운 기백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인간의 자세일 것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각오가 그들의 심성을 한층 담담하고 고귀하게 세련시킨다고 할까?

땅에서 구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 운전수도 그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행사와 지상의 운전수는 기질적으로 다르고 그 각오마저 다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의 차이같은 것이다.

이런 점 가족들은 명심해야 할 일이다. 물론 가족들의 사랑이 남달리 깊은 것은 물론일 것이나 그것이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은 삼가야 할 줄 믿는다. 뒤집어 말하면 너무 좁은 소견에서 사랑의 표시로서 지나친 우려를 본인에게 나타낸다면, 때로는 하치않은 일을 가지고 출동하려는 그에게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하는 일은 금물이다. 아내나 식구들로 받은 정신적 타격으로해서 일분일초를 소홀히 해서 불의의 불행을 초래할지 모를 일임을 생각할 때, 그 가족의 역할은 다른 직업인의 가족과는 별다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가 작년 8개월동안 세계여행을 하면서 68,000마일을 비행기여행을 하였다. 비행기회사만 해도 수십 종 회사의 비행기를 탄 것 같다. 이렇게 수없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이 비행기의 파일럿의 정신상태가 평온한지? 그것이 궁금하였다. 이렇게 여행자가 파일럿의 정신상태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생각의 초점이 그 가족이 생각하는 바와 약간 상반되는 것이나 하여튼 비행이란 파일럿의 정신안정이 우선 조건이다. 그러므로 공군의 가족일수록 본인의 기질이나 성품을 십이분 파악해서 평상시도 그러하지만 장도(壯途)에 오를 때는 그를 무언의 사랑으로 지키고,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통때도 자녀가 되건 남편이 되건 또는 아버지가 되건 그 본인의 영웅적인 기개를 이해하고 아기는 동시에 자기들에게는 돌도 없는 귀한 존재이지만 나라에 그리고 하늘을 정복하는 용사로서 바쳤다는 평소의 각오가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가족에게 절실하여야 할 줄 안다. 일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뜻하는 바와 대의를 위하여 생명을 내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일이다.

(필자·평론가)



의 힘은 지극히 왕성하였다. 탁청과 조휘 최탄 등의 조국에 대한 반역행동은 난 후 절망적인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고려 전국의 각지는 적국 몽고의 철제(鐵蹄)하에 맡겨져 일반 민중의 고통, 인구의 소멸은 물론이요 기타 문화 일반의 손모(損耗)는 언어에 질(絶)할 만하였다. 현종 시의 각장(刻藏)인 대구 부인사 대장경판도 고종 23년 강화천도 직후에 몽장의 화로 전부를 소실되는 운명에 놓였으며 신라 이래의 국보인 황룡사 9층탑도 고종 25년의 경주 침입으로 오유(烏有)에 돌아갔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 두 보배를 상실한 것은 지금으로도 큰 유감이지만 당시의 국가적 신앙인 불교의 큰 문화재를 상실한 고려인들의 마음은 더 통분하였을 것이다. 황룡사의 9층탑은 그 후 재생치 못하였으나 고려 대장경만은 그 전무후무한 대란 중에서도 강화도 안에서 재계획되어 몽병조복(調伏)이란 신앙적인 또 애국적인 결단의 표상으로 열렬한 민족의식과 놀라운 신앙의 힘에 의하여 그렇듯 거창한 대사업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간경(刊經) 도감을 두고 각조(刻鑄)에 착수하여 고종 24년에 시작하여 동양 38년에 이르는 무릇 전후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이 방대한 국가적 사업은 민족단결의 상징으로서 완성되어 통히 판각 8만 천 백 37매로 세(世) 소위 고려의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 판각은 수많은 세월을 경과한 뒤인 오늘에도 엄연히 보존되어 당시의 민족적 단결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종 19년 6월에 강도로 옮긴지 무릇 39년이 흐른 원종 11년야야 송경으로 다시 옮겼으니, 거의 반세기에 공한 이 민족의 단결항쟁은 사상 미증유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철저한 항거를 계속한 고려인민의 철석같은 단결은 물론 강화도란 지리적 혐오에 의거한 바이지만 고려인들의 왕성한 민족적 의식과 그 불요불굴의 독립정신에 힘입은 바라고 할 것이다. 더욱 그 전란 가운데에서도 문화적으로 거대한 사업을 성취하였음은 그들의 단결이 어떠한가를 말하여주는 좋은 표본이라 하겠다. (끝)

A9·A10계획(計劃)

제2차대전 중 독일의 미사일 계획은 전호(前號)에서 말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계획만으로 끝났지만 A9·A10 계획과 극간폭격기 계획은 전후에 있어서 열강국들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A9·A10은 2단식 장거리 미사일이 될 예정이었다. V2호에 55도의 후퇴익(翼)을 달아서 사정거리를 연장한 것을 A9로 한다. 그 밑에 부스터(발사용로켓)로서 중량 68톤의 A10이 연소를 끝냈을 때는 로켓은 고도 24km에 달하게 된다. 속도는 시속 4,280km로서 여기서 A10은 낙하하여 A9만이 상승을 계속한다. 마지막에 가서 시속 10,000km에 이르면 연료분사를 끝내고 그 후에는 탄도를 그리며 비행한다.

점점 고도를 낮추어서 고도 45km에 이르렀을 때에 속도는 시속 12,800km가 된다. 이때의 추력(推力)을 요령있게 응용해서 전사정(全射程) 4,800km에 달할 수 있도록 활공비행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전단계로서 A9계획 즉 V2호에 날개를 달아 사정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이미 개시되고 있었다. 1942년에는 V2호 즉 A4에 2개의 후진익을 단 A4b가 계획되었다. 1944년에는 2발의 시작기(試作機)가 만들어지고 그해 겨울에는 실험이 있었는데 그대로 바로 실용이 될상 싶지는 못하였다.

그 전에 A9·A10계획은 중지되었다. 1943년 8월 16일 페네룬디는 600대의 영국 장거리폭격기의 폭격을 받아 735명이나 사상자를 냈으며 연구시설도 크게 피해를 입었다. 이쯤되고 보니 미본토 공격은 생각도 못할 형편이었다. 그리고 미본토 공격을 꿈꾸던 폰 브라운도 결국에 가서는 개발계획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2단 로켓 혹은 3단식 장거리 로켓은 제상론(机上論)에 그치고 혹은 폰 브라운의 머리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었다.

극간폭격기(極間爆撃機)

극간폭격기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천재 항공기술자 오이겐 켈렐의 고안이다. 그 재능이 촉망되어 빈에서 독일에 초청된 켈렐은 1936년 트라웬에다 로켓비행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1939년에는 소수의 진용(陣容)으로 연구를 개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계획은 극간폭격기 즉 지구를 반주(半周)할 정도의 사정을 가진 유인폭격기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도 3년 후인 1942년에는 전쟁 동안에 쓰이지 못할 것으로 알고 중지하여 버렸는데 이 계획은 다른나라 기술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제2차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직후 소련의 스탈린은 “켈렐박사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하면서 맨 먼저 찾아내려고 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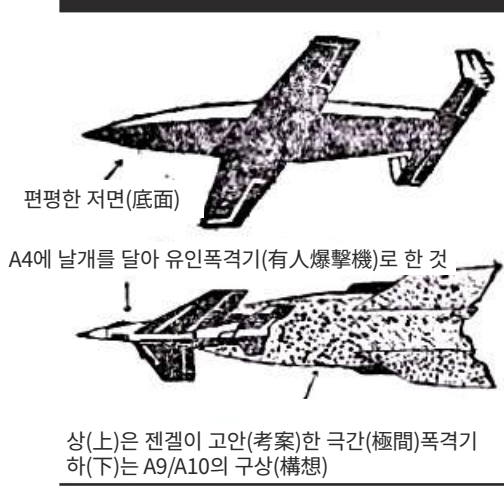
그당시 오이겐 켈렐은 그의 협력자 이레네 부렛트와 더불어 연합군에 잡혀서 프랑스 공군성으로 호송되었는데 이 두사람의 공동작품인 ‘켈렐 부렛트 보고’ 즉 ‘초고도를 비행하는 장거리폭격기의 로켓 추진’이라는 구상이 크게 열강국기술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기묘한 형태를 한 폭격기였다. 동체(胴體)의 하면은 편평하고 동체 단면은 높이 보다도 저부(低部)쪽이 넓은 정도여서 원통형의 연료 탱크가 나란히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었으며 동체의 선단은 아주 뾰족하였다. 주익(主翼)도 색다르게 생겼는데 익폭은 15m 주익의 단면은 삼각형으로서 두께는 익현(翼弦)의 20분의 1이라는 얇은 것으로 더구나 가장 큰 두께의 위치는 익현의 3분의 2지점에 있었으며 발사중량은 100t이나 되었다.

발사할 때는 3km 길이의 수평으로 된 홈위를 부스터의 힘을 빌려 활주대를 이탈할 무렵에는 시속 1,800km의 속가 된다. 그다음에 30도 각도로 상승을 계속하여 8분 후에 연료소비가 끝날 무렵에는 고도 150km 속도 약 21,400km가 된다.

기체(機體)는 그대로 상승을 계속하여 최고고도인 250km까지 달한다. 그런 다음에 탄도를 그리며 40km까지 강하해서 대기권 상면에서 반도(反跳)하여 몇 번이고 대기층 위를 바운드하면서 소위 스킵 비행을 계속하다 드디어는 20,000km 사정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이었다.

켈렐의 극간폭격기는 미사일 분야 가운데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나



미사일의 역사(歷史) ④

A9·A10계획이나 극간폭격기계획이 전후에 있어서 미국이나 소련의 장거리로켓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독일의 기술이 그대로 미국이나 소련에 이입되었다고 하면 잘못이나 제2차대전에 독일 항공기술자들이 이와 같은 장래 병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이나 그밖에 나라들의 기술자들에게 이와 같은 종류의 병기를 연구 개발하는데 있어서 용기를 주었고 그 가능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美國) 최초(最初)의 ICBM계획(計劃)

미국에서는 이미 1945년 가을에 장거리 로켓의 개발이 계획되었다.

1945년 10월 31일 미육군은 몇 개의 사회를 초치하고 8,0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로켓 연구개발 계획에 관해서 토의한 바가 있다.

오늘날 ICBM 아트라스를 생산하고 있는 콤베아사는 1946년 1월에 여기에 관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4월에는 육군과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1947년에는 금일의 아트라스가 지닌 특성을 갖춘 시험로켓의 원형을 만들었다. 그런데 주임기사는 지금 콤베어우주공학부의 기술부장을 하고 있는 카렐 J 보사트였다. 이 1단식의 시험로켓에는 MX774하이룻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정적시험과 3발의 실험 발사가 화이트 샌스 시험장에서 행해졌다.

그런데 MX774에는 V2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엔진이 가동식으로 되어있어 방향제어를 그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V2호는 노즐(NOZZLE) 가운데의 분류익(噴流翼)이 방향을 바꾸어 제어하기 때문에 추력의 손실이 컸었는데 이 결점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식의 엔진장비법이 채용된 셈이다.

둘째로는 구조가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을 주로 써서 V2가 강철을 대부분 쓴 데 비해서 훨씬 가볍게 된 것이다. 더구나 외각(外殼) 자체가 추진제 탱크의 외벽도 되어 그 점만으로도 탱크나 외각과 따로 되어있던 V2보다 훨씬 경량화에의 노력이 기울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겨우 움직임이다 주저앉고 말았다. 즉 1947년의 군수비절감으로 장거리 로켓개발이 감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에 행하였던 MX774의 시사(試射)를 최후로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ICBM 개발은 오랜 동면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보사트가 인솔하는 기술진은 콤베아사의 자금으로 다단식 로켓의 기술, 유도, 추진제의 조립, 탄두 재돌입의 문제에 집중하여 연구만을 그러저럭 계속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사비가 증액되어 ICBM계획이 재 대두되었다. 새로운 계획에 부여된 명칭은 MX-1593이었다.

1952년말에서 1953년초에 걸쳐 C·B·미리칸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군과학부문위원회는 콤베아사의 ICBM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그 결과 그 기술적 가능성을 만장일치로 인정하였다. 1953년 가을 존 폰 노이만이 주재하는 문관위원회도 ICBM계획 전반을 축진해야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리하여 1954년 공군은 계획 축진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그런 가운데 수폭(水爆)이 실험을 보아 1954년 3월 비키니에서 본격적으로 실험이 개시되었다. 탄두는 아주 소형인데 그 위력은 굉장한 것이 출현하였다. 이리하여 ICBM개발이 본격화할 기회는 찾아온 것이다.

아트라스 시사(試射)

아트라스 탄도유도탄이 처음으로 시사를 행한 것은 1957년 6월 11일이었다. 발사 시간을 알리는 초침이 영점을 알리자 아트라스는 두 개의 연소실에서 분화구와 같이 화염을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135t이나 되는 추진이 고열가스의 분사로 조성되어 액체산소로 냉동된 아트라스의 동체는 마구 떨며 빙괴(氷塊)가 번쩍거리며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아트라스는 불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상승하였다. 점점 높이 점점 빨리 누구나 이 발사 순간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별안간 일대사고가 일어났다. 거대한 로켓은 돌연 예정 진로에서 이탈하였다. 망원렌즈로 지켜보던 아트라스탄도유도탄의 시사광경 기술자들에게는 아트라스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볼 수 있었다. 유도장치는 전력을 다하여 아트라스의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궤도에서 이탈한 채로 상승을 계속하는 가운데 드디어 기체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두부(頭部)가 거의 수평이 되어 갔으며 마구 내뿜는 화염은 점점 길어졌다. 이렇게 몇십 초 경과하였다. 드디어 연료 파이프가 파열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으며 노즐에서의 화염은 이미 분출이 멎었다. 아트라스의 전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화염에 싸이고 말았으며 불덩어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해상으로 해변으로 낙하하였다. 불과 55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것이 아트라스 처녀비행의 전부였다. 30만 개의 부분품을 조립해서 만든 정교무비(精巧無比)의 아트라스 제1호는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말았다.



아트라스탄도유도탄의 시사광경

삼강오륜(三強五輪)

강소천(姜小泉)

삼강오륜이란 말이 몇 해 전부터 유행했다. 삼강오륜의 음을 따서 만든 삼강오륜(三強五輪)이다.

삼강이란 '금력(金力) 권력(權力) 폭력(暴力)'이요, 오륜이란 자가용 지프차를 뜻하는 것이라 한다.

확실히 그때는 삼강오륜이 판을 치던 세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처세술 속에 휩쓸려 살지 않는 사람으로 보면 이처럼 아니꼽고 밉살머리스러운 일은 없었다.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게 요즘 세상이다.'라고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옳은 말이었다.

아무리 안될 일이라도 삼강으로 우겨대면 되었고, 또 다른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금력은 권력을 샀고, 그 권력은 다시 돈을 걸어들었던 것이다.

금력이나 권력이 무색해질 경우 또는 방법이 막힐 때면 폭력이 동원되는 것이었다. 폭력은 금력과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삼강으로 얻은 오륜은 시장 비좁은 골목까지 자가용차를 밀고 들어갔다.

그들은 돈 쓰기에 시간이 모자랐다.

한국 사람이랄 수 없으리만큼 그들의 생활은 사치해졌다.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돈이 생겼으니 걸치레를 하는데 밖에 쓸 곳이 없는 것이다.

그게 부러워지는 사람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별 수 없으니 속이고 빼앗고 잘라먹고—그리하여 우리의 사회는 거짓과 도둑놈들의 세상으로 화하여 버렸다.

국산 양복이나 국산 옷감, 국산품을 쓰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같이만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과 ICBM

이와 같이 미국이 계획하고 중지하고 하는 사이에 소련도 ICBM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련에는 원래 ICBM 연구에 혈안이 될 이유가 있었다. 미국은 소련에 근접된 많은 해외기지를 가지고 있으나 소련은 그것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러므로 소련은 항상 이 전략적 약체성을 타개하고자 광분하였다. 그런데 소련이 여기에 대처하는 길은 오직 소련본토에서 미본토에 도달할 만한 ICBM 완성 밖에는 별도리가 없다. 그래서 제2차대전 후 독일서 반출해 간 인적 물적 자원을 밀천으로 하여 여기에 전심전력(全心全力)하였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이리하여 실용적 수폭에서는 소련이 미국보다 한걸음 앞섰다. 소련은 1953년 8월에 최초의 수폭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그것에 기준한다면 미국보다 약 7개월 선행된 셈이다. 그 다음에는 소련이 1955년 11월 22일 비행기에서 수폭투하에 성공하였고 미국은 1956년 5월 21일에 투하실험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ICBM 탄두에 장비할 수폭이 실현됨에 시기는 성숙하였다. 처음으로 소련의 ICBM 성공이 전해진 것은 1957년 8월 26일이었다. 이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국제정치상에 견지해 왔던 우위는 이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동요를 일으켰다.

그런데 1957년에는 소련도 ICBM을 완성할지도 모르겠다고 예상할만한 이유는 있었다. 그것은 국제지구관측년 즉 세계각국이 협력하여 지구전반의 연구를 하는 기간이 1957년 7월 1일부터 18개월간 설정되어 미국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발사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소련도 어쩌면 한 개쯤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발사기술은 ICBM 기술과 그다지 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상술한 바와 같이 소련은 ICBM 개발을 서둘러야만 될 전략상 지리적 사정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광분케 한 주인(主因)이 될 것이다.

ICBM의 정밀도(精密度)

이러한 소련의 ICBM 광분상(狂奔相)에 미국이 좌시하고 있을 리는 없었다.

미국은 1958년 11월 28일에 아틀라스의 전사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실전용 아틀라스 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또한 정밀도도 착착 향상되어 1960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두교서(年頭敎書)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유인폭격기에 있어서 오늘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국의 장거리 공격력은 과거 1년간에 대륙간 탄도유도탄인 아틀라스가 실전화됨으로 해서 새로운 힘을 배가했다. 8,000km의 사정으로 실시된 최근 14회의 시사에서 아틀라스는 평균적으로 목표의 3.2km 이내에 도달하고 있다.”

1958년 11월 28일에 있었던 최초의 전사정 시험발사에서는

지난 8월 31일 마지막으로 외래품을 사러 백화점에 쇠도했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래품을 사야 마음이 시원했던 그들의 뱃속엔 언제 5·16군사혁명이 있었던가 하는 태도이다. 참으로 인간혁명이 각 개인에게 내려져야겠다고 생각된다.

그 시대에 치부(致富)한 자들이 아직 사치로 자기들의 위치를 버텨보려 드는지는 몰라도, 이제 소박미가 진정 우리 국민의 정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국민의식이 변하여 그런 사치한 차림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의 표식(標識)이 되도록 해야겠다.

지난 여름 나는 아내에게 질질 끌리는 치마보다 간단하고 활동적인 원피스를 만들어 입도록 권했다.

그걸 입어본 아내는 참 좋다고 했다, 내가 2년동안 입다 빗갈이 바래서 벗어 놓은 국산춘추복을 뜯어, 뒤집어 이번엔 투피스를 만들어 입었다.

나는 아내가 외래품을 사러 8월 말일까지 백화점에 안 가는 것을 보고 무척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정말 탄복까지 했다.

그 옛날 여학교 시절엔 큰 부잣집 딸로 유행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고향에 받아들였던 아내가 요즘엔 아이들을 위한 일 밖에 모른다.

하기야 원고지의 칸을 깨워 먹고 사는 남편을 가진 여성이니 그러리라 생각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멋쟁이 여성들이 다 내 아내보다 넉넉한 살림을 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상업을 하던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될 때면 한층 더 잘 차려야하고 택시만 타고 다녀야하고 돈도 더 잘 쓰고 다녀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남들이 자기가 망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치란 결국 가장 저급한 우월감과 경쟁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옷 잘 차리고 값진 핸드백에 다이아반지를 찼다는 것으로 무엇이 그렇게 뽐낼 조건이 될까 말이다.

한국의 여성들이 독서를 많이하는 좋은 의미의 경쟁같은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다. 악어 핸드백보다 한 권의 책을 든 여성이 더 훌륭해 보이도록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000km 남짓하게 비행하고 목표에서 약 48km 지점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9개월 여가 지난 1959년 9월 9일에는 태평양의 반덴버그 기지에서 실시부대에 배비(配備)된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태평양을 향해서 시험발사를 하여 7,000km를 비행함으로써 웨이크도(鳥) 부근 목표지점에 도달하였다. 그때의 오차는 1.6km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때부터 아틀라스는 최종적인 정밀테스트를 위한 연속적 시사(試射)단계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 성적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두교서로 발표가 된 것이다.

프랑스의 군사평론가 피엘 M 개로아 소장의 논문(1959년 3월호인 「타라비아」지(誌))에 의하면 사정이 7,000km 일 경우 1메가톤의 탄두를 단 ICBM이 상대국의 지하에 있는 ICBM 발사기지 하나를 파괴하는데 필요한 탄수(彈數)는 탄착(彈着)오차가 0.5%의 ICBM이라면 111발이 소요되며 0.1%일 경우에는 20발이고 0.05%일 때는 4발이라고 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틀라스의 탄착오차는 0.04%이며 적국의 지하 ICBM기지 하나를 대략 2발 내지 3발이면 파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구나 탄두에는 3-5메가톤의 수탄탄두가 장비되어 있기 때문에 2-3발도 안 들지 모른다. 말하자면 1발의 ICBM으로 상대국 지하 ICBM기지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되었으니 ICBM기술이 완전한 영역이 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장 유용(有用)한 것으로

물론 미국이 상술한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던 아틀라스를 반지하 혹은 완전히 지하 발사에 까지 발전시키려는 계획도 진행중이며 이제까지 무선지령 관성유도라는 과도적 방식이었던 유도방법도 순수관성유도 방식으로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관성유도라는 것은 ICBM 내부에 설치한 가속도계에 의해서 발사 직후부터 ICBM이 받은 가속도를 검지하고 그것을 역시 ICBM 내부에 있는 계산기구로 2회 적분하여 비행궤적을 산출해서 그것과 미리 예정한 궤적과 비교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이라면 지상에서 지령장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한 기지에서 연속해서 몇발이던지 ICBM을 발사할 수 있고 지상에 노출된 장치가 없는 점에서 기지방비도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속도 검지량에 오차가 있으면 시간과 더불어 오차가 적산되어 급격히 정밀도가 떨어지는 결점이 있다. 이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처음의 아틀라스에는 지상으로부터의 무선지령도 병용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관성유도장치의 기술도 향상되어서 순수한 관성유도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순수관성유도 방식에의 전환은 발사기지를 지하로 가져가는 것과 아울러 아틀라스를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만들었다. 한때 미국에서 미사일의 개발 진도에 있어서 논의가 많이 떠돌았다. 즉

제작년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러 어느 학교 교사실을 찾아간 일이 있다. 마침 그 선생님이 수업 중이어서 교사실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엿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쪽에서 여학생 4, 5명이 떠들며 주고받는 이야기가 의복 타령뿐이었다. 30분 가까운 동안 화제는 줄곧 변치 않았다. 초등학교 여교사들에게까지 사치는 파고 들었다. 하기가 그게 자모(姉母)들 바람이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학교를 드나드는 자모들 사이엔 은근히 이런 사치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은 유감천만(遺憾千萬)이다.

외국 어떤 작가가 쓴 도토리과 살갱이라는 동화가 있다. '누가 제일 훌륭한가?'하고 도토리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재판에서 '가장 키가 크지 않은 사람, 가장 몸집이 굵지 않은 사람, 가장 힘이 세지 않은 사람, 가장 훌륭한지 않은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했더니 싸우던 도토리들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다. 사치에는 누구보다 뒤떨어지는 자가 정말 훌륭한 국민이요, 인격자가 아닐까? 사치란 하나의 허세같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구제품시장에 가서 구제품을 사서라도 외래품을 입어야겠다는 생각도 그런 것 같다. 어떤 초등학교학생이 쓴 작문에 '마음이 부자야 정말 부자라고 우리 아저씨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빈 사람이 겉치레만 한다니요' 이런 말이 문득 생각난다. 사치를 버리는 생활은 곧 우리 생활의 전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면생활만이 아니라 정신생활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사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날—우리 개인의 생활은 진실해질 것이요, 우리나라는 부강한 민주공화국이 되리라.

(필자·수필가)

미국은 소련보다 ICBM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뒤졌다던가 혹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앞섰다고 하는 것 같은 논쟁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논쟁도 식어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소련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는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구의 크기는 일정하다. 따라서 상대국의 ICBM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도 ICBM의 수도 어느정도 가면 그것으로 온전한 상태가 된다. 차호에서 기술할 작정인데 미국의 생산계획을 보더라도 대체로 2, 3년 내에는 ICBM의 생산량도 충분히 갖추어질 모양이다. 그리고 기술개발도 완벽에 가깝다. (차호(次號)계속)

동서일화(東西逸話)

기구(氣球)와 유아(乳兒)

18세기 초엽에 프랑스 사람인 몽골피에(1740-1810)가 최초의 기구를 올렸다. 그러자 당장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동료들한테까지도 조소를 받았다. 그의 그와 같은 연구시험이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안되었다. 그 가운데는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정치가, 출판업자, 문필가, 과학자. 1706-1790)도 끼어 있었다.

어느날 프랭클린 앞에서 명망 있는 학자 한 사람이 기구를 올린 데 대해서 몹시 비꼬는 말로 욕을 하였다. 학자는 끝에 가서 "만약 기구가 공중으로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도대체 어떠한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입니까?"라고 말하였다.

프랭클린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뜻있는 질문을 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갖 낳은 유아(乳兒)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이 말에 그 학자는 말이 막혀버렸다.

열중(熱中)의 극치(極致)

물리학자인 뉴턴은 연구에 열중하면 다른 것은 전연 개의치 않는 것으로 유명하였는데 그가 늙었을 때 이야기다. 어느 날 그는 이글이글 타는 스토브 옆에 걸상을 타고 앉아서 무엇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다. 잠으로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잠은 끝에 하인을 불러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불을 끄어내게 하였다. 하인은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선생님 어째서 의자를 뒤로 물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응 참 그런 법도 있었군"

2년분(二年分) 이자(利子)

미국의 석유왕으로 억만장자인 존 데이빗 록펠러(1839-1937)가 어느 날 비서에게 버스값으로 10센트를 빌렸다. "내가 지금 잔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일 곧 자네에게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내게 일러 주게."라고 그가 말하니 비서는 대답하였다.

"사장님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록펠러는 호통을 쳤다. "자네는 계산을 모르는 사람이군! 이 10센트는 1불의 2년분 이자란 말일세"

<해설(解說)>

미국(美國)의 로봇 위성(衛星)

지난 8월 13일 미항공우주국은 연내에 인간위성의 발사를 실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탄도테스트는 그리 솜 대위의 실험으로 종결짓고 급속한 시일 내에 케도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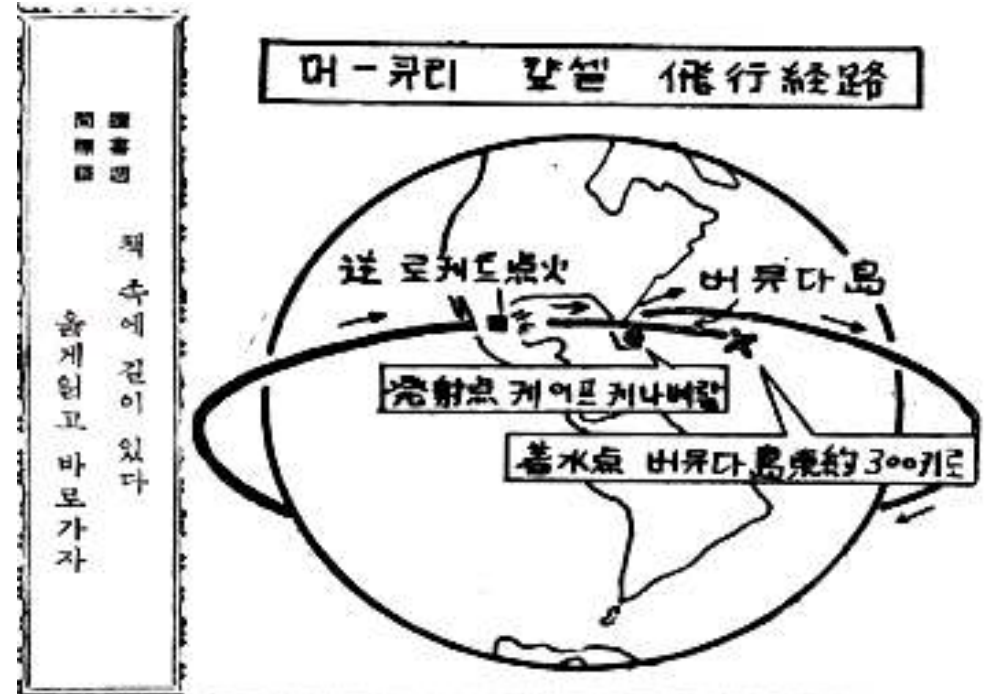
이 첫 인간위성 케도테스트로서 실시한 것이 지난 9월 13일 케이프 케나베탈에서 발사한 머큐리 2톤 캡슐이다. 이 실험은 보기 좋게 성공하여 지구를 일주하고 캡슐은 회수예정 지점인 버뮤다도(島) 동방 약 300키로 해상에서 회수되었다. 미국은 지난 4월 25일에 이와 같은 실험발사를 했으나 로켓의 코스가 예정을 빗나가 폭발하여 실패했었는데 9월 13일의 실험성공은 머큐리(인간이 탑승한 위성)의 연내발사의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다. 이 머큐리 아틀라스 D는 다음과 같은 점을 테스트했다고 한다.

- ① 용기를 케도에 올린 다음 지구상의 예정지점에 자동적으로 강화시켜 회수한다는 점
- ② 머큐리계획의 추적, 정보 데이터 수집, 비행 제어망 테스트
- ③ 케도에 오른 용기의 수천에 달하는 장치의 실험
- ④ 대기권 재돌입에 의한 고열과 중력의 8배에 달하는 인력에 대하여 용기가 어느 정도 견디어 나가는가를 알아보는 점

미항공우주국이 아틀라스에 의해서 캡슐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이었다. 이래 4회실험에서 2회는 실패하였고 2회는 성공하였는데 전번의 고도 173키로에 비해서 이번은 240키로의 고도까지 올라갔다. 소련은 작년 5월에 위성선(衛星船)제1호를 발사하고 가가린을 생환시킬 때까지 11개월이 걸렸는데 미국이 만1년내에 위성선을 성공한다면 소련보다 최소한 3개월은 빠른 셈이 된다.

그런데 9월 13일에 행한 머큐리 실험을 로봇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캡슐 속에는 길이 1미터—폭60리(釐) 높이30리(釐)의 로봇이 장치되어 전기기계로서 산소를 호흡하고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온도를 보유하며 우주인이 탑승했을 경우와 동일한 작업이 모두 실험되게끔 되어 있다.

이 로봇위성은 발사 20분에 케도에 올랐다. 그리고 아틀라스 로켓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고도 160키로의 지점이었으며 로봇위성은 2대의 카메라, 2대의 테이프 레코드를 가지고 시속 2만7천8백40키로 날았다.



나는 이렇게 실천(實踐)했다

설문

귀하(貴下)는 혁명과업(革命課業) 완수(完遂)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였습니까?

- 문(問) 1, 반공을 위한 나의 실천 제1항은?
- 문(問) 2, 인내(忍耐)생활로 첫째 실천한 것은?
- 문(問) 3, 국민으로서 국민도의진작(國民道義振作)에 특히 유의하고 실천한 것은?
- 문(問) 4, 사회기풍(氣風) 진작을 위해서 가족에게 제일 먼저 권장한 것은?
- 문(問) 5, 나는 가계를 이렇게 뜯어 고쳤다.

(각항 100자 이내로써 주실 것)

탁영호 소령(10전비(戰飛) 103대대(大隊))



1. 나는 이 기회를 통하여 특히 방첩(防諜)을 실천의 제일로 삼았습니다. 아마 이걸 반공과 방첩임무를 담당할 제 직책의 탓이겠지요.
2. 내핍생활의 첫 실천은 담배부터였습니다. 양(洋)담배만 피던 나로서는 의외라 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진달래를 애용하지요.
3. 우선 말씨부터 고쳤습니다. 저도 욕을 곧잘 했는데 요즘은 딱 점잖아졌으니까요.
4. 고쳐진 것이 많습디만 먼저 복장을 간소화했습니다.
5. 나는 술, 담배를 몹시 좋아했는데 그걸 딱 줄이니까 푼돈이 제법 남아 가계에 보탬이 되더군요, 그래서 매달 식구 수대로 천 환씩 우편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손용기 소령(공대(空大) SOC 교관)



1. 민주주의의 자랑인 관용과 타협정신 속에 공산주의의 간접침략이 침습해 오기 쉽다는 것을 특히 청소년에게 강조하고 있다.
2. 외래품에 도취되어 양담배를 피워야만 사람 구실을 하는 것같이 느껴오던 버릇을 과감히 탈피하고 백양(白羊) 담배를 남 앞에 내놓고서도 쑥스럽지 않아졌다.
3. 동민(洞民)과 함께 남원, 원주지구 수해민구호활동에 솔선하여 나섰다.
4. 두말 할 것 없이 국산품을 애용하다.
5. 가계의 지출을 계획적으로 질서있게 만들었다.

민병익(閔丙億) 소령(少領)(30경보(警報)전대(戰隊))



1. 혁명공약 제일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저로서는 군에 몸을 둔만큼 명령복종을 실천 제일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2. 혁명 전에는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하고 다방에 가던 것은 지금은 통 이런 것을 잊어버린 듯 음식점과 다방의 문전에 얼씬도 안하는 것은 물론 음식점과 다방 앞만 지나가도 무슨 죄를 진 듯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의 집사람이지요. 왜냐고요? 첫째로 이런데를 안 가고 집에 꼭 붙어 있으니까요. 둘째로 돈이 절약되고요. 결국 꿩 먹고 알 먹는 식이지요.
3. 남이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험잡아 꼬집어내지 않고 먼저 자기를 반성한 후 언행에 옮기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예의범절을 지키며 서로 도우며 신생활운동에 협조하고 있음.
4. 먼저 우리집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깨끗한 분위기에서 명량한 생활을 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왜냐고요? 원체 없는 살림에 환경마저 지저분하면 짜증만 더 나니까요.
5. 검소 검약한 생활을 하며 봉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생계를 세워 나의 신분에 맞지 않는 모든 허영과 사치를 일소하였습니다.

조일동 소령(기교단(技敎團) 통전교(通電校))



1. 기밀문서 캐비닛을 신주 위하듯 하라고 과원(課員)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일.
2. 극장은 조조할인만 이용하기로 했다.(단 휴일에 한함)
3. 비오는 날 지프차 운전병에게 흙탕물을 튀기지 말라고 호령.(왕년의 피해경험을 상기)
4. 혁명공약 암송.
5. 아침 출근버스를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김동원(金東遠) 대위(大尉)(공사(空士))

1. 공산주의의 직접적 피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주의의 침략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2. 때로는 1주일에 2,3회씩 즐겨 보던 영화를 1개월간에 1,2회 정도 밖에 안 갔습니다. 둘이서 영화를 가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이 지출이 많아짐으로 우선 이 점에서 인내하기로 하였습니다.
3. 좁은 길에서는 왼쪽 보행, 차도횡단은 반드시 건너가는 길로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철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눈에 닿는대로 학생의 불량한 복장, 보행태도를 주의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공연하게 왜음곡(倭音曲)을 틀고 있는 상점에 대해서는 호통을 쳐 주었습니다.
4.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차도횡단은 건너가는 길로 반드시 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기태도에 대하여 명백하고 솔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5.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뜯어고칠 것이라고는 없으나 건실한 가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박산찬 대위(항공본장)



1. 소극적인 반공일런지는 모르나 우선 철저한 방첩으로부터 실천했다. 일과시간 외에 일단 부대를 이탈하면 부대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나의 가족은 나의 소속조차 모르고 있으리라 믿는다.
2. 간소한 복장을 택하기로 했으며 허식에 치우친 오락방법은 삼가기로 했다.
3. 간혹 내무반원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다. '서로 보살피 전우를 아끼자고.'
4. 아침에 빗자루를 들면 이웃집 뜰앞까지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웃에 친절토록 권장했다.
5. 별로 고쳐야 할 점을 발견치 못했다.

이정우 대위(31전대(戰隊) 작전과(作戰課))



1. 반공에 조그만치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서 옹졸하고 소심한 나는 이미 애교가 능숙한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대에 관한 한 꽃 한 포기 이름도 알리지 않기로 했다.
2. 근일(近日) 백양담배보다는 진달래가 맛이 좋아졌다는 평이 향간에 떠돌아 진달래로서 통일을 기(期)하고 과식을 좋아한 내 양심에 반문하여 떳떳한 감정을 갖게 하는 동시에 거기서 절약되는 돈으로 체위(體位)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3. 노소에게 응분의 예절을 갖추기 위하여 매일 마음의 종아리에 채찍질을 한다.
4. 노인같은 고집과 애기같은 강짜를 통틀어 불살라 버리고 옳은 일이면 식모의 말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5. 가계의 60%를 차지하였던 체면 유지비, 허식비를 가족건강비로 전환시켰다.

유철중(劉哲鍾) 대위(大尉)(7항보단(七航保團) 통신부(通信部))

1. 종래에 부대 내 소식에 대해서 민간인이 기지(基地)장병들 보다 더욱 정통한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에 비추어 '반공은 방첩에서'라는 구호의 실천으로서 부대외에선 입을 무겁게 갖기로 했습니다.
2. 내핍생활의 현명한 실천은 생활의 합리화에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수입에 저울질하여 모든 무리를 제거하는 생활개선의 합리화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3. '나도 곧 30대인데...'하고 버티고 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마음과 동작을 습관화시키고 있습니다.
4. 창의성이 결핍된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뛰쳐나와 모든 면에 건전한 의문을 갖고 이의 개선에 노력하는 문제의식의 태도를 갖도록 극구권장하고 있습니다.
5. 현재의 수입으로 낭비가 있어서야 큰일이겠지만 돌발사(突發事)에 대비할 저축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적극 고물과 폐품을 이용하고 간식도 줄여 매달 잔금을 낼 수 있는 가계부를 꾸미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동 대위(7항보단(七航保團) 기상부(氣象部))

1. 가정에서나 부대에서 나의 임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서 빈틈없는 마음의 무장을 갖추어 간접침략을 막아낸다.
2. 담배의 진미도 모르면서 호기심에서 피워보던 담배의 양을 줄이고 매일 같이 양말세탁과 구두손질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서 그 수명을 연장시킨다.
3. 교통규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교통 도덕을 확립하는데 노력하며 이웃이 서로 협조하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서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4. 의식주 생활을 간소화 하도록하며 라디오나 신문 재건설 등 좋은 책을 통해서 현사회의 실정을 똑똑히 이해하여 혁명과업 완수에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5. 주부의 알뜰한 살림으로서(즉 내핍생활로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가정경제를 크게 좌우함을 인식하여 생활비를 의식주 필수품비, 교양오락비, 공공비, 잡비, 미래의 생활을 위한 예비비의 각 비목별(費目別)로 매달 예산편성을하여 계획성 있는 소비생활을 하며 일일 가계부를 정리하고 월말에는 반드시 검토하여 다음 달의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로 하고 있다.

박용직 대위(11전비(戰飛) 101대대(大隊))

1. 부여된 임무 중 가장 주요한 비행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전투능력을 향상하는데 보다 더 열중하고 진력함으로써 혁명공약의 제일인 반공 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핍 정신을 길러 왔습디만 특히 혁명 후에는 정부에서 시달된 바 혼식(混食)을 실천하고

있으며 휴식을 위한 시내 외출의 빈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3. (ㄱ)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때로는 일반 통행인에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ㄴ) 버스나 전차에서 노인이나 불구자에게 좌석을 양보하고 학생들이 무관심할 때 그들의 처지를 부드러운 말씨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4. (ㄱ) 외국산 화장품을 사들이지 말 것.

(ㄴ) 검소하면서도 단정한 복장을 할 것.

5.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가계부를 재검토하여 낭비부분을 제거하고 계획된 생활 수준에 부합될 예산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저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희중(金熙中) 중위(中尉) (기교단(技敎團) 항병교(航兵校))

일(一). 1. 정신무장 강화 2. 정신무장 강화 3. 정신무장 강화

이(二). 1. 낭비 일소(一掃) 2. 국산품 애용

삼(三). 1. 새로운 도덕관을 확립

사(四). 1.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고 2. 아이들을 아이들로 대접할 것을 강조.

오(五). B, O, Q 전선엔 이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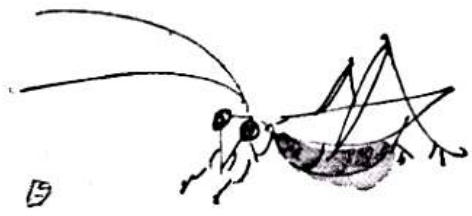
유태영 일병 (30경보전대(警報戰隊))

1 국민 각자가 마음의



속담춘추(俗談春秋)

고객자(孤客子)



격언이나 명언을 위인들이 남긴 <범의 가족>이라면 속담은 서민층의 생활에서 생겨난 <소박한 재담>일지도 모른다. 격언은 사색적이지만은 속담은 직감적이다.

격언은 윤리적이지만은 속담은 주저없는 표현자다.

속담은 알밋다. 종물(腫物)을 바늘로 꼭꼭 찌르는것처럼 아프다기보다 차라리 따갑다. 인간성의 일면과 인생의 어느 각도를 찌르는 것이 마치 알미운 점쟁이 노과와도 같다.

금언이니 천언(天言)이니 하는 위인들의 격언은 그것을 만

들어낸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속담은 서민들이 발견한 작자 없는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속담에서 인간성을 발견하고 인생을 배운다.

속담은 우리를 곤잘 꼬집는다. 그러나. 아프라고 꼬집은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격언은 인간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속담은 민족, 사회, 국민에 따라서 고유하고 제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역사, 그 풍토, 그 생활이 바탕된 자연발생적인 하나의 지역사회적 서민층의 <소박한 생활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한국사람들이 곤잘 입에 담은 속담과 격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보기로 하자.

1. 남의 밥의 콩은 굵어 보인다.

사실은 크기가 똑같은 콩이지만은—가령 남의 밥의 콩이 내 밥의 콩보다 굵다고 하더라도 말썽은 그 굵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굵어 보인다'에 있는 상 싶다. 같은 크기의 콩이 왜 굵어 보인단 말인가? 이 시각은 아무래도 건전치 못하다. 이 시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밥그릇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남의 밥그릇을 탐내는 심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겠는가? 먼저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할 일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의 정당한 행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생각하기 전에 남의 권리 또는 권한에 속하는 일에 용탁(容喞)하려 드는가하면 남이 이행하려는 의무의 신성함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자가 있다. 자기 밥그릇은 팽개치고 남의 밥의 콩을 넘어다보는 부질없는 자라 할까. '홍부와 놀부'얘기는 권선징악을 말하는 우리 민족의 고담(古談)이지만은 남의 밥의 콩이 굵어보이는 시각은 분명히 놀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시각이란 인간이 가진

오각 중의 하나로서 마음가짐에 따라 그 작용도 달라지는 것 같다. 곱다고 생각해보면 곱게 보이고 밋다고 생각해보면 밋게 보인다. 약해 보였던 자가 의외에도 강한 자였고 무식하다고 본 자가 뜻밖에 유식한 자였다는 예는 우리가 흔히 경험한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거울>일지 모른다. 관상가들이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가려내는 유연(由緣)이 여기

반공을 갖자. 즉 그것은 공산도배(共產徒輩)들의 악극(惡劇)한 선전술을 무찌르는 유일한 무기이다. 고로 틈만 있으면 그들의 악행을 모르는 미성년들에게 반공사상을 주입시켰다.

2. 의식문제다. 전에는 유행따라 옷을 맞추어 입으려 하였고 돈만 조금 있으면 양담배, 누구를 만날 때는 다 방……그러나 이제 담배는 화랑으로, 약속은 X X 백화점 앞으로 하고 있다.

3. 전 같으면 노인이 차에 올라도 창밖이나 내다보고 시침을 뚝 따던 내가 지금은 용수철이 무색할 지경으로 잘 일어난다. 사양하는 척하면서 앉으시는 할머니 주름살 속에 내 마음이 마냥 호뭇해 진다.

4. 우리는 좀 많이 알아야 하겠다. 트럼프를 하며 저녁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독서를 하는 편이 더욱 좋으리라. 개구쟁이 조카놈에게는 만화 '꺼꾸리 장다리군'을 사다 주었다. 나는 사상계를 사고.

5. 석달 째 외상이 하나도 없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봉급날이면 전액을 몽땅 주머니에 넣으니 마음이 부자 같다.

최덕연 문관 (항공본창)

1. 직무수행 중(비밀문서 타자시) 인지한 군기밀 누설 방지.

2. (ㄱ) 검소한 복장 (ㄴ) 국산품 애용



에 있다고 할까……. 내 밥의 콩이 남의 밥의 콩보다 굵어 보이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남에게 주어진 그것보다 중대하다고 보는 눈을 길러야겠다. 민주주의는 남의 밥의 콩이 굵다던가 작다던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밥의 콩을 내가 찾아 먹는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2. 제 밥 그릇 제가 못 찾아 먹는다

라는 것이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 못하는 못난 사람을 비유한 속담이다.

제 밥그릇을 제쳐 놓고 남의 밥그릇을 넘어다보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 권리의 정당한 행사는 뒤바뀌보면 하나의 의무의 이행이기도 하다.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동일하게 나쁜 일이다. 남의 권한에 용탁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라면 권리를 포기하는 자도 이에 못지 않는다.

사회질서는 사람 개개인이 자기밥그릇을 자기가 꼭꼭 찾아 먹음으로서 올바르게 유지된다. 자기 밥그릇을 못 찾아 먹는 사람은 자기가 굶는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파괴하는 책임까지 져야 한다.

우리는 흔히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자기밥그릇을 자기가 못 찾아 먹는 사람을 본다. 그로 인한 피해를 상사나 부하, 또는 동료가 입는 예가 허다한다. 그 피해는 남의 밥의 콩을 노리는 놀부—다시 말하면 남의 권한 분야에 용탁함으로써 야기되는 피해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남의 밥의 콩을 굵게만 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 밥그릇을 제가 못 찾아먹는 사람은 우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된 자격이 없다. 질서가 문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다면 이 책임은 양자가 동일하게 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작자일수록 이러니저러니 변명이 많은 법이다.

3. 입으로는 태백산(太白山), 손에는 투전장

이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자를 두고 한 말일지도 모른다. 입만 살고 실천력이 없다는 뜻이다. 말로서는 태백산이라도 떼어올 수 있을 듯이 지껄이면서도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자를 가리킨 속담이다. 원래 곤잘 장담하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니까 자연 말썽을 일으키기 쉽고 실언(失言) 식언(食言) 실수(失手)가 많아서 '실없는 자'라는 평을 받게 된다.

자유당 시대 때 이런 표어가 거리에 나붙었다. '말없는 자여 네 이름이 애국자다' 모두가 이 표어에 찬동하면서도 사실은 말없는 자를 알아주려고 드는 사람도 없었고 위정자나 일반사회가 그것을 강조하여 실천할 것을 권장하려는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문자를 빌린다면 백언이 불여일견(不如一踐)이다. 자기가 먼저 약속을 해 놓고 자기 스스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흔히 있는데 이런 자는 태백산은 고사하고 제밥그릇을 남이 찾아서 가져다 대령해야만 먹는 불성실한 자다.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자이다. '꼭 들어맞는 용어는 꼭 하나 뿐이다'라고 앙드레 지드가 말하였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해야 할 말보다 하지 않아도 좋은 말—필요 이외의 말이 몇 갑절 많다. 익살꾼으로 유명한 버나드 쇼—는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필요한 잔소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아무튼 말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실언도 많고 식언도 많지만은 이런 사람 가운데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식언도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다.

누가 말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거짓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 뿐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거짓말이 필요하며 이같은 거짓말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 위인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참말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되는 경우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는 때때로 있다. 속임으로서 내가 득을 보는 경과가 아니고 속히 우는 상대방이 이 유익할 경우에 이 거짓말은 사회도덕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4. 거짓말도 하나의 방편(方便)

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속담이라기보다 격언에 가까운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사람들 사회에서 쓰는 말로 기억되지만은 우리

- (ㄷ) 도시락 지참에 제1인자가 되었다.
- (ㄹ) 애인과의 데이트 장소를 다방에서 들과 산으로 변경(차값 절약)
- 3. (ㄱ) 버스 및 공공장소에서 경노사상 발휘
 - (ㄴ) 교통법규 이행(실은 임시가설 구류장(拘留場)이 겁이 나서 이지만)
- 4. 계를 없애도록 권장했다.
- 5. 재건체조를 전가족이 아침마다...

이순자 문관 (31전대 인사과(人事課))



- 1. 글썩요. 실천이라면 좀 뭐하지만 그저 항상 마음다져먹는 일이 있죠. 군대인 만큼 비밀문서가 종종 제손을 거쳐갈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되새기죠. 비밀누설은 즉 용공(容共) 정신이라고.
- 2. 가능한 일을 전연 생각조차 안했다는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배가 쿡쿡 찌르느니, 보리알만 입안에서 뱅뱅 도느니 해가며 노동자나 농사꾼이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보리밥을 이젠 오히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신을 펴 다행이라 생각하죠.
- 3. 차 탈 때의 일입니다. 그야말로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속에 끼여 차례 오기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먼저 태울 수 있는 아량을 길렀습니다.
- 4. '가시오'서시오'라는 신호는 전기가 남아 돌아가서 해 놓은 것

나라에서는

5. 남자의 거짓말과 여름철의 우산(雨傘)은 언제나 가지고 다닐 것

이라하여 거짓말의 적당한 필요성이 용인되어 있는상 싶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말 홍수가 일어나서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있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출세하고 거짓말 잘 하는 작자가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곤 하여 마침내는 견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던 것은 우리가 뼈저리게 체험한 바가니와 이와같은 일체의 퇴폐를 일소하고 위기에 놓은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5·16혁명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새삼스러이 상기시키기도 한다.

여름철의 날씨는 확실히 변덕이 많다. 살을 찌는 듯 햇볕이 쪼이는가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일췌이다. 언제 비가 내릴지 알 수 없으니 우산준비가 필요하듯이 남자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치 여름철의 우산처럼 거짓말이 언제나라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속담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 거짓말은 꼭히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쓰라는 것이지 혁명전의 그 어느때처럼 밥 먹듯이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속담을 남자는 거짓말을 함부로 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이는 사람이 있다. 이 속담의 진의를 잘못 해득(解得)한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마치 스탕달이 말한 <연애할 상대가 없거든 식모라도 데리고 하라>는 것을 연애의 상대는 아무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곡해하는 것과도 같다. 이성을 사랑하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에서 구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참다운 연애를 하면 누구나 마음이 아플다워지고 명랑해지며 또 용기를 가지게 된다. 스탕달은 이 아픔과 명랑한 심전(心田)과 용기가 사람의 생활을 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연애할 것을 권장한 것이지 연애를 위한 연애를 주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스탕달은 <연애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 이말은 연애를 하나의 유희처럼 생각하는 요즘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은 경고인상 싶다. 연애를 유희게 한다는 것은 정말 스탕달의 말처럼 어려운 사업과도 같다. 연애가 여러 가지 비극을 자아내는 예가 많다는 것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까. 그래서

6. 연애(戀愛)는 잘 드는 면도(面刀)칼과 같다.

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연애는 달콤한 포도주와 같다>는 말도 있다. 잘 드는 면도날은 잘못 쓰면 다 치기가 쉽고 달콤한 포도주는 과음하기가 쉽다. 연애가 빚어내는 비극들은 모두가 그 잘 드는 날에 다치거나 그 달콤한 감미(甘味)를 과음한 것이다. 출발시부터 건전치 못한 연애의 결과라고나 할까? 공자도 중용지도(中庸之道)를 덕의 지고(至高)라 했거니와 달다고 해서 과식하면 병이 되는가보다. 그래서

7. 술도 적량(適量)은 약(藥)이 된다

는 말이 생겨났다. 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과음하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다. 인삼 녹용도 과식하면 약이 병으로 전신(轉身)한다. 우리의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도 이 적량이 요령이다. 무질서한 생활, 사회의 혼란은 이 적량의 균형이 깨뜨려진 암, 발란스라 할까. 약(藥) 애기가 나오니

8. 약(藥)은 쓰다

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옛날의 약은 모두가 쓰기만 했다는 것이야 아니겠지만 오늘날에도 약은 쓴 종류가 많은 것을 볼 때 쓴 맛은 약의 속성(屬性)인가보다. 물론 맛은 쓰나 그것이 몸에 이롭다는 비유이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쓴 말을 <고언(苦言)>이라고 하고 <약이 되는 말은 쓰다>는 속담도 있다. 또 우리 유행가에도 인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쓰면 뵈고 달면 삼킨다>라는 속담도 이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모두가 인간의 상정(常情)이다. 그러나 쓴 것을 먹어야 할 경우가 있고 단 것이라도 뱉어야 할 경우가 많은 것이 인간이다.

생각하면 아무도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달갑게 여기지 않는 고언을 즐겨서 하는 사람은 드문 일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그러한 사람에게 마음으로 감사해야하겠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위인이 드물다. 이것도 인간의 상정인지.....

이 아니니 제발 교통신호를 무시말라는 것, 교통순경이 있나없나 살피고는 아무데나 횡단하는 압제가 되지 말라고 동생들에게 제삼 부탁.

5. 월 3회 정도 가던 극장을 1회로 줄이고, 조금 편하다 하여 타고 다니던 합승을 전차나 버스로 바꾸기로 했죠. 말하자면 필요이상의 잡비를 낭비않도록.

오계자(吳桂子) 문관(文官) (제11전투비행단)



1. 솔직하게 답한다면 옛날에는 반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무관심했다고 할까요...? 그러나 혁명 이후 많이 알게 되었어요. 4·19 이후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특히 학생들이 관문점으로 간다고 외치던 일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 문제들을 좀 더 알아보겠어요. 군대에서 방첩이니 기밀이니 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2. 단순한 저의 생활이라 큰 변화라고는 있을 수 없겠지만 우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 또 경제적이며 건설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플랜을 세우고 있어요(지면이 허락지 않아 공개 않겠습니다.) 혹시 지나친 계획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 모르겠으나 명랑한 생활을 위해서 또 직장을 가진 여성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또 한가지 늘어 놓는다면 저는 간편한

<진정한 벗(친우(親友))은 제2의 자기다>라고 말한 셰익스피어가 고언을 친우와 결부시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친우란 고언해 주기를 아끼지 않으며 그 고언을 진심으로 고맙게 여겨 받아들이는 사이다>라고—. 우리 속담의

9. 진정(眞正)한 친구는 앞들 눈 멀어지기와 바꾸지 않는다.

라는 말과 상통되는상 싶다. <인도를 잃어 버려도 셰익스피어를 잃을 수는 없다>고 하여 셰익스피어를 무척 아끼는 영국의 명인은 좀 거창스럽지만 참된 벗이라면 문전옥답(門前沃菑)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 속담은 사람의 심금을 찌르는 맛이 있다. 정말 참된 벗은 <제2의 자기>요 문전옥답이 아니라 생명과도 바꾸고 싶지가 않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도 있거니와 이쯤 되어야 이른바 친구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벗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운 것이 있다면 이런 벗을 가진 사람인가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친구에 관해서 곧잘 이런 말을 한다.그 친구, 평소에는 한 번도 찾지 않으면서 자기가 필요하거나 급할 때는 갑자기 찾아와서 야단법석을 지킨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친구에 대해 욕까지 한다. 이같은 불평은 과연 옳을까? 생각하면 잘못일지도 모른다.

참된 벗이기에 평소에 찾을 필요는 없다. 진정한 친구이기에 필요할 때 그리고 급할 때 거리낌없이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벗이오 진정한 벗이기에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친구여 평소에 내가 그대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원망말지어다... 누구나 일이 생기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평소에 찾지 않는 것은 무사히 잘 있다는 소식이다.

10. 무소식(無消息)이 희소식(喜消息)

이다. <무언(無言)이 보다 더 강력한 발언>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한 앙드레 지드의 말처럼 이런 경우의 무소식은 하나의 소식인 것이다.

분수(分數)없는 용진(勇進)

중국 진(晉)나라 때(265-317) 용장(勇將)으로 후일 평서(平西)장군의 칭호를 받은 주처(周處)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한 개구쟁이였다. 완력이 세어서 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썽을 일으켜서 향리 사람들에겐 돌림방이 되었다.

어느때 동리 노인을 보고

“올해는 드물게 보는 풍작이라고 하는데 왜 모두들 우울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요.”

하고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늙은이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그도 그럴 것이 이 고장에는 세 가지 좋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네.”

“대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남산의 호랑이, 장교(長橋) 아래 있는 지네, 그리고.....”

“그리고.....?”

“말하기 거북하지만 자넨세”

“중소 그렇다면 그것을 모조리 없애 버리리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먼저 호랑이를 사살하고 지네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꼭 1년 동안 근신을 하며 오직 학문에 열중하였다.

그리하여 얼마후에 벼슬에 올라 어사중승(御史中丞)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의 비위(非違)를 가려내는 벼슬아치가 되었는데 그는 닥치는대로 상대방의 부정을 가차없이 적발하였기 때문에 모든 관리들로부터 많은 눈총을 받았다.

때마침 서남지방의 변족(邊族)이 모반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에 그를 미워하던 자들이 변족의 정벌을 그에게 맡겨 혼을 내주려고 일을 꾸렸다. 그때 복파장군(伏波將軍)이라는 칭호를 가진 손수(孫秀)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음모를 간파하고

“너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이것을 사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고 말렸으나 지기 싫어하는 성미의 그는 “그런 일에 구애받기는 싫다”하고 우겨 용기충천하게 출진(出陣)하였다. 그러나 생각하기 보다는 강적이어서 전투는 시종 불리하였다. 그리하여 일단 퇴각함이 좋겠다고 권고하는 부하도 있었으나 그는 일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장례문(葬禮門)에서 나온 사람이다. 죽는 것을 겁을 낼 내가 아니다”하고 기고만장(氣高萬丈)하게 앞으로 나가다가 드디어 전사하고 말았다. 그대로 반대파들의 음모에 걸려든 바 된 것이다.

× ×



작업복을 입기로 했어요. 딱 편리해요.
 3. 평소부터 항상 조심하는 일이라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4. 하나 하나의 가정이 명랑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좋은 기풍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짜증을 부리지 않고 가족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거예요.
 5. 가난한 생활이라 뜯어고칠 여지가 없군요. 하지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현재의 환경과 조건으로서는 저축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수입으로서 가능한 제일 좋은 메뉴를 매달 짜보지요. 하지만 아직 서툴러서 탁상공론인 때가 많아요.

정준자 문관 (10전비(十戰飛))



1. 명확하게 꼬집어내서 이거다하고 내놓을 순 없어요. 하지만 적은일이거나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요.
2. 우선 의복부터 간소화했어요. 다음엔 좀더 활동적이며 실용적인 신발을 신겠어요.
3. 예의관념이 희박하다는게 선조들에게 미안스러울 지경이에요. 우선 어른을 공경하려고 마음 먹었지요.
4. 우선 부드러운 말씨와 단정한 걸음걸이가 좋다고 했어요.
5. 가계라고 할 순 없지만 전 조금이라도 낭비라고 생각되는건 하지않기로 했어요.

문전옥답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혁명 전 우리 사회풍조가 극도로 퇴폐하여 이러한 친구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은 슬픈 일이었다. 친구를 헌신짝처럼 짓밟기를 일삼았었다. 친구를 중상모함(中傷謫陷)하여 자기출세에 이용하는가 하면 친구를 팔아서 점심 한끼니를 얻는 족속이 있다고 했다. 생각하면 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국민정의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는 먼저 봉우의 도가 진작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의 구악 가운데에는 이미 그것이 하나의 버릇으로 되어버린 것이 없지 않으니 이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이 다른 어떤 생활혁명이다. 버릇이란 한번들면 고치기가 딱 힘든 것 같다. 그래서

11. 세 살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

는 속담이 있거니와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비상한 각오와 수단—혁명적이지 아니고는 어렵다. 며칠전 라디오의 '마음의 샵터'에서 버릇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한가지의 나쁜 버릇을 고치면 열가지의 나쁜 버릇이 따라서 고쳐지고 한가지의 좋은 버릇을 기르면 열가지의 좋은 버릇이 따라서 길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전연 버릇을 안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껍이나 무미건조한 인간일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가 가려야할 것은 좋은 버릇과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이고 그 버릇의 영향이 자기 일신에 국한되는 것과 타인에게 미치는 것이 있으며 좋은 버릇은 좋은 영향을 주는 반면에 나쁜 버릇은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개인의 나쁜 버릇은 인간혁명이나 생활혁명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 사회적 악습은 정치적 사회적 혁명으로만이 가능한 것 같다. 4·19혁명은 역시 정변이었고 5·16혁명이 진짜 혁명이었다는 것은 혁명 후의 줄기찬 서정(庶政)의 개혁이 입증하고 있다.

세계각국 각민족 각인종의 고유버릇을 소개할 지면은 없으나 혁명 후 우리사회의 고질이었던 구악이 하나하나 삼제(戡除)되어 가는 현상은 이나라의 앞길에 새 희망을 비취주는 것으로 적이 반가운 일이다. 사실 5·16 이전까지는 나쁜 버릇만이 늘어만가서 걱정이었다. 술 버릇 나쁘기로는 한국사람이 세계에서 제1위이지만 요즘은 명동의 받거리를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것만도 혁명의 성과랄 수 있다. 그런데 술 버릇쯤 그래도 참을 수 있다. 이조(李朝)의 4색당파의 버릇은 그 꼬리를 해방후에까지 버리지 못한 나머지 민주정치의 원리인 여야의 협동정신을 고사하고 것처럼 물고 뜯기만 일삼다가 4·19후의 민주당정치는 파쟁(派爭)의 절정에 이르러 5·16혁명이 아니었던들 나라를 망칠뻔했으니 정말 이따위 버릇은 개에도 소에도 물려주어서는 안 될 버릇이다. 파쟁, 파벌, 종파의식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협동정신의 적이요 이 협동정신의 발휘를 강력히 요구하는 혁명과업의 수행과정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단호히 절단수술을 감행할 일이다.

물론 모당(某黨) 모당 할때도 정치적 사회적 악(惡)버릇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었다. 연중행사처럼 1년에 한번씩은 경고도 하고 높은 자리에 새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예(例)에 빠지지 않고 관기숙정(官紀肅正)을 소리높이 외치는 버릇을 잊지 않았었다. 3·15 선거때는 전(全)국무위원이 서명한 경고문이 엄중처단이라는 부가(傅家)의 보도(寶刀)로서 신문지의 하단에 대문짝같이 실리기도 했다. 그런데 어째서 조금도 효과가 없었을까?

12. 뚫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는 속담의 진리를 몰랐던 것일까? 아니 세 살난 어린이도 알고 있는 이 속담을 모를리 없었다. 술선수범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실천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경고는 마치 허 짧은 접장의 바람풍자(風字) 발음과 같았기 때문이다.

옛날 어느 서당에 허가 짧은 한문선생이 있었다. 그는 허가 짧아서 바람 풍자의 발음을 바람 뽕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다. 서생들은 선생님의 발음에 따라서 바람뽕으로만 읽는다. 접장은 바람 뽕이 아니고 바람 풍이라고 화를 내면서 시정하기는 하나 '뽕'이 아니고 '뽕'이다. 자신들은 온갖 부정과 협잡(狹雜)을 일삼으면서 부하직원들에게도 관기숙정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람 풍이 바람 뽕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5·16혁명은 뚫물부터 깨끗이 맑아졌다. 이 속담의 진리는 5·16혁명에서 그 실증을 얻어 아랫물의 맑아짐이 하루하루 눈에 띄게 되었다.

서전편(瑞典篇)

김기점(金基漸)

서전은 약 45만평방키로의 면적으로 영국본토의 약 2배인 국토를 가진 부유하고도 이상적인 나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 나라의 넓이와 형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흡사하며 한국인구의 약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근 700만 가량의 인구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밀도가 아주 얇은 나라라 하겠다.

그리고 문맹자란 불과 인구의 1 내지 2%밖에 안 되는 문명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서전에서는 신문독자가 많으며 백명당 50부리는 신문구독율은 미국과 영국의 중간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나라에는 약 160을 헤아리는 신문과 총 발행부수 약 350만 부의 일간지가 스톡홀름과 에데포리의 양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약 50개 도시에서 발행되고 있다.

서전에서 최초로 발행한 신문은 독일어로 된 신문이었으며 이것은 17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30년 전쟁 시 독일 영토내에 점령군을 지휘하며 주둔하고 있었던 서전왕 구스타후 2세인 아돌프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발간한 신문이었다.

그리고 서전어로서의 최초의 신문은 1645년에 창간된 올디너리 포스트 티덴더(Ordinari Post Tidender)이며 이 신문은 1831년에 포스트오크 인리케스 티닝가(Post-och Inrikes Tiningar)로 개제하여 오늘날까지 발간되어 오고 있다.

현재에 있어서는 광고를 주로 취급하고 있어 그 수입의 대부분은 노벨문학상의 시상으로 유명한 서전 아카데미에 기부되고 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도 23개의 독립지가 활기를 띄고 있었으나 근대 서전의 여명기라고 볼 수 있는 1830년 때는 마침 프랑스에 있어서는 7월혁명이 일어난 해, 여기에 자극되어 혁명적 사상을 가진 젊은 관리인 자르스 요한 히엘터 씨가 '아후트브과델'지를 창간하였으며 이 신문은 뉴스와 더불어 명확하고도 예민한 논조로 그의 의견을 독자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당시의 귀족정치에 반대하여 일반 민중을 민주적이며 인도주의적 개혁으로 인도할 것을 목적하였던 것이다.

이 신문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정치적 관심으로서 당시 서전국내에서는 많은 신문이 발간되었던 것이나 금일에 이르기까지 연속되고 있는 신문은 불과 몇 개 지(紙)에 그치고 있다.

물론 신문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 걸쳐 사회의 공기로써 각 각도로 다루어지는 것이지만 정치문제를 자유로이 다루기 위해서는 신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만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하게 마련이며 또한 마련되어야 하겠다.

서전같이 보도의 자유가 법률로써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도 아마 별로 없으리라고 믿는다.

서전의 헌법은 출판에 대한 사전 간섭을 금하고 있는 동시에 공문서의 무제한의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제86조) 서전 최초의 신문법이 채택된 것은 1766년이며 이 법은 신문의 자유보장의 대의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기에 걸쳐 일시적이거나 절대 군주정치의 강압을 받았으나 1810년과 1812년에는 신문의 자유에 관한 법령으로서 새로운 법률의 법칙이 확립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중은 다른 민주주의국가와 같이 국제정보기관이 설립되어 이것이 신문 측에 대한 설득과 국민의 선전역할을 하였던 것이나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한 중립정책을 지키기 위해 신문발행사의 연합단체와 협조하여 만나치 경향의 신문논조의 완화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정부는 서전에서 세론의 자기통제력 결여는 정부의 중립정책에 마땅하지 않다하여 언론의 자유에 직접 간섭하여 그 결과 3백 이상에

달하는 발매금지 처분까지 하게 이르러 비단 신문뿐만 아니라 만나지 색채가 강한 몇 개의 출판물 우송 및 철도수송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시 중의 육된 경험을 살려 새로이 1949년에 신문법(Press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은 2회기에 걸친 국회의 찬성없이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신문의 편집내용에 대한 책임은 서명기사에 이르기까지 발행책임자—편집국장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히 되어 있으며 경찰이나 법정에서 뉴스의 소스를 밝히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반역죄나 명예훼손죄는 예외로 되어있다.

법률로써 신문자의 자유를 고도로 보장받고 있는 서전의 신문인은 신문인으로서 직업의 존엄유지와 그 의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서전의 일간 신문사에서는 도처의 게시관에 퍼블리스트클럽(Publicistklubben)의 윤리강령을 붙여 놓고 있으며 이것은 즉 신문인의 동업단체의 수칙같은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신문윤리위원회같은 신문언론인 단체의 신문윤리강령같은 것이라 하겠다.

이 강령은 기사작성에 있어 신문인이 유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신문지상으로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프레센스 오피니언네임드(Pressen's Opinionsnämnd)라는 영국의 신문평론회와 흡사한 조직이 있어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평론회 구성은 전기한 프리리스트, 크르벤과 서전 신문발행자협회 그리고 신문기자연맹에서 각각

설문

<양케이트>

최근에 읽은 감명깊은 책

1. 책이름
2. 저자
3. 대략내용(100자이내)
4. 독후감(백자이내)

민병익 소령(30경보전대)

1. 완전한 결혼(Living in Balance)
2. 프랑크 S 카프리오
3. 현대 생활의 압력과 긴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신경증과 정신적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일반의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오늘날 정신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경증의 환자가 일천억이나 된다는 사실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여기 한가지 우리에게 기운을 내게하는 바는 신경증인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요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병은 본래 대개가 자기 자신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본위의 이기주의 때문에 참을 수 없게 된 장애에 대하여 자기를 방위하려는 반응에서 일어난 것이다. 신경증인 사람은 기분이 산란하고 어리둥절하여 계몽이 필요하다.

4. 이 책의 목적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신경 쇠약을 방지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 좋은 생각을 가짐으로서 보다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다. 알기 쉬운 말로 우리의 감정을 모순의 근본 원인을 밝혀 준다(즉 공포, 편견, 미움의 심리와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 같은). 짧게 말하면 이 책은 생활의 조화를 얻기 위한 처방전이며 완전한 결혼을 위한 칼테이다.

박산찬 대위(항공본장)

1. 반항적 인간
2. 알벨 까뮤
3.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야기된 반항 사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따라서 그 속에서 참다운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반항을 찾아낸다. 부조리와 자살을 관련 시켜 이것을 종교를 포함하는 정치, 경제, 또는 사회문제에까지 관련시키고 있으며 특히 주인과 노예 사이에 있어서 노예의 반항 상태를 위시하여 반항은 모든 인간에게 최초의 가치를 만들게 하는 공통적인 태도로 이끔으로써, 반항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재의식의 출발점을 이룬다.

4. 이 작품에 대해서 존평하기는, 특히 2백자 이내에서 존평하기에는 자신을 가질 수가 없다.

류철중(劉哲鍾) 대위(7항보단 통신부)

1. 독창력을 기르라(Applied Imagination)
2. Alex F.Osborn
3. 저자인 오스본 박사는

1명식으로 선정한 위원과 신문관계자 이외에서 선정된 1명의 중립의장으로 되어 있다.

신문지상으로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은 이 평론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평론회는 그 신문이 행한 행위와 윤리강령적부를 논할 뿐 또한 신문은 다만 평론회의 발표를 아무 비판과 해설없이 제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것으로서 신문의 자주(自主)규제에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것은 그랜캐프스 백크부라드라는 일간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서전의 신문잡지가 범한 과오(뉴스 취급에 있어)나 그 약점을 독특한 풍자적 표현으로 예리하게 지적하는 가운데 50년 간이나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전의 신문현상과 특질을 보건데 이나라 신문에서는 영국, 독일, 기타 유럽, 제국의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급지와 대중지라는 구별은 별로 볼 수 없으며 비교적 그 내용에 있어서 균질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뉴스보도, 정치상 의견의 소개 그리고 이와 아울러 대담한 주장 또한 어느 정도의 센세이슈나리즘도 잊지 않고 다루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생활시책이 서전만치 신문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지고 있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 나라에 있어서 신문은 국가통제를 그리 받지 않고 있지만 정당은 대소를 막론하고 그의 기관지를 갖고있다.

미국 Buffalo 대학의 이사이며 독창성개발교육재단의 창시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문제해결의 역사라고 말하고 문제해결 중 가장 어려운 단계인 아이디어 생산에 관해서 그의 연구를 개진하고 있다. 즉 아이디어란 독창적인 두뇌의 소산이며 독창성은 훈련에 의하여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례를 들은 Non Fiction Best Seller.

4. 혁명 후 인간개조의 긴요성이 각계에서 주창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지 못한듯한데 이 책에서는 독창성을 길러냄으로써 창조적인 의욕에 가득찬 새 인간상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열등감을 제거하고 자신을 얻을 때 사람은 능동적인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좀체로 얻을 수 없는 국민 필독의 양서이다.

곽진호 중위(31전대 비행대대)

1. 전략
2. 까뮤
3. 저명한 변호사 크라망스가 빠리의 세느 강변을 걸어갈 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돌아다 보면 아무도 없고 다시 걸으면 또 들려오고 겁에 질려 달려온 크라망스는 거울을 들여다 본다. 거울을 보고 이중으로 보이는 미소에서 또 하나의 의식을 발견한다. 자기를 비웃는 웃음으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명성과 행복에서 회의와 고독에 빠져 타락하고 만다. 2, 3년 전 투신자살을 목격하고도 구해주지 않았던 일을 회상하며 절망과 불안 속에서 헤매이지만 이 참회를 잊기 위하여 자살이나 자학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신을 의지할 수도 없는 인간성의 갈등을 그렸다.

4. 평한다가엔 너무나 어마어마하다. 다만 까뮤의 페스트, 이방인 등을 통해 제시된 부조리와 절망 이것을 역력히 묘사하여 분석했고 생의 부정 없이는 생의 긍정이 없다는 까뮤의 사상은 반항적 인간의 반항이나 행동에서 부정을 거쳐 비로소 생의 긍정이 된다고 했다. 자기의 실존을 현실에서 느낄진대 부조리의 자살을 막는 종교의 필요를 감전하기도 했다. 이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까뮤는 그의 사상을 더 심화시켰다. 확인하면 까뮤 특유의 부조리 사상에서 전진했다고 본다. 이상은 나 혼자만의 평이 아니다. 다만 남들의 평에 긍정을 했을 뿐이다.

이근무 소위(공대 학술연구부)

1. The Moon and Six Pence
2. S. Maugham
3. London에서 주식거래소 브로커로 지내던 Charles Strickland는 갑자기 자기직업과 아내 그리고 그를 세속에 붙잡아 놓던 모든 끈나풀을 끊고 Paris에서는 인정을 못받고 Tahiti로 간 그는 그만을 하느님같이 섬긴 Polynesia의 여인, Ata와 같이 살며 그림을 그리다 문둥병으로 죽었다. 그의 작품은 사후에야 인정을 받았다. 이 소설은 Maugham이 Paul Gauguin의 생애를 머리에 두고 쓴 것이라 한다.

4. 이 소설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이유는 작중의 인물 Strickland 때문이다. 그는 참으로 인정머리 없고 오만하며 배반의 명수이나 한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남의 비평을 조금도 개의하지 않는다. Mrs. Stroeve가 자살을 하면서까지 그의 애정을 구한 것은 그의 이러한 원시적인(사회생활의 패반(羈絆)을 벗어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간) 인간성 때문일 것이다.

강희준 병장(11전비 본부대대)

1.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2. 어네스트 헤밍웨이
3. 에스파냐 계통의 미국청년이 자진 내란에 참가하여 산중에서 게릴라전을 돌던 중 마리아라는 여성과

독서주간>

서전에는 정치적인 크라부도 없고 정치문제를 다루는 잡지도 눈에 띌 정도의 것은 없어 이 나라의 정론의 중심은 오로지 신문지상에서 다루고 있다 하여도 과장은 아닐상 싶다.

제2차 세계대전시는 신문용지난을 면치 못하였으나 금일에 있어서 용지가격은 다소 양등(昂騰)되었다고는 하겠지만 서전신문의 외관은 아무래도 용지생산국의 관록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여유있는 지면과 조판 그리고 사진도 역시 크게 다루고 있으며 신문 항수(頁數)는 일반적으로 스톡홀름지가 20·30항(頁), 지방지라도 12·16항 정도이며 구독료는 일간지 1부 당 연간 8불 내지 10불(미화환산), 한국돈으로는 연간 1만원 내지 1만 5천환이고보니 월구독료는 평균 천환 정도로서 우리나라 신문 구독료에 비해 그야말로 엽가인 것이다.

그리고 서전 신문기자의 일반적 기사작성의 경향은 용지난의 경험으로 영국기자가 전시전후에 걸쳐 배운 듯한 극단적인 압축된 기사작성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보도의 객관성을 존중하고 있고, 또한 문체수식 이 많으며 평범한 보도에도 무엇인가 액센트를 집어 넣어 주목을 자아내고저 하는 경향이 있다.

내용으로서는 뉴스, 논설, 운동, 부인과 가정면이 많이 있으며 스포츠 기사와 문화, 교양기사 등에 각별한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국제문제에 관한 보도, 특히 세계정세를 대국적 견지에서 다루는 솜씨는 어딘가 빈약한 편이 있다고 보겠다.

우연히 깊은 사랑에 함입(陷入)하게 된다. 최후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요새지에 있는 철교를 파괴하는 일인데, 그는 용감히 임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동지를 무사히 탈출시키고 마리아도 자기와 같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거절하고 조용히 기관총을 잡고 적을 향하여 불을 뿜는다.

4. 헤밍웨이의 특출한 작품 중에서도 단연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서술이 많아서 지루한 감을 주긴 하나 전반에 흐르는 리얼한 묘사는 지루한 감을 커버하고도 남는다. 대체로 문학적 향기가 드높게 풍기는 수작이다.

박대표 상병 (11전비 야전정비대대)

1. 춘희(椿姬)
2. 호이스 듀마(정비석(鄭飛石) 역)
3. 1840년 프랑스 파리의 사실을 엮은 것으로서 내용은 어느 타락한 여성을 귀족가문의 아들(아르망)이 동정하는 나머지 자기 일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반면에 이 여성(마르그리트) 역시 아르망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 과거 방탕 생활을 청산하고 아르망을 따라 좀 더 건전한 생활을 영위코저 하나 이 생활이 그대로 오래 지속된다면 아들의 명예 손상과 전도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부친이 강력히 반대한다. 아르망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르그리트는 자기가 희생할 것을 결심하고 방랑의 길을 걸으면서 아르망의 사랑의 재회도 거부하고 정신적으로 여행 중인 아르망을 찾으며 결국 눈물로서 병석에서 세상을 이별한 후 아르망이 그 무덤에서 참회하게 된다.

4. 호화로운 방탕생활을 청산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려는 의욕이나 한 남성의 명예와 전도를 위하여 갖은 모욕과 경멸을 참아가는 여자의 희생에 감격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유태영 일병 (31경보전대)

1. SAYONARA
2. James A. 미쉬너
3. 한국동란에 참전하여 수대의 MIG 적기를 격추시킨 미군 대위의 용감한 아들인 공군소령과 일본여성극단의 미모의 여인 하오나기와의 국경을 초월한 애절한 사랑의 기술이다.
4. 과거의 적국, 이방인과의 사랑에 몸부림 치면서도 때로는 일국의 국민으로서 긍지를 나타내는 점은 비단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성이 아니라도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

정준자 문관 (10전비 통신대대)

1. 주홍글씨
2. 나타나알, 호오손
3. 사생아를 안고 멸시하는 군중의 심판대에 오른 젊은 여인은 남편과의 애정을 잃어 혼자 살고 있는 처지였다. 그 아이는 시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젊은 목사와의 사이에 난 여아로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율법에 따라 가슴에 주홍글씨 A를 달고 암흑의 인생 속에서도 딸만을 고이 길러온 것이다. 이러한 여인의 인내와 거룩한 생활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목사는 심판대에 선 여인을 구하고 대신 죽음을 받는다.
4. 갈대처럼 여자를 약하게 취급한 작품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자기 일생의 원수랄 수 있는 목사와의 약속을 지키는 순수한 여인의 끈기 있는 참을성이 감명 깊었다. 모든 사람에겐 과오가 있을 수 있고 도 참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양심을 속이는 순간이 길수록 괴로움은 큰 것이다.

최덕연 문관 (항공본창 행정관실)

1. 대지
2. 펄벅
3. 착실한 중국의 농부 왕은 지주의 종을 쳐로 맞이한다. 부부는 합심해서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가뭄으로 사경에 처해 정든 땅을 버리고 남으로 떠난다. 거기에서 우연히 수많은 보물을 얻어 고향에 온다. 고향에서 대지주로서 행복한

이에 반하여 문화, 교양, 과학, 예술, 문학 등의 기사는 매일같이 대(大)신문에서 다루고 있으며 각각 그 분야에 있어 일류 인사의 집필로 되어 있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서전에서는 다른 나라와 유달리 전문잡지의 발행이 그리 많지 않은상 싶다.

이러한 편집내용으로 보아 간간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서전의 신문은 중요성의 빈약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비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이 나라의 정치적, 지리적 조건이 미치는바 그 영향이 크다고 보겠다.

서전은 약 1세기반이나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한 마찰과 충돌의 틈바구니에서 격절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또 국민은 1814년 이래 전쟁을 직접 경험한 바 없으므로 이 나라의 신문 역시도 시종일관하여 외국의 대신문같이 외국동향을 그리 염두에 둘 만한 것이 못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신문은 뉴욕, 런던, 파리, 로마 서독 기타에 자사에서 특파원을 보내고 있으며 이의 통신원 수는 도합 3,40명 정도이다.

이것은 서전의 20배나 되는 인구를 가진 미국의 신문사의 특파원수에 비하면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닌 것이다. 외전은 주로 서전 신문정보통신사를 통해 입수하고 있으며 이 통신사는 일간지의 공동경영으로 되어 있다. 서전에서 가장 유력한 국내 통신사는 1921년에 창립되었으며 그 주식은 일부신문의 독점적 지배를 피하기 위해 널리 안배되고 있어 일간지는 전부가 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텔레프린터로 배신(配信)을 받고 있다. 특히 서전의 신문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태반이 정당의 기관지라는 것이며 중립적 성격인 것은 참으로 적은 편인 것이다.

신문의 정치적 중요성과 발행부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 신문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겠지만 이 나라의 경우는 정당의 총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그 정당을 지지하는 신문의 발행부수를 비교하여 보면 이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서전의 신문경영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전의 신문사의 판매수입과 광고수입을 비교하여 본다면 광고수입이 비율에 있어 판매수입보다 다소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문인 경우에는 광고수입이 훨씬 많고 소신문에 있어서는 판매수입이 많다는 것이다.

2·3만부의 중견지방지에 있어서는 평균율은 대략 같은 정도이다. 그리고 광고요금이 엽가이기 때문에 서전의 신문에는 많은 광고란이 차지하고 있다.

즉, 대신문인 경우 광고가 전지의 3분의 2이며 중정도 신문인 경우는 3분의 1을 점하고 있으며 소신문에 있어서는 광고가 적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서전의 A.B.C.(AB Tidnings statistis)는 부수공사외에 광고매체로서 요구되는 독자분석조사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부수의 대부분은 예약구독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지방지에 비하여 도회지나 가두판매율이 높고 배달은 우편 또는 프랑스의 아세트 수송회사(신문잡지를 위한 특별수송 시스템)와 같은 신문사 공영의 배달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문판매인은 전면적으로 반품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가두판매를 비롯한 신문판매인의 판매잔여(盡餘)의 신문반품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그리고 서전의 신문의 기술적 수준은 일반적으로 높으며 현대화된 기계설비로 되어 있다. 대신문인 경우에는 유럽 각지의 대신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2만부 정도의 신문에서도 제1급의 칼라프레스, 텔레프린터, 텔레포토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끝으로 기술적 향상과 경쟁의 격화에 따라 신문의 집중화가 최근에 이르러 세계적 경향으로서 주목되어 오고 있는데 이나라에 있어서도 그 예를 들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대규모의 것은 아니고 성격상 다른 점도 있지만 서전의 자유당의 주요 기관지 다겐스 니헤터지(紙)(Dagens Nyheter·……·343,100부)는 이나라에 최대의 일간지일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최대의 신문으로서 이 신문의 다수주를 알베트 본니엘 출판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출판사는 알베트 본니엘 일가가 경영하는 서전 최대의 출판사이다.

이밖에 스톡홀름 터도닝겐(조간지)(Stockholms Tidningen·……·156,000부)과 아후튼부라델의 석간지(Aftonbladet·……·185,500부) 그리고 자유당유력지인 게테포리스 포스텐(Goteborgs-Posten·……·230,200부)이 있으며 10만주 이상의 독자를 가진 신문사는 서전에서는 10개사가 못된다.

그러나 이 10개사 이내에 들 수 있는 신문사가 바로 스펠스카, 다그부라데트(Svenska Dagbladet)이며 이사는 재정상 독립된 기금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10·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신문의 특질은 신문의 집중화에 따르는 신문의 최인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전의 복지사회의 국가적 시책은 역시 전술한 바 이 나라 신문언론에 힘 입은 바 많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상 싶으며 서전의 정당치고 그 정당특유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필자·공군중령·공본공보과장)

가정을 이루지만 부자가 된 왕은 절세미녀인 창녀에게 정신을 빼앗겨 농사일을 등한시 하다가 다시 본래의 농부로 돌아온다. 전쟁이 일어나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왕은 늙은 몸으로 어린 종의 몸을 통하여 젊음을 다시 찾아 보려고 한다.

4. 작자가 서양인이면서도 동양인의 생활주변에 것처럼 예리하게 파고드는데는 감탄하였다. 중국인의 대가족 제도에서 야기되는 비극을 그린 점이 특색이었다.

그랜드 캐년

세계최심(世界最深)의 대협곡(大峽谷)

<리처드 하리바톤>



여러분은 시보라의 '일곱 개의 도시'라는 전설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것은 거의 천년동안이나 스페인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천 년 전에 무아인이 지부랄탈해협을 넘어서 아프리카로부터 쳐들어와 스페인을 정복을 하고 대무아제국을 세웠을 때 이야기이다. 많은 기독교도들은 난폭한 무아인들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갔는데 한사람의 카톨릭 신부와 신자들은 안주의 땅을 찾아 캄캄한 바다를 건너 아득히 먼 서쪽 나라로 건너가 거기서 일곱 개의 도시를 발견하고 시보라의 일곱 개 도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이 후세에 널리 알려짐에 따라 황금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복한 땅으로 일컬었다.

그후 15세기말 콜롬버스가 미국땅을 발견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 뉴 인도(미국을 말함)야말로 5백년 전 아무인들을 피해서 카톨릭 신부와 신자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시보라이며 일곱 개의 도시도 불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황금에 굶주린 그 당시의 황금병자들은 몇천키로나 되는 길도 없는 산야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1539년 그당이 멕시코에 있던 스페인의 신대륙 총독은 시보라의 황금을 찾고자 탐험대를 보냈었는데 그것은 지금의 뉴 멕시코주에 해당한다. 그때 도착 인디언들은 탐험대원들에게 북방으로 더 올라가면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일곱군데의 커다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자기네들이 찾아 헤매는 목적지이며 멀지않은 장래에 큰 부자들이 될 것이라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걸음을 재촉하여 서둘렀으며 탐험대장은 안내인과 함께 몇 사람의 척후를 내보내서 행로를 찾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일곱 개의 도시를 발견하였으나 난폭한 토착 민족(蠻族)들로 해서 인디언 안내인을 빼놓고는 전부 사살되었던 것이다.

위기일발에서 그들의 마수를 벗어난 안내인은 가까스로 본가까지 도망쳐와 자기가 겪은 정황을 말하고 시보라는 발견하였으나 군대가 없이는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부대는 이 사실을 보고하고자 황급히 멕시코로 돌아가 자초지종을 총독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들은 총독은 지체없이 위대한 탐험가로 알려진 코로나도를 불러들여 일곱 개의 도시에 가서 난폭한 민족들로부터 황금을 뺏어오도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코로나도는 막심하게 고생스러운 여정 끝에 시보라의 도시에 도달하였으나 거기서 발견한 것은 황금의 도시가 아니고 7개소의 가난한 인디언 부락이었다. 그곳은 오늘날 뉴 멕시코의 고루 앞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이 토민들은 코로나도 일행을 부락에서 하루빨리 퇴각시키고자 만약 그들이 바라는 것이 황금이라면 그것은 서쪽에 있다고 알려주는 동시에 또 거기에는 크고도 불가사의한 강이 있으며 그 강은 황금의 벽으로 둘러 쌓여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말에 새로운 흥분과 용기를 얻은 코로나도는 부락부락 돈 로페스 드 칼테나스

사관에게 12명의 부하를 인솔시켜 조사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칼테나스 일행은 불모의 산과 언덕을 넘고 찌는듯한 사막을 건너 서쪽으로 서쪽으로 무한정 전진하였다. 이 험난한 제험(除險)의 길에서 피부는 태양에 그을리고 목이 타도 물 한 모금 없이 거의 빈사(瀕死)지경에 이르렀다. 이쯤 되고보니 황금의 벽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다만 찾는 것은 물 뿐이어서 그들이 얼마나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고 몸부림쳤을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이 전혀 예기치도 못한 때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랜드 캐년(역자주 1919년 국립공원이 되었다)은 코로라도주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고 넓으며 그 면적이 광대한 것 등 실로 경탄할만한 대협곡이다. 칼테나스 일행은 그 변두리에 서서 어안이 병병하며 무언(無言) 가운데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이것은 1540년 즉 영국에서 푸리구립스 화터라고 불리는 친교도의 일단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아메리카)으로 건너오기 80년 전 일이었다.

깊이가 1.6키로나 되는 암벽은 인디언들이 말한 것처럼 황금으로 되어있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가 황금같이 보여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누르스름한 그림자를 따라 빨강과 푸르고한 색대가 엷은 자색 안개 속에 깃들고 있었다.

유명한 탐험전기를 쓴 스페인의 한 역사가는 그랜드 캐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칼테나스와 12명의 부하는 변두리에서 강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에 3일간이나 걸렸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강폭은 1.8미터도 안 되는 것같이 보였으나 인디언들은 그 50배나 된다고 하였다. 세 사람의 부하가 그렇게 험악하지 않아 보이는 장소를 택해서 내려가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얼마 후에 되돌아와서 단애가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을 내려갈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단애 양측에 있는 바위가 대체로 사람 키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 그 바위를 보고 온 사람들은 세비리아 대사원의 탑보다도 높다고 하였다.'라고.

우리들이 다음에 찾아갈려는 경이는 이 지구에 생긴 굉장한 균열이다.

우리들은 모두 그랜드 캐년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사진으로도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협곡이 실제 어떤 것인가를 아는 데는 아무 소용도 못된다. 그것은 흡사히 음악책을 읽는 것만으로 음악을 이해한다던지 피아노나 바이올린의 사진만 보고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랜드 캐년을 사진으로 보면 오히려 공허한 것 같기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1.6키로나 되는 계곡을 흐르는 강, 1.6키로나 되는 계곡의 넓이 측면 암벽에 솟아있는 각색의 사원, 탑, 피라미드의 자연의 조형물, 거기다가 끝간테를 모르는 비경으로 흘러 아름답게 채색되어 빛나는 강의 수면을 보았다고 하면 그 황홀한

<월간사>

한일회담(韓日會談) 해설(解說)

—과거와 오늘의 상황—

◇제6차회담(第六次會談)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은 10년의 세월이 소비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을 본 현안은 하나도 없다. 제1차회담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1951년 10월 20일에 개최되었고 제5차예비회담이 5·16군사혁명으로 자연 중단된 것이 1961년 5월 16일이다. 그간 실질적인 소요월수가 41개월이고 양국의 정부교체가 8회에 걸쳐 있다. 한국은 이승만, 허정, 장면, 일본은 길전(吉田), 구산(鳩山), 석교(石橋), 안(岸), 그리고 지전(池田)정부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한일회담은 10년이 지나가도 실질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다. 이처럼 회담이 부진한 원인으로서의 물론 대일재산청구문제 어업문제 평화선문제 그리고 재일한인의 법적문제 등 난제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일본 측의 무성의에 있다할 것이다. 일본이 비교적 적극성을 가지는 문제는 어업과 평화선문제였고 재산청구문제에는 적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들의 이같은 무성의하고 때로는 아직껏 그들이 깨끗이 불식 못하고 있는 과거의 한국통치시대의 우월감이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측의 제의로 재개를 보게된 제3차회담의 재산청구권 위원회석상에서 일본측의 수석대표 구보전(久保田)이 "일본이 강화조약을 맺기 전에 한국이 독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의 36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국민에 유리한 것이었다..."는 망언을 발한 것은 아직까지 그들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대한 우월감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4차 회담이 4·19혁명으로 자연결렬된 것과 비슷하게 제5차예비회담도 5·16혁명으로 본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자연 중단되고 말았거니와 우리 혁명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또 하나의 한일회담을 시도하였다. 지난 9월 25일 이동환 주일 공사와 윤관 일본외무성 아세아국장과의 합의로서 10월 10일 동경에서 제6차한일회담을 열 것이라는 발표가 그것

경치에 질려서 말 한마디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랜드 캐니언은 너무나 거창한 것이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척도로 이것을 계량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랜드 캐니언은 처음에 대유성(大遊星)인 주피터나 사탄같은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잘못되어 조그만 지구위로 가져온 것이나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어떠한 기회에 지구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협곡의 가장 멋있는 경치는 석양노을이 질을 때라던가 혹은 달이 그 은은하게 매력있는 빛을 가득히 비출 때인데 그와 같은 경치는 아무리 무심한 여행가의 마음이라도 압례(壓例)시킴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랜드 캐니언에 관해서 길게 쓴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믿는다. 불문불지일견(百聞不知一見)이라고 하였으니 어쨌든 그것을 구경하러 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도 칼데나스의 일행과 같이 협곡에 도착하기까지는 황량한 고원을 몇 키로나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칼데나스 일행이 겪은 것과 같이 별안간 그랜드 캐니언은 나타날 것이다.

우리들도 그곳에 서면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된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안내인은 그 균열이 얼마나 깊고 넓고 긴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설명이 조금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들은 그것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또한 실제로 듣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다만 이때 생각나는 것은 날개뿐인 것이다.

그러나 날개 대신에 이 깊은 밑바닥을 탐색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세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참을성 많은 적은 동물에 올라타고 1,500미터나 되는 아래 코로라도강(역자주:미국에서 제4위의 장강인데 전장2천키로)을 향해서 소로를 따라 내려간다. 소로는 단애를 헤쳐 나가면서 지그재그로 전진하게 되는데 양측의 곱게 물들은 자연의 암사들은 오랜 세월에 걸친 풍화작용으로 해서 원담이나 작은 홍담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

이들 암사는 모두가 1천만년 이상이나 걸려 만들어진 것들로서 이 오랜 세월에 코로라도강은 고원 한복판을 점점 깊이 수로를 깎아나가 오늘날과 같은 깊은 협곡이 되고 비나 바람이나 자연의 힘이 양쪽의 암벽을 두툼두툼하게 만든 것이다.

2,000미터 높이의 가장머리에서는 몸이 오싹하도록 한기를 느끼게 되는데 반쯤 내려오면 어지간히 따뜻해지고 다시 계곡 밑으로 가면 찌는 듯이 더워서 기온은 50도나 올라간다. 그것은 머리위로 천, 2천, 3천 미터 이렇게 솟아있는 암벽이 협곡 밑에서 밀집하여 서로 열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얼마간 선선해지라고 수영을 하고 싶어도 강물은 바위나 모래 흙탕물을 휩쓸어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니 유승(流勝)하는 시멘트같이 끈적거리는 분류(分流)는 칼데나스가 말한 것처럼 1.8미터 정도가 아니고 90미터나 되는 이 넓은 강에 수영하러 들어갔다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루가 되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은 이 노호(怒號)하는 강을 단단하게 만든 작은 배에 몸을 의탁하고 걸다란 흙탕물 분류와 악착같이 싸우면서 이쪽 기슭에서 저쪽

이다. 이 제6차 회담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지는 예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우리 혁명정부는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이 성의만 보여준다면 10년래의 묵은 현안을 급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고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모로 관찰해 볼 때 금차 제6차회담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회담을 진전시킬 몇 가지의 호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가 동서양진영대립의 격화가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요소가 되어있다. 하겠고 둘째로 제5차 예비회담이 5·16혁명으로 중단되었기는 하였으나 사무적인 토의를 넘어서 정치협상으로 이행할만한 터전을 마련해 두었다고 볼 수 있고 셋째로 혁명정부가 좋은 의미에서 회담타개에 대한 성의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넷째로 국내 정치태세와 국민의 태도건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다섯째로 케네디 대통령의 박의장 초청이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제6차 회담의 제1단계가 성공하면 한일 재수뇌급의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다는 외교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

◇한일관계10년(韓日關係十年)의 역사(歷史)

제1차회담=제1차 한일회담이 개최된 것은 1951년 10월 20일 한국측의 제의로 동경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일본점령연합군최고사령부 옵서버가 참석하였다. 제1차회담때 일본은 한국동란으로 인한 이른바 특수경기 속에 있었으며 이같은 호경기에 취했음인지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재일한인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동년 11월 1일에 발표한 출입국관리회를 내걸고 재일한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였다. 어업문제의 토의는 그들이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구실로 거부하고 재산권을 요구하여 끝내 굽히지 않음으로써 익년 4월 21일의 회담의 결렬동기가 되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일본은 소위 한일합병조약의 시인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물론 한일연합조약 따위를 시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제2차회담=1953년 4월 15일에서 동년 7월 23일 사이에 개최된 두 번째의 회담은 일본측의 보다 더 무성실한 태도에 의해서 하등의 진전없이 무기휴회되고 말았다. 제2차회담은 당시 연합군총사령관이었던 크라크장군의 초청으로 방일한 이승만대통령이 길전수상과 회담한 결과 그 기틀을 만들었는데 제1차회담결렬 후 꼭 1년만이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재일한국인들의 전과자와 극빈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한국이 이의 인수를 거부하자 일본측은 무조건장기구속하는 폭거로 나왔다. 또 평화선문제에도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 회담을 끌어오다가 제네바정치회의가 개최될 무렵 이에 관련되는

기슭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 강을 정복한 사람들 가운데 최초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 미국 군인인 포엘소령이 있다. 포엘소령은 1869년에 이 위업을 성취하였다. 협곡은 포엘소령으로 하여금 크게 감탄케 하였다. 그는 코로라도강에 관해서 그 모든 것을 탐험하고 연구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무서운 물줄기를 승력(勝力)으로 이용하며 또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남북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었는데 그 같은 부자유한 몸을 가지고 코로라도강 상류에 작은 배를 띄워 아직 어떤 사람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그랜드 캐니언의 전행정(全行程)의 항행을 결심하였다.

처음에 포엘소령이 이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무모함을 설명하고 중지시키려 하였다. 기슭 가장머리에 서서 보면 강은 얇은 부분을 향해서 무서운 힘으로 낙하하는 위험한 장소가 있었다. 인디언들은 강이 때때로 땅 밑의 수로로 잠주어지나 만약 탁류에 휩쓸리게 되면 두 번 다시 살아나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포엘소령은 여러 사람들의 충고에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포엘소령을 비롯하여 아홉 사람의 승무원은 세 척의 보트에 분승하여 협곡으로부터 수백 키로 북방에 있는 와이오밍주에서 이 영웅적인 모험을 개시하였다.

90일 동안 이 용감한 소함대는 희망에 넘친 가운데 무시무시하게 깊은 골짜기를 따라서 항행해 갔다. 맴도는 탁류와 분류 속을 뚫고 나가 폭포 위를 지나 작은 배들은 난폭하고도 무자비한 물결을 타고 내려갔다.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지는 강물소리는 끊임 사리가 없고 언제 어디서 재난이 닥쳐올지 모를 일이었다. 보트가 뒤집히고 준비해온 도구나 식량같은 것은 며칠씩 물에 채인 채로 내버려졌다. 승무원들은 백회 이상이나 죽을 고비를 면하였다. 그러나 이제 새삼스러이 들어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실사 구원을 청하느라고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누구하나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홉 사람의 승원은 대장인 포엘소령만큼 의지가 굳지는 못하였다. 그중에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12주간에 걸친 필사적인 코로라도강과의 투쟁 끝에 완전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 이상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한다면 자기들은 미쳐버릴 것이라 생각한 끝에 보트를 버리고 동료들을 떠나 16키로나 되는 절벽을 가까스로 기어 올라가 위에 있는 고원지대에 도달하였다. 마르고 편편한 사막이 그들에게 처음에는 짝이나 아름답고 친근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제는 살았다고 한숨을 내쉬는 것도 눈 깜짝할 사이였다. 완전히 지쳐서 녹초가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불상한 낙오자 세 사람은 드디어 모든 백인에게 불신과 노여움을 품고 있던 인디언들의 손에 무참히도 죽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죽고 바로 그날 포엘소령과 여섯 명의 승무원들은 몇 번이고 사경에 이르렀음에도 잘 이것을 견디어 조용히 흐르는 하류까지 협곡 남쪽 입구에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정세를 관망할 공심이 었는지 돌연 휴회를 제의해 옴으로써 무기중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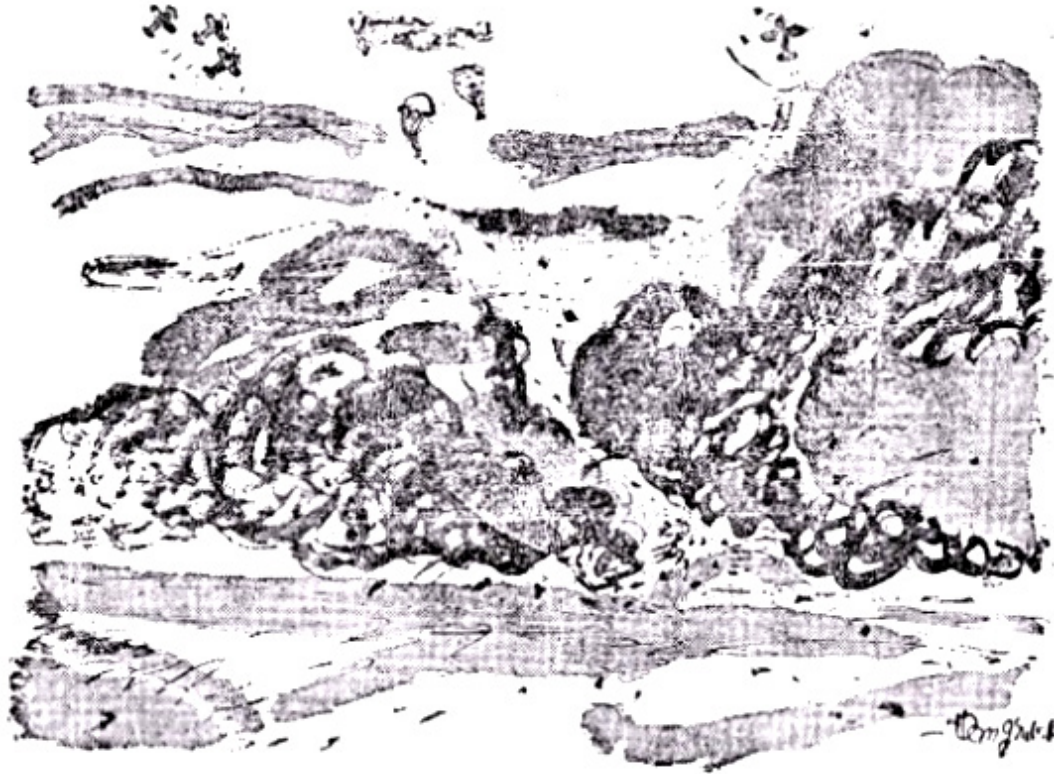
제3차회담=제2차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은 한층 대일강경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평화선을 강화하고 침범하는 많은 일본어선을 나포하였다. 일본이 제3차회담을 제의해 온 것은 53년 10월 6일 바로 이때였다. 그들은 속속 검거되는 일본어선문제를 해결할 심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 번째의 이 회담도 불과 3주일로써 막을 닫게 되었는데 구보전대표가 망발한 것이 이 회담의 재산청구권위원회 석상이었고 동발언을 취소하라는 한국측대표의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우리대표단은 동년 10월 21일에 퇴장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구보전의 망언은 한일회담을 만4개년간의 공백을 만드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우리 한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구보전 망언이 취소되지 않는한 한일회담의 재개를 원치않는다는 경고한 태도를 일관했던 것이다.

제4차회담=제4차회담은 57년 12월 31일 등산 일외상이 구보전발언을 취소하고 대한재산청구권을 철회하는 동시 대춘수용소의 한국인을 석방하며 한국은 부상에서 형기를 마친 일어부를 송환한다는 김유택주일대사와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터전이 마련, 익 58년 4월 15일 만4개년간의 공백기간을 지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담이 개최되자 일본은 그 목적이 제2차회담 때와 동일한 평화선 어업문제에 있었음인지 한일회담의 가장 초점적인 현안인 대일재산권문제는 망피(恣避)해가면서 어업문제에만 적극성을 표시하였다. 이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일본은 재일한인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를 북괴와 의논하고 있었다. 일본이 한국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북한송환을 결정하게 되자 한일관계는 악화되어 59년 1월 자연 일시중단하는 운명에 봉착하게 되고 이후 한일관계는 재일교포의 북송문제가 계기가 되어 재일한인문제로 악화를 거듭하여 한일간 긴장조성이 점고되자 이의 완화를 위하여 8월 12일에 속개되었으나 이렇다 할 진전없이 3·15정부통선거와 4·19혁명으로 회담은 자연 무기휴회에 들어가고 말았다.

제5차(예비)회담=4·19민중혁명으로 탄생한 장면정부는 이승만 외교의 해방기를 가져와서 한일관계에도 하나의 전기를 가져왔다. 9월 6일 일본의 소파외상의 방한이 한일관계의 획기적 호전을 가져와서 예비회담을 10월 25일에 동경에서 개최하고 서울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데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경에서 개최된 예비회담은 적지 않는 진전을 보였다. 평화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업협정체결 교섭이 진전되었고 재산청구권문제는 우리측의 요구액과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재일교포문제는 다른 현안문제가 진전되면 따라서 구체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단계에까지 교섭되었었다. 이 예비회담은 5월 중으로 종결지를 예정이었다. (Y)

3개월(三個月)

—영국(英國) 공군(空軍)의 불굴(不屈)의 투혼(鬪魂)—



서언(緒言)

제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은 영국본토 공방전이었다. 1940년 7월부터 10월에 걸친 불과 12주간의 싸움이 그 후의 전국 그리고 영국과 전세계의 운명의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40년 4월 정말(丁抹)[덴마크], 노르웨이에 침입한 나치 독일은 다음달 5월에는 남쪽으로 전진하여 백의(白耳義)[벨기에], 화란(和蘭)[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을 침공하여 프랑스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 10일에는 이탈리아가 참전하고 22일에는 프랑스가 항복하였다.

유럽 거의 전역이 독일군에게 석권되었으며 미국은 아직 참전하지 않았을 때라 나치스 독일군의 중압은 총체적으로 영국에 향해져,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은 다만 영불간에 가로 놓여 있는 도버해협 뿐이었다.

실로 대영제국의 운명을 도(堵)한 초비상적 전국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영국인들이 진가를 발휘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런던시민들은 연일연야(連夜)의 대공습에도 조금도 용기를 잃지 않고 불굴의 투혼으로 대적하였던 것이다.

고난을 견디어 나가는 엄숙한 얼굴들, 그런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완고하면서도 따뜻한 정과 친절미를 지니고 있는 그들, 그리고 골수까지에 정복되지 않는 자의 긍지가 배어있는 그들, 대공습하의 특이한 생활과 여기에 따르는 공포 그리고 모든 싸움과 동요에 견디며 영국민들은 즉각 그런 것들에 적응하였다.

저칠씨는 그의 대저 「대전회고록(大戦回顧錄)」

방공구국(防空救國)

—제2차대전시(第二次大戦時) 방공전선(防空戰線)에서의

1940년 7월 10일 영불해협 상공에 침입해 온 나치스 독일공군 전폭연합 대편대에 3대의 영국공군 허리케인기가 용감히 응전함으로써 영국본토를 둘러싼 하늘의 방공전은 개시되었다.

그때로부터 3개월—정확히 말하면 12주간 동안에 ‘영국본토 상륙은 9월까지’라는 히틀러의 광적인 노호(怒號) 밑에 그칠줄 모르는 독일공군의 파상공격은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 1대7 혹은 1대10이라는 압도적인 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국방공 전투기대의 영웅적인 반격은 계속되었다.

10월 초순에 이르러 영국본토 상공의 제공권획득에 실패한 히틀러는 드디어 영국본토 정복의 꿈을 단념하였다. 적에게는 영국의 역사를, 크게는 인류의 역사를 나치스의 마수에서 구한 이 3개월간을 어떤 사람은 ‘위터루나 트러화갈 해전과 더불어 영구히 역사에 남을 대공중전’이라고 말하였다.

조국의 위기에 직면해서 영국국민이 얼마나 용감하고 끈덕지게 싸웠던가? 여기에 영국민들의 방공구국 3개월간의 생생한 전황과 그 배경을 더듬어 조국과 자유를 위한 영국민들의 불굴의 투혼을 전하고자 한다. (외지에서)

가운데서

‘어떻게 영국 국민이 단독으로 영국본토의 고루(孤壘)를 수호하였던가? 이미 반은 기울어졌던 영국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라고 기술하고 있다.

제2차 대전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저술이 있으나 그 판가름이 된 영국본토를 둘러싼 공방전—소위 영국의 전쟁—에 대해서는 사가의 평가가 구구각색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과대하게 또 어떤 사람은 과소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때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 영국인들 자신까지도 영국의 싸움은 망각의 세계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제2차 대전이 전세계적인 대전에까지 확대되지 않고 영국만이 혼자 힘으로 싸워 나간 12주간, 이것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 묻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서운한 일인 것 같다.

적편대(敵編隊) 4시방향(四時方向)

1940년 7월 10일 오후 1시 40분. 영국공군 제32중대의 허리케인 전투기 6대는 고도 3천미터에서 도버해협 상공의 초계선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었다.

도버의 흰 언덕이 흐린 태양별에 눈부시게 빛나던 이날 계기가 가득찬 좁은 조종석 안에서 파일럿들은 분주하게 눈알을 굴리고 있었다.

시계는 좋지 않으나 그래도 왼쪽에는 영국 오른쪽에는 프랑스의 푸른 들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 있는 것이 보인다.

좁은 해협 한복판쯤에는 영국해군

의 수송선단이 흰 항적을 그리며 대소선박 전부가 식량과 보급품을 만재하고 서서히 복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이 영국의 생명선이다.

선단의 한줄로 늘어선 배와 배 사이를 호위 구축함이 8자형으로 누비며 달리고 있으며 마스트의 흰 깃발이 눈부시게 펄럭였다.

6대의 허리케인전투기는 비와 구름에 부딪쳐 편대가 이산되어 3대씩 날았다.

구름을 뚫고 시계(視界)를 다시 유지하자 선단상공 도처에서 백색 탄막이 피어올랐다. 독일공군의 공격이 분명하다. 이때 구축함은 대공포화의 포문을 열어 삼시간에 탄막이 창공에 번져나갔다.

‘적편대 4시방향! 여섯 집단으로 내습!’이렇게 최우익(最右翼)기가 보고하였다.

허리케인은 즉시로 급강하를 취하여 공격태세로 들어갔다. 실로 3대 100의 열세이었지만 영국의 창공전아들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기지에서는 스피드화이어 전투기와 허리케인 20대가 격돌차 떠 올랐다. 그런데 해협상공으로 달려 올라간 스피드화이어의 조종사들은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

독일공군의 100대의 전폭연합편대는 3층으로 나누어져 완전히 영국수송선단 위를 뒤덮고 있는 것이었다. 즉 탄발의 뗏사슈미트-109 전투기가 최상층, 중단에는 쌍발 중전탄기 뗏사슈미트-110, 최하층에는 도루니에-17 폭탄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스피드화이어는 4천 미터까지 상승하여 최상층에 있는 뗏사슈미트-109보다도 300미터 높은 위치에서 비스듬히 내리꽂으며 공격을 가하였다. 이때 기관총의 방어쇠는 잡아당긴 채로 최하층의 도루니에-17폭격기군의 한복판을 뚫고 나가 해면에 달락달락 한데까지 강하하였다가 애기(愛機)의 기수를 상향할 때는 탄창이 텅텅 비도록 총탄을 퍼부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탄 보급차 기지로 돌아갈 때면 스피드화이어 쾅무니에 뗏사슈미트가 많을 때는 한 대에 6대씩이나 달려들었다.

이런 일이 그전에는 없었던 일로 바야흐로 독일공군의 본격적인 영국본토 공격이 시작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날 구릿그 정보정무차관은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오늘 오후 기왕에 없었던 대규모의 공전(空戰)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폭격기는 영국본토 상공에 머물러 있으며 폭탄을 퍼붓고 있을지 모른다. 영군해군에 대하여 적의 상륙작전에 대비해서 전원 경계배치에 임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구국전선(救國前線)으로 총진군(總進軍)

프랑스가 항복하고 영국의 싸움이 개시되기까지 2주일 남짓한 사이에 독일공군은 휴양과 부대재편을 끝내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각 전진기지에 전개하고 있었다. 그때 전개 배치된 독일 항공기는 2,669대인데 그 내역을 보면 도루니에-17, 도루니에-215 하인켈-111 등의 폭격기가 1,015대, 융카스-87 윌켈-88 같은 급강하 폭격기가 346대, 뗏사슈미트-109가 933대, 뗏사슈미트-110이 375대였다.

이때 독일군으로서 유리하였던 것은 광대한 지역에 산재하는 많은 기지를 자유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남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시위하면서 북쪽을 때리는 작전이나 벨기에 기지를 사용함으로써 공격목표가 어딘지를 감춘채, 전개되어 있는 대병력을 일거에 집중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영국측도 전략적으로 볼 때 이점이 있었다. 프랑스나 벨기에에서의 전투조건에 비교해서 섬나라인 영국은 확실히 이질적인 장소이었다.

도버해협 상공이나 해협을 넘어서 영국본토 상공에서의 공전의 불리를 독일측도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것을 빠져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의 영국수상은 처칠이었다. 뮌헨회담에서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준 융화정책으로해서 의회에서 심한 비난을 받고 있던 챔버린수상도 독일이 파란(波蘭)[폴란드]을 침공함에 이르러 대독선전을 포고하였다. 그러나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다시 노르웨이를 침공하자 드디어 챔버린은 처칠에게 수상직을 넘겨 주었다.

처칠수상 앞에는 비보가 연달아 날아들어왔다. 즉 비극의 단켈크철수, 프랑스의 항복, 독일의 영국본토 상륙작전, 소위 해러(海驢)작전의 준비 등등………….

독일군은 화란 항구에서 유럽 해안선을 끼고 북프랑스에 있는 여러 항구에 몇백척이나 되는 대형함정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단켈크에서 부레스트 일대에 걸쳐 또 부레스크에서 비스케만에 있는 여러 항구에 걸쳐서 이들 함정은 속속 집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10척 12척 단위의 대형 상선이 독일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항구에서 항구로 은신을 해가면서 도버해협 쪽으로 하향하고 있었다.

북은 함부르크에서 남쪽은 부레스트에 이르기까지 독일, 화란, 벨기에, 프랑스의 모든 항구는 상당수의 선박집결이 보이고 또한 노르웨이에서도 상륙용 주정(舟艇)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처칠수상은 그의 불굴의 인내력과 유머와 그리고 그 탁월한 통솔력으로 이 난국에 임하고 있었다. 차치하면 무너질지도 모를 영국민의 사기가 처칠수상 한사람으로써 얼마나 버티어 졌는지 모른다.

독일군의 상륙작전을 예상하는 영국본토의 방위는 정규군만으로는 병력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영국민들은 본토방위대를 결성하여 시민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자신 참여하였던 것이다.

휴양지로서 범석대던 해안 모래바닥에는 지뢰가 묻혀지고 바다에는 기뢰가 부설되었다. 도로 위의 조새(阻塞)도 축성되어 예상되는 독일군 상륙작전을 맞아 거족적으로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였다. 영국의 신문들은 연일 ‘어떻게 하면 염총을 유용한 병기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해석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의 불 배어링을 총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보도하였다. 또한 칼 쓰는 법을 독자에게 도해식으로 가르쳐주는 신문도 있었다. 즉창돌격전법에 불교한 것이었지만

독자들은 이와 같은 기사를 열심히 읽어 독일군의 내습에 대비하였다.

미국 톱프슨사로부터 자동단총이 매주 선편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그것들은 우선 육군에 보급되어 본토방위대에도 양도되었는데 우선권은 군에 있었기 때문에 본토방위대의 무기는 상당한 기간 통일되지 못하고 잡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총을 가지고 있는 대원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곡괭이를 둘러매고 경비를 서는 대원도 있는 형편이었다.

구릿그 차관이 라디오로 ‘본토방위대의 대원은 50만에 달하였다. 제군이 조국을 위하여 봉사할 때는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라고 방송하자 백림(伯林)방송은 다음과 같은 독설을 퍼부었다.

‘본토방위대의 훈련에는 감옥에서 보석된 죄수들이 당하고 있다. 늙은이나 아이들만의 오합지졸이 정강한 독일군에 어느 정도 견디어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그 당시의 영국으로서는 만약 독일군이 상륙작전을 강행한다면 해공군은 별문제도 하더라도 육상전투만은 이 본토방위대로 하여금 대적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운동경기장 따위는 그대로 육군이나 본토방위대의 연습장으로 쓰여졌으며 그와 더불어 전영국인들의 마음도 긴장되어 외국인들에 대한 취급도 달라져 갔으니 모든 외국인들은 야간 외출이 금지되었다.

완비(完備)된 작전실(作戰室)

독일항공기의 침입경로가 된 남잉글랜드와 런던을 수비하는 영국기지는 19개 중대인 약 200대의 전투기가 있었다.

이 가운데서 6개중대는 스피드화이어였으며 나머지 13개 중대는 허리케인 전투기로서 키스 파크 소장이 지휘하는 제11사단 예하에 있었다.

제11사단은 영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4개 전투기사단의 하나로서 그밖의 제10, 제12, 제13사단은 각기 잉글랜드 서부와 동부 그리고 중북부 스코틀랜드를 방위담당구역으로 삼고 있었다.

영국 공군 전투기대 사령관은 휴 다우딩 대장이었으며 사령부는 스탠모아에 있었다.

키스 파크 소장이 지휘하는 제11사단은 옥스브릿지에 있었으며 애섹스주, 캔트주, 사섹스주, 햄프사주가 관할구역이었다. 말하자면 적의 런던침입 경로의 요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실로 영국의 운명 태반을 이 부대가 걸머지고 있었다. 파크 소장은 당켈크 철수작전 당초부터 잉글랜드 남부에서의 주간전투 전반을 지휘하고 있었다.

사령부의 시설과 장비는 최고의 수준으로 완벽에 가까운 것이었다. 작전실은 지하 15미터에 콘크리트로 만든 완전한 방공호였으며 작전상황

<영화안내>

선풍(旋風)을 일으킨 질투(嫉妬)

—노오만 크라나의 희곡(戲曲) ‘Who Was That Lady?’에서—

웃음없는 인생은 비극이다. 그러나 눈물 없는 인생 또한 무미건조한 인생이라 할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진정한 희극은 ‘눈물 나는 웃음꺼리’—눈으로는 웃으면서 가슴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희극을 말한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희극영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뜻에서 명화였는데 Who Was That Lady?(당신과 함께 있는 그 여자는 누구죠?)도 역시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동일한 작자 Norman Krasna이다. 이 Who Was That Lady?는 1958년 3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어 신선한 감동과 명량한 웃음으로 룡런홍행이 되고 익년 59년에 콜롬비아사가 영화화하였다.

해설

흔히 있을 수 있는 순간적인 정사—이러테면 젊은 과학자가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의 일을 도와주는 어여쁜 여성이 나타난다. 과학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에게 키스를 한다. 공교롭게도 과학자의 본처가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발견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건이 발전되는데 상상치도 않던 기상천외한 사건으로 진전하는 예가 없지 않다. 사람의 운명이란 운명 그 자체가 기상천외한지도 모른다. 이 영화는 이와 같은 기상천외한 사건을 웃음으로 이끌어 가면서 인생의 한 면을 그려주고 있다.

스태프나 게스트들도 유능한 사람들이 등장되고 있다. 삼총사를 연출한 조지 시드니가 메가폰을 잡았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촬영한 스트라드링이 카메라,



실은 폭이 18미터에 2층으로 나누어져 있어 언뜻 보기에는 지하에 있는 소극장과도 같았다.

2층에서는 작전실의 구석구석이 바라다 보였으며 1층 한복판에는 커다란 지도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그 주 위에는 전화교환수와 항공기 표시를 옮겨 놓는 사람들을 합쳐서 20명쯤이 서 있었다.

2층 바로 정면에는 벽 전체에 흑판이 걸려 있고 이 흑판은 전구로 가로질러 여섯 개는 지휘하에 있는 지구 기지수이며 그 하나하나가 다시 표시등으로 6부분 되어 있는 것이었다.

최하단의 표시등은 그 부대가 대기중임을 의미하고 다음단의 표시등은 준비완료, 그 다음은 출동가능, 다시 그 다음은 이륙출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좌측 유리판 안에는 정보장교가 4·5명 있어 각 초계소에서 보내오는 적정을 수집하는 일을 보았다.

전투중에는 초계소에서 통보되는 정보가 수천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재빨리 분석해서 지도테이블로 전하지 않으면 아방의 비행기 표시모형도 적기의 표시모형도 옮겨 놓을 수가 없게 된다.

우측에도 유리로 칸을 막은 방이 있는데 이것은 고사포(高射砲)부대와외의 연락실로서 육군장교가 일을 보고 있다. 제11사단 관구에는 2백문의 고사포가 배비되어 있었는데 연락이 늦거나 잘못 되던지하면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위험이 있었다.

사령부의 작전실과 휘하 각 중대본부, 고사포부대, 초계소는 전화로서 연락이 유지되었으며 모든 것이 혼연 일체로 정황에 응해서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 시스템은 다우딩대장의 헌책(獻策)으로 전전(戰前)에 공군성이 설계고안한 것인데 영국이 승리한 하나의 요인은 이 시스템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영국군의 명장(名匠) 두사람

제10, 제11, 제12, 제13 각 사단과는 별도로 야간전투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쌍발의 부렌하임6개중대와 단 발의 데파이안트 2개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7월 10일 영국전쟁이 개시되었을 때 다우딩사령관이 지휘할 수 있는 전투기는 도합 6백대였으며 주력은 허 리케인이었다.

탑승원의 수는 1,450명이었는데 그중에 50명 이상은 해군에서 온 조종사들이었다.

거기다 그 당시에 레이다는 상당히 유치하여 해상—즉 해협상공에 나타난 적기의 발견은 할 수 있어도 육상 에서는 우군기와외의 식별을 할 수 없었다.

한편 도버해협과 북해대안에는 독일군이 제2, 제3, 제5공군으로 편성된 3항공군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그중 에서 제2, 제3 양군은 독일북부에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에 걸쳐 전개하고 그 병력은 중형폭격기 1,130 대, 급강하 폭격기 320대, 멧사슈미트-109 800대, 멧사슈미트-110 250대, 정찰기 60대였다.

제5군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배치되어

가수이면서도 ‘젊은 사자들’에서 호연을 보인 ‘뒀 마이틴’, 대작 ‘바이킹’이며 ‘서부전선 이상없다’에서 그 미 모를 자랑한 자넷트 리 그리고 ‘흑과 백’ 등에서 격조있는 여기를 보인 토니 카티스 등이 주연하고 있다.

즐거리

젊은 미남배우 데빗드는 어느 날 그의 화학교실에 들어온 어여쁜 여학생과 키스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키스는 조금도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때마침 남편에 용무가 있어 학교 에 왔던 데빗드의 처 안이 이를 발견하고 대노하여 즉석에서 이혼할 것을 선언하고 안은 가버린다. 데 빡드는 몹시 당황하여 처에게 발뺌할 궁리를 그의 친구인 텔레비전작가 마이크에게 상의한다. 마이크가 고안한 발뺌기 연구은 다음과 같았다. 데빗드는 실은 FBI(연방경찰)의 비밀요원이며 여학생과 키스한 것 은 그 여학생으로부터 어떠한 중요한 간첩사건의 실마리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데빗드가 FBI 비밀요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텔레비전방송에 쓰는 요원증명 서와 권총을 휴대하고 발바닥에 4개의 공을 그려 넣어서 안을 방문, 그럴듯하게 꾸며댄다는 플랜이다.

이렇게 해서 안의 노기는 풀리고 회복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텔레비전국의 소도구원이 마이크가 FBI를 참 칭했다고 FBI에 밀고할 함으로서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급전한다. FBI당국은 중대한 음모사건의 일단일 지도 모른다는 관측하에 FBI국원을 데빗드가로 파견하여 조사케한다. 안은 FBI국원의 내방을 맞아 남편이 틀림없이 비밀요원이라는 단정하에 더욱 안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데빗드는 마이크의 권유로 중국요 리집에서 텔레비전 지망 젊은 여성 두 사람과 재미를 보고 있는 중이다. 데빗드가 외출할 때 안에게 외 국의 비밀요원과 상의하러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은 남편이 잊어버리고 간 권총을 남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집을 나가려 할 때 FBI국원이 왔음으로 안과 국원은 중국요리집으로 가게 된다.

한편 텔레비전 여우지망의 두 여성은 그들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조회해 본 결과 아마도 놀림감이 되어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격노한 두 여성은 큰 소리로 데빗드와 마이 크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이때 안이 나타나서 남편이 무슨 위기에 합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권총을 전해 준다. 두 여인은 거리로 도망치고 데빗드와 마이크가 그들을 뒤쫓는다. 당황한 안과 FBI국원이 또 그들의 뒤를 쫓는다. 어찌다가 권총이 오발되고 뉴욕의 변호로는 대낮에 때아닌 일대소동이 벌어진다. 신문기자가 뛰어나오고 텔레비전 뉴스 카메라반이 출동한다. 그러자 2층 창가에 놓였던 화분이 떨어져 데빗드의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데빗드는 기절한다.

이튿날 아침 데빗드와 마이크가

장비로는 중형폭격기 130대, 멧사슈미트-110 40대, 정찰기 50대를 지휘하에 보유하고 있었다.

항공전에 있어서 수의 우열은 때로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전투기 성능에 관해서는 양방의 우 열을 속단할 수는 없었다.

멧사슈미트는 속도와 상승력이 우수했고 영국기인 허리케인과 스피드화이어는 기능성과 포화력이 우수하였다. 수의 압도적 우위에 자신을 가진 독일공군은 또한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전투에서 승 리자로서의 자랑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영국공군 조종사들은 수의 우세를 자신들의 기량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믿고 또한 사실 영국 조종사들의 훈련도는 독일공군에 비해서 어지간히 높은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영국공군은 두 사람의 명장 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우딩대장 또 한 사람은 윌푸렛트 후리맨 대장이었다.

영국공군 전투기대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1936년이었으니 영국의 싸움이 시작되기 불과 4년 전의 일이다.

초대 사령관에는 다우딩대장이 임명되고 공군대학 교장이었던 후리맨대장이 연구개발본부장에 임명되었다.

허리케인과 스피드화이어의 원형은 다우딩대장 밑에서 채택된 것인데 그 연구 개발과 정식 채용 후의 초기 생산은 후리맨대장의 힘을 입은 바가 컸다.

물론 항공기생산상 비바부룩크경이 올린 생산실적에 비해서 후리맨대장의 생산대수는 미미한 것이었지만 비바부룩크경이 항공기생산상에 취임한 1940년 5월 14일 즉 영국전쟁이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후리맨대장 이 양산화에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비바부룩크경의 위업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하기 수개월 전부터 허리케인의 생산대수는 증가되었었다. 1938년 10월에는 월산(月 産) 26대였던 것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39년 9월에 이르러 월산 44대로 되었다. 스피드화이어도 마찬가지로 동년동기에 월산 13대에서 32대로 2배 반이나 증산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선견지명이 있었던 후리맨대장은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대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후리맨대장은 공장을 확대하여 연료정제를 강력히 추진한 것이었다. 한편 4발 중폭기기 개 발을 명령하고 쌍발의 목제 드헤비랜드 모스키프의 연구 개발을 명령하였다. 이 중폭격기는 직접 영국 전쟁 에는 쓰여지지 못했지만 2년, 3년, 4년 후에는 각기 독일군의 런던공습에 이자를 붙여서 백립 대공습에 활약하 여 커다란 전과를 올렸으며 모스키프기는 전일에 고속 다목적기로서 지극히 유용한 비행기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후리맨대장은 제1선사령관으로서의 다우딩대장의 명성에 비하면 영국민은 물론 영국공군 조종사들 사이에도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밤나무 꽃이 하얗게 피는 영국의 5월! 평화롭고 한가한 풍경이었으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독일 군이 점령한 비행장 복구공사로 법석했다. 최악의 사태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영국공군의 전투기 정비나 생 산은 기적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5월 14일 항공기생산상에 취임한 비바부룩크경이 취임 제1주에 마법의 지 광이를 휘두르거나 한 것처럼 기적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었다. 다우딩대장은 공식서한 가운데서 비바부룩크 경 임명에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랑스에는 이미 전투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렸는데 이와 같은 정도로 중요한 것은 비바부룩크경 이 항공기 생산상에 취임한 사실이다. 그의 임명은 기적을 가져 왔다. 비행기 (55면으로 계속)

FBI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무렵 조간은 외국 스파이와 격투하는 용감한 데빗드를 사진입(寫眞入)으로 대 서투블로 소개한다. 데빗드와 마이크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난데없는 중대한 정보가 들어 왔다. 그것 은 중앙 정보국장이 가져온 짹짹한 녹음 테이프였다. 이 녹음은 외국스파이 두 사람이 교환한 전화인데 방금 데빗드가 연구중에 있는 모종 화학실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데빗드를 납치하자는 내용이다. 그래서 FBI는 돌연 긴장한다.

이 무렵에 자택에 있는 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은 FBI선전부로부터 데빗드의 행위를 찬양하는 사 진을 촬영하겠으니 하오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와 달라라는 것이다. FBI는 이 전화가 문제의 두 사 람의 외국 스파이의 수작임을 인지하고 그렇다면 그들의 계략에 빠진채 하고 나타나서 그들을 일망타진 하자는 연계략을 세운다.

하오에 FBI 전원이 요소에 배치된 빌딩 속을 데빗드, 안, 그리고 마이크 세 사람이 들어간다. 그들이 엘 리베이터로 들어서자 데빗드는 두들겨 맞아 뺨었고 마이크와 안은 마취약에 걸려 뺨었다. 데빗드는 외국 스파이들이 잠수함으로 외국으로 끌고 간다는 위협에도 연구에 관한 비밀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자 스파이들은 FBI의 배치를 눈치채고 세 사람을 냉방장치기관실에 던지고 사라진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들은 데빗드가 우리는 외국 잠수함에 감금되어 있으니 이 잠수함을 침몰시키자 는 주장에 동의하고 기관실을 마구 파괴하기 시작한다. 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냉방장치 기관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후 빌딩에는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소동이 벌어지고 빌딩 사무원과 FBI국원 들이 기관실로 몰려들어 그들을 구출한다.—는 이야기.

촌평

이트 크리스마스처럼 깊은 감명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토리 전개의 짜임새와 기상천외한 사건이 흥미를 끌게 하며 때때로 폭소를 자아내는 가운데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하는 사색을 갖 게 한다.

이 영화는 ‘선풍을 일으킨 질투’라는 타이틀로 11월 초순경 우리나라에서 개최될지도 모른다. (유기영)



제후랑(際厚娘)과 백운랑(白雲郎)

—훌륭한 무인의 아내 이야기—

김일순

쓰르래미가 찌리리리아……하고 울던 소리를 딱 멈추었다.

담장, 호박꽃 넝쿨을 서성거리던 별도 왕……왕……하던 소리를 버리고서 그만 어디론지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뒷밭의 수수대가 한때 스스스스을……하며 나부끼더니 이 또한 어느 사이엔지 조용해졌다.

이러한 속에서 한낮이 훨씬 기운 새하얀 햇볕을 그늘진 곳 저편으로 바라보며 두 대감은 뒤뜰 한편에 자리 잡은 정자 마루에서 바둑 두기에 아무런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승부를 가려 왈가왈부하는 빛은 조금도 엿보일 겨를이 없이 오로지 들을 들 때마다 짹, 두우우웅……하고, 부드럽게 울리는 그 우아한 바둑판 소리에만 취해 있는 듯 했다.

아유(阿有)대감과 나소(奈素)대감.

이 두 대감은 진지와 연대의 다 같은 해에, 또한 꼭 같이 서라벌 길양촌(吉良村)에서 탄생 되었었다.

그리고서 역시 28(二八)의 열여섯 살을 맞이하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다국선(宇多國仙)의 무리로 들어가 화랑이 되었으며 그다음 이십여 년간을 그저 국가민족을 위해 선행선투 끝에 장군의 직위를 바로 눈앞에 다 둔 지난해 가을, 홀연히 두 친구는 대감의 신분만으로써 만족을 느끼며 훌훌히 관을 물러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스쳐가고 여름마저 막상 물러가고 있는 형편이었으나, 아유대감과 나소대감에게 있어서는 한결같이 찾고 찾기기만 하는 정다운 세월이었다.

두판 채 치룬 바둑돌을 주섬주섬 거두며, 툭툭한 아유대감이 말을 건다.

“그참, 자부께서 태기중이시라고 들었는데……혹시 또, 풍설은 아니온지……”

“아, 건 또 어떻게 알고 계시오. 풍설은 아니라오. 아마 오류삭은 죽히 뺐다나 보오. 헛허……”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나소대감이, 부지런히 대답을 했다.

“그야아, 집의 며느리도 그런 기가 있어……그래서 안에서들 말이 났나 보오”

느릿한 말투의 아유대감도, 끝머리는 헛허……하고 웃음으로 맺었다.

“아, 그렇던가요? 그, 참……”

나소대감은 대답소리를 한결 더 간결하게 굴며 세판 채 치룬 바둑 준비에 두 눈은 줄곧 아래로만 깔려 있다.

쓰르래미가 다시 씨이릉……씨이릉……하며 기울어져 가는 햇빛을 애석히 여긴다.

“그렇다면, 그 뭔가……어떻소”

아유대감의 말소리와 함께, 바둑판 소리가 짹, 두우우웅……하고 울렸다.

“아, 네?……”

역시 나소대감은, 다급해 했다. 한머리 바둑판소리도, 미미했다.

“댁의 아가와 우리 아가를 장차 좋은 배필로 정한다면? 헛헛허……”

아유대감은, 껍이나 유쾌한 듯이 웃었다.

“아 그야, 내중 봐야 할 일 아니오. 성미도 껍이나 급하시오 헛헛헛……”

여아인지 남아인지 지금부터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나소대감의 말이었다.

두 대감은, 더 길게 말을 이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여전히 한적한 속에서, 바둑판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갔다.

×

이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진, 제후아기와 백운랑이었다.

방년 십육세를 맞이한, 제후아기와 백운랑—

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어언 몇 해들이 지나갔다.

제후아기는 아유대감의 손녀였고 백운랑은 나소대감의 손자였다.

제후아기는 백운랑보담도 생일이 두달이나 뒤늦으나마 어쩐지 매사에 유들유들 소견머리가 트여 있어, 사람들은 꼭 그 할아버지를 닮아 있다고들 평하였다.

백운랑은 백운랑대로 또 나소대감을 너무나도 닮아 있어, 강직하면서도 한머리 연삼삼하기 비할 데 없는 젊은이었다.

이러한 두 젊은이가 서로 아끼고 서로 정다워하는 품까지도 그들의 할아버지를 닮아 있었으나, 이들이 장차 한쌍의 짝이 될 수 있는 사이이니 만큼 한결 더 어느 모로나 아름다워 보였다.

외도도 아름답게들 자랐다.

대감댁 집안으로서 그들의 어버이 또한 흰출한 행세를 하며 지나느니만큼,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더라도 흰히 광채가 돌듯한 풍채들이었다.

그런데 진평왕 삼십삼 년 초겨울에, 갑자기 그다라(백제)병사들이 크게 몰려와 가금성을 둘러쌌다. 서라벌 서울에서 오백여 리나 떨어진 곳이었다.

이 사실은 곧, 서라벌 대내(大內)에도 알려져 왔다.

여기서 상감께서는, 몇몇 윗머리 벼슬아치들의 헌책(獻策)을 받으시어 전에 없이 일을 다급히 서두르시었다.

여태까지 세월을, 거듭하는 동안—두 나라 사이에는 가끔, 치고받고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국경 언저리의 어느 조그마한 책(冊)을 서로 건드려 보는 정도였지 이번처럼 어느 하나의 성곽을 범해 온다는 짓은 드문 일이었다.

더구나 추수동장(秋收冬藏)도 이미 끝나쳐져 있는 즈음이라, 그 거머리 때 같은 그다라병이 무한정 대금성에 달라붙어 아무작거릴 것만은 흰히 들여다보는 사실이었다.

왕의 뜻이 결정되자 생각있는 젊은이 모조리, 너도나도 하면서 대금성으로 달려갈 것을 자원했다. 여기에, 제후아기의 사랑하는 이—백운랑도 한몫 끼게 되었다.

이미 화랑의 무리에서, 그 말타기의 재질과 드물게 보는 고운 심성으로 알려진 바 있는 백운랑인지라 문제 없이 제일 선발대원으로 뽑히게 되었다.

백운랑의 나이 이미 열여섯살이니만큼 그 당시 서라벌 남아의 기풍을 닮아, 숨김없는 어엿한 하나의 사나이로서 배웅하려 드는 제후아기를 넋지시 대하였다.

달도 별도, 아무것도 없는 밤이었다.

하늘을 흐려 놓은 찌뿌듯한 구름결이 언제 다시 거뒀질 것 같지도 않으며 또 그렇다고 해서 곧 첫눈이라도 부실거릴듯한 차가운 기가 맴도는 것도 아닌 그러한, 도시 젊은이들끼리 이별을 애태워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밤이었다.

“……”

“……”

“갑옷은 입고 가지지요?”

더 무언(無言)을 지켜도 심잡겠다는 듯이, 뻔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말로 제후아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은요. 싸움터에 나가면서 그걸 빼고 가겠소?”

백운랑이 말끝을 맺으며 사뭇 쿡쿡 웃는다. 제후아기도 어둠속에서나마 미소 띠었다.

“그러하오면, 나 그 신발끈……내가 매어드리고 싶어요”

제후아기의 말소리가 전에 없이 기어들어가듯 했다. 얼굴까지도 몹시

<휴가온 아들>

‘이 사진보고 길에서 지나쳐도 몰라 보겠구나……’

—이재화(李在華)—



붉혀있는 듯 더운기가 백운량에게까지 뻗 끼쳐 몸을 느낀다.
 “그렇거오! 나, 이따 새벽……준비되는 대로 댁 앞으로 말고뽕 돌리리다.”
 무척도 긴 시간을 끌며, 백운량은 대답을 했다. 제후아기도 이 말을 목덜미로 들은 것 같았다.
 감나무끝 저 높이에는, 시꺼먼 까치둥지 하나가 큼직하게 도사리고 있으나 아마 그놈들도 이 밤중에는 그들의 눈초리를 잘끈 감고서 보지 않으리라.

× ×

가금성을 둘러싼 그다라의 생떼같은 패들은, 이듬해 발 갈 무렵에 이르러서야 겨우 풀리어져 갔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온 겨레가 되찾은 화창한 봄빛 속에서, 오직 제후아기만이 끝없이 끝없이 마음 어두워졌다.

백운량이 뜻밖에도, 눈을 잃고 더듬거리며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제후, 마음 언짢아하지 마오. 내가 오지 않았소. 내, 여기 있지 않소. 시초엔 그저, 번번이 이 목숨 끊으려고만 들었으나……. 하지만 그래도 제후는, 내가 돌아옴을 더 기뻐하리라는 믿음에서 그 믿음에서 억척같은 괴롭을 되뵙으며 이렇게 돌아왔소.”

이 말을 하며 그는 눈부시운 듯이 뜨이지 않는 눈을 저편으로 제쳤으나, 한 머리 그는 역력히 기뻐하는 빛을 감출 길이 없었다.

제후아기도 기뻐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어져 나갈 듯이 사무쳐 오는 기쁨이었다.
 그러나 어떡하리!

백운량이 장님이 되어 돌아온다는 전갈을 받은 며칠 전 그날부터, 아버님께선 이미 혼사를 서둘러 달라고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앞으로 무엇으로 생을 보낼까……. 그것도 제후, 염려 마오. 내, 일찍이 피리에 장기가 있었으니 장차 이것으로 임금께 이바지하며 지나려 하오. 제후가 내 곁에 있는 이상, 결코 지겨운 생을 보내지 않게 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백운량의 얼굴은 사뭇 저어 앞이 바라보는 듯이 빛나 있었다.

그러나 제후아기의 마음은 줄곧, 저어 어둠속으로만 자꾸 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등촌을 밝히려 들어온 노비에게 민망함을 느끼며 제후아기는 백운량의 앞을 물러섰다. 그나마도 아버님 몰래, 유모와 함께 찾아왔던 길이라 갈길을 재촉해야만 했다.

남의 눈이 두려워, 손 한번 짹잡지 못하고서 끝내 여섯자 간격을 지탱해 나가던 터였으나 그러나 제후아기는 백운량의 마음의 입김을 가슴가득히 느끼며 사뿐거리는 발자욱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차근차근 세워본다.

수삼일이 지난 다음—
 과연 제후아기가 근심했듯, 나소택에서는 제후아기를 두고 무진태수 이준평에게 혼사를 언약했다.

선대적부터 내려오던 아유와 나소 두 집안끼리의 정의는 이로써 완전히 깨트려지고 말았다.
 이렇게 된 다음에야 타협도 상의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일의 귀추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제후아기는 아버님께 공손히 절하며 제가 삼백여 리 머나먼 무진에게까지 가서 거기서 성례할 것을 간청하였다. 어디까지나 신랑되는 이태수를 도우소서 하듯 보이는 제후아기의 너그러운 태도였다.

아버님께서는, 어디까지나 기꺼이 응락하시었고 그리고 그날따라 백운량을 남몰래 찾아갔던 제후아기의 이야기거리라는 많기도 했다.

× ×

그날이 닷쳐왔다.
 혼례의 행렬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서라벌 장안을 멀리 떠나, 저녁노을 짙은 속 보리밭 사이길을 줄지어 가고 있었다. 곧 이랑촌이었다.

이틀째가 되고 사흘째가 되는 날까지도, 유달리 화기 넘쳐 있어 뵈는 이 행렬은 한결같이 마을과 마을을 이어가고만 있었다.

그런데 나흘째를 맞이하자, 길은 험상궂어 왔다. 행렬은 가다가는 쉬고 가다가는 쉬고 하기를 아침부터 벌써 몇 차례인지를 모른다.

그래도 제후아기의 얼굴은 변함없이 부드럽기만 했다. 가끔 무엇을 살피듯, 남녀 밖을 빼꼼히 내다보기도 하며, 약간 평평잡한 곳에 이르러서였다.

난데없는 부랑베에 의해 제후아기는 그만, 사납게도 비탈진 저어 아래 골짜기로 끌려 가고야 말았다.
 죽을 힘을 다하여 아우성치는 제후아기를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만 동행 장정들은 이 일을 어느 쪽에 먼저 알려야 하느냐고 인쟁을 주고받는 동안에 그날 해도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다.

무진성을 십 리 밖에도 둔, 계곡 그 한편에서는 백운량이 자기의 몇몇 도당과 함께 모든 준비를 갖추어 제후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앞 못 보는 병신이었으나 천하를 노려보는 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결 총명하였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이 된 두 젊은이—

그들 젊은 내외는 그길로 한층 더 구석진 곳을 찾아,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 아낌없이 피땀을 흘리었다.
 산새조차 드나들기를 꺼려하는 깊은 산골에서 고랑을 파며 한머리 앞으로의 이바지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한해 두해 그리고서 또 수삼 년이 지나 어언 일곱해라는 햇수를 보내었다.

항상 품안을 떠나지 않던 백운량의 새 피리는 노랗게 곁어, 그 청아한 소리란 도저히 지상의 것이 아니었다.
 제후아기도 백운량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모든 면이 원숙하게 자라며 있던 터에, 그들은 기어코 나라에까지 알려진 바 되어 서라벌 장안으로 옮기어 갔다.

임금의 부르심을 받자웁고, 옮긴 것이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왕께서는 그때 백운량을 도와 제후아기를 약탈해낸 김전(金闕) 장사마저 크게 상(賞)하시었다는 일이다.

군인(軍人)과 신앙(信仰)

임동선(林東善)



군인은 총과 칼을 가지고 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총과 칼은 이미 원시적인 병기모양 취급되지만은 사실상 군인은 어떤 병기를 가지고 적을 제압하려드는 일에 맨 앞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군인에게 꼭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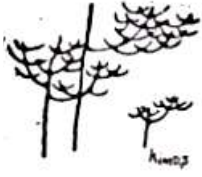
그것은 첫째 용기입니다.

포탄이 날아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만한 용기, 창, 칼이 자기를 찌르고 살을 베어도 불굴하는 용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대항하는 군인이 용기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새로운 현대무기로 장비하고 신기한 기술을 갖추어서 적을 이복으로 몰아내고 아쉬운 현상이긴 하지만 남한만큼은 국민들에게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군인 각자에게 용기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놀라우리만큼 최신 과학무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듯이 우리들의 용기도 전보다 새롭게 강해졌나?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전의 기술보다 신통하리만큼 발달된 기술처럼 우리들 군인이 용기면에서도 전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감 대답 용감해야 할 군인이 피를 부리고 비겁하지나 않은지? 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낙엽(落葉)잎은 가로수(街路樹)

전광용(全光鏞)



도시의 계절은 가로수에서 와서 가로수에서 가버린다. 교외로 나갈 틈조차 없이 도심에서 부쩍대고 있는 군상들은 가로수의 새싹을 스치고 지나가는 간지러운 미풍에서 비로소 새봄의 공음(蛩音)을 듣고, 동면의 텅텅한 유물인 외투의 무게와 그 속에 배인 후끈한 자기의 체취에 새삼 후각을 건드려 보게 된다.

가로수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향취를 가지고 있다. 옹터오는 새싹에서는 산아의 강보에서와 같은 유니크한 향훈(香薰)의 발산을 느끼게 되어 견뎌 견음을 굳이 멈추고 코끝을 머뭇거리게 한다.

피로한 사무실의 오후, 잠시 포도(3道)에 면한 원도를 스쳐 시야에 전시되는 가로수의 싱싱한 신록에, 문득 봄이나 물레 질어졌음을 의식하는 순간이 있는가하면, 버스나 전차의 차창 건너 우거진 가로수 밑에,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늙혀 놓은 지계에 비스듬히 기대어 오수(午睡)의 무아경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번잡한 거리에도 잠시 한적의 유유한 침범을 착각하는 미소 어린 흐릿한 정감을 느끼게 된다.

삼복의 무더운 한낮 가로수는 확실히 거리의 오아시스요 안식처다. 낮 모르는 누가 언제 그 밑에 의지하여도 나무람이 없다. 우장(雨裝)없이 집을 나온날 무성한 가로수는 얼마동안은 예고 없는 소나기를 막아주는 도피처이기도 하다. 점방앞 차일 밑이나 빌딩 현관 복도에서 비를 피하려면, 주인의 꾸중이 나오기 전에, 앞질러 스스로의 불안에 못 이기지만, 가로수는 아무 시비 없는 넓은 날개의 폭으로 포근히 감싸준다. 그리고 보면 가로수는 거리의 말 없는 봉사자임에 틀림없다. 이때 손바닥보다도 더 넓은 플라타너스 이파리에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 소리는, 뱃속까지 씻겨 내려가는 것같이 후련하고도 시원하여 잎사귀를 새어 떨어지는 약간의 물방울쯤에는 오히려 무관심을 반추하는 심신의 흐릿함마저 느끼게 된다.

싱싱한 가로수의 대열 그것은 도시의 혈액인 잡다한 포도의 정화제요 청량제임이 분명하다.

도시의 가을은 가로수의 낙엽에서 시작되고 그 마지막 잎새에서 종식된다. 아직 노타이에 옷걸이를 더 걸치지 않은 9월의 아침, 문득 어깨 위에 떨어져 발 끝에 채이는 가로수의 낙엽 한 이파리에서 가을의 서장은 천근 무게로 온몸을 감아버림을 어찌할 수 없이 느끼게 된다.

이리하여 가을은 가로수의 변색과 더불어 질어지고, 그 마지막 잎마저 낙엽이 끝나는 날, 햇빛은 앙상한 가지는 이미 예고의 효종(曉鐘)도 없이 우리를 겨울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름답고 싱싱하게 가꾸어진 가로수 그것은 도시 미화의 제1선의 초병이요. 누항 속에 깃들인 정서의 보금자리요. 아울러 그 거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문화 척도를 가장 쉽사리 판정하는 바로미터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다.



미의 도시 파리를 보고 온 사람들은 바다깡, 루브르, 세느와 더불어 상제리제의 매끈히 정지(整枝)된 가로수의 아름다움을 이 고도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빼어놓지를 않는다.

푸르름이 없는 빌딩만의 거리, 그것은 상상만 하여도 낙목 이후의 황야보다 더한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요지막 서울 거리의 가로수는 거의 전부가 낙엽을 잃었다.

하면 평화와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어야 할 군인이 용기가 없다면 믿을 수가 없고 또다시 비극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 중에는 정의감입니다. 정의가 없는 군인은 포악을 부리고 탐제와 안일과 음난 등의 탈선적 범죄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사를 볼 때 그 피비린내나는 참혹한 전쟁들이 거의가 다 이해관계, 감정 및 보복관념에서 저질러진 것들을 볼 때에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의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 문제는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진정 정의와 부정의는 내 안의 양심에서 항상 저울질 해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없이 흘러나오던 군수물자의 부정유출 간혹 군민간에 벌어지는 불미한 포악 등은 우리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참된 군인은 물자보다도 명예를 더욱 중히 여기며 선량한 백성들에게는 양과 같이 순하고 전쟁에 나아가서는 사자와 같이 용감한 것이 참 민주국가의 군인일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전쟁철학의 원리는 승리라는 두 글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는 기쁨과 명예와 영광과 삶을

아니 가을이면 반드시 떨어져야할 잎조차 가지지 못하였다.

흰나방의 요충인 벌레가 떼거지를 지어 모조리 앗아갔다.

이 벌레는 아무 검역이나 소독도 없이 막 받아들인 잉여농산물에 따라 이사는 박래품(舶來品) 해충이라고들 한다. 한해에 네 번씩이나 알을 낳는 무서운 번식률을 가진 벌레라는 것이다.

아무리 독한 벌레도 먹는 것에 호불호가 있건만, 이견 가리는 것이 없다. 푸른 이파리라면 닥치는대로 모조리 먹어 제끼고는 쉼 사이 없이 또다른 나무로 옮겨간다.

가로수의 보이는 끝까지 삼동(三冬)같이 앙상한 가지들 뿐이다.

나는 한길과 담벽에 우굴거리는 벌레를 비로 쓸어모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여본다.

그래 벌레까지도 어찌면 이렇게도 외래종이 제 고장 것보다 더 거성스러운 것인가고…….

이 벌레가 어디에서 왔던 아무튼 계절이 오기 전에 잎을 모조리 잃은 나무는 보기에도 공상스럽고 가엾기 짝이 없다. 이 해충을 박멸할 약조차 득פק 가지지 못한 우리들의 살림!

하는수 없이 가로수는 잎잃은 가지마저 이번에는 인공으로 찍히우는 수 밖에 없다.

남 때문에 못사는 부지런한 사람을 보고 너 이놈 왜 그렇게 피골이 상접하게까지 못사느냐고 뺨이나 실컷 후려갈기는 격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여기에도 기적같은 삶의 반발적인 부르짖음이 있다.

잎을 빼앗기고 가지를 잃은 가로수는 봄 아닌 초가을 아침, 부드러운 담녹색 새싹에 인종했던 삶의 함성을 우짖고 있으니 말이다. 쓰디 쓴 오욕의 갖가지 지난 현실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가겠다고 이를 악물던 우리의 삶 그것의 반영이라고나 할까.

가을은 한 비마다 깊어가고 있건만 계절의 초병, 낙엽 잃은 가로수는 무기를 빼앗긴 노병처럼, 잘라진 가지 끝에, 폐병의 흉장마냥 넘쳐오르는 수액을 흘리면서 초가을 낙조 속에 혼흔히 말미 없다. 플라타너스, 포프라, 은행양, 미루나무, 은행 등 아담하게 가꾸어진 청신한 거리의 가로수 축도 속에, 미운이 미워하는 이 없이, 그리고 흰나방 같은 불의의 침범을 모르고, 평화롭게 모두다 잘 살 수 있는 앞날을 기구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붉게 타는 저녁 노을에 빗겨 줄기차게 버티어 나오는 노목의 가을 새싹을 응시하고 있다.

(필자·서울문리대교수)

스튜디오의 사상(思想)

이현숙(李賢淑)

앵무새처럼 지적여야 제 구실을 다한다는 방송인의 하루는 너무나 벅찬 것 같다. 시간의 노예가 되어 시간을 조종하여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달콤한 꿈속에서 사는 낭만파들에게는 숨막히는 얘기가 되리라….

거기에 걸들여서 즉각적인 반응이 뒤따르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무엇이랴 평을 할까? 방송이란 듣고 생각하는 것 보다 쉬운 것 같지가 않다. 하루 중류 상류의 그 많은 대상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말과 표현이어야 하고 또 대중이 원하고 있는 핵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방송국의 스튜디오는 까다로운 산실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매일을 숨가빠하고 있는 것이다. 아나운서는 방송국의 쇼윈도라고 말한다. 여기에 먼지가 끼어 상품의 그 화려한 모양이 불결하게 보이거나 가치를 다하지 못할 때는……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노력이라는 고마운 의욕이 있어 다행이다. 방송이란 요행과 우연을 이미 낫은 말로 멀리했다. 현실 속에서 미래를 더 추구하고 일보전진 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방송이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지금을 전파의 대결시대라고 들 말한다. 모든 사물이 숨소리를 죽이고 깊은 정막속에 쌓인 순간에도 푸른 창공에는 소리를 실은 전파들이 제구실을 하기에 바빠 맴돌고 있으리라.

의미하지만은 패배는 수치와 노예와 고통과 죽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누구나 승리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전쟁하는 쌍방은 사전의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서 승산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필연적으로 승, 패의 판가름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어느편이 승리하느냐? 하는 것은 전쟁사를 상고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군대는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군대는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편에 가담하느냐의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편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또 세계 제1차, 2차대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편에 가담하여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군인은 애국심이 왕성하여야 합니다. 군인은 내가 왜 군복을 입었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누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또 죽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 전쟁관 사생관이 확립되어야만이 진정한 애국심이 발로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러스킨은 말하기를 “어떠한 민족이라도 또 어떠한 사회상태에 있어서도 영구히 보충

스튜디오를 어항같다고 어떤 이는 말했다. 그래서지 꼭 어항같이 생긴 그속에 앉아 있으려면 물고기가 된 기분이다.

그러나 먹이만을 찾아 꼬리치는 그들보다 마이크란 벼이 있어 외롭지가 않다. 이것이 무표정하고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임엔 틀림없으리라.

마이크는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한 친구이며 거기서 풍기는 한없는 매력속에 방송인은 보람을 느끼고 피로를 잊게도 되는 것이다. 방송의 매력이란 봄날의 화려한 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비단 그것이 오늘에 한할 지라도 꼭 붙잡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는 마술사와 같은 것을 어찌하라. 아무런 잡음도 들을 수 없는 이 스튜디오에 들어 앉았노라면 모순과 부정과는 타협할 줄 모르는 무아지경에서 한없는 안락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사람이란 하루의 생활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시간과 또한 자기를 잊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를 알아 보는 시간은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좋은 것이며 나를 잊어 본다 것은 더할 수 없는 휴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한다.



아나운서실의 전화는 하루종일 바쁜편에 든다. 한번 본인도 없는 미지의 청취자들로부터 미묘한 질문의 공격들이다. 그러나 방송사고후에 뒤따르는 전화의 세례는 정말 있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담담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그저 있으면 안된다고 당부해야만 하겠다. 고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라 전류가 통하는 감상이라 해도 부족함이 있으니...

경쾌한 음악이 모니터를 통해서 들려 온다. 작곡가와 연주자들을 알지 않아도 좋다. 그 고운 멜로디에 오늘 의 오점을 씻으면 밝은 내일이 또 매력이라는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열어 놓은 창문으로 날씬한 젓트기 편대의 우렁찬 폭음이 들린다. 약한자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위대한 소리같기만하다. 기체는 태양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의 찬란한 은빛날개를 자랑하며 멀리멀리 접체로 사라져 갔다.

인류의 문명은 그 자신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자꾸만 무한대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번만의 느낌은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신비스럽고 생각할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만 쌓여진다. 더욱이 금년 들어서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외기권으로 발사되어 목적한 대로 성공했고 머지않아 달나라의 여행도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모두가 꿈같은 소리고 신의 숨씨 같기만 하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나눌 길 없을 때 영원의 벼으로만 알고 쳐다봤을 둥근달! 이제 그곳까지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다니 이순간에도 이 세계는 얼마나 달라지고 있을 것인가? 땅과 공간과 하늘을 정복한 인류는 이제 중대한 하나를 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신과 인류 사이의 비밀이 될 것이라. (필자·HLKA아나운서)

하늘로 달리는 그리움

박현서(朴賢緒)

어느때부터인지 그 시절은 잘 기억되지 않는다. 아주 어릴 때이기에 지금 따져보면 아득한 옛날 일같이 아슬한 여성의 동경이었을게다.

‘나도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았으면 달나라 별나라도 가보고!’

동화같은 이런 꿈을 그리며 감상에 젖던 시절이—이글이글 불타는 정열의 태양이 솟고 지고 붉게 물들어 노을지는 화려한 하늘을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이 전설 속의 낭만을 불러일으켜 주는 밤하늘을, 그리고 고요한 사랑을 품고 조용히 빛나는 달을 바라보며 무변광대(無邊廣大)한 하늘을 날아 보고 싶어하던 그 시절 내겐 이런 꿈이 있었다. 그러던 내가 이와 가장 근사하게 있다을 수 있는 직장을 갖게 되어 반쯤은(?) 어릴 때 꿈을 이루어본 셈이 피난살이 대구에서이다.

할 것은 다른 곳에는 하나도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의 민족이 그들이 태어난 조국에 대한 애국심에 의하여 각자의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 정신만이 있을 뿐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장차 내가 물릴 내 나라 내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지상 민족지상 인종차별 배은망덕 쇠국주의 배타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대본성에 사로잡혀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망각한 노예적 정신을 벗어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신력을 가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군인이 아니고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또 불의의 싸움이 아니고 정의의 싸움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 인류의 자유 평화를 위하여 우리 군인은 싸우고 또 피 흘린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기서 우리는 용기의 근원과 정의의 표준과 애국심의 척도가 요청됩니다. 상대적 세계에서 용기와 정의와 애국심의 표준은 항상 없었다 뒤졌었다 합니다. 어제의 용기는 오늘의 만용도 되고 오늘의 정의는 내일의 부정의가 되고 어제의 애국심은 오늘의 수포(水泡)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용기는 오늘의

그러니까 벌써 10여년 전 일이다.

시인 이모씨 아동문학가 방모씨의 연출로 공군에서 발간하는 잡지 「코메트」를 돕게 된 것이다. 그때만 해도 취직하기란 별따기보다 어려운 때 모두들 과거에 하던 직업과 동떨어진 천한 일거리도 없어서 못하고 서슴치 않던 그 무렵에 그래도 내가 하던 일을 더구나 어린 마음에 그려보던 하늘과 직접 관계되는 공군에서 일하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은 안 계신 부모님이 알뜰살뜰 여투어줬던 웃가지와 혼수감을 팔아 살림살던 내게는 소중히 지니고 내려온 작은 재산이 축나지 않게 되었다는 그것 못지 않게 기뻐던 일이었다. 진정 여러 가지로 고마웠던 분들이요 정들게한 고장 대구이다.



그 시절에 떠오르는 몇몇 과일럿들이 있다. 섬세한 생김새의 손과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늘씬한 체구와 함께 유난히 인상깊던 대령 그는 많은 재능에다 피아노도 잘 탄다는 소문난 인기 과일럿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종사라기보다는 더 예술가다운 풍모였다. 또 6·25전란때 기막힌 공훈을 세웠다는 ○대위 등 그들은 당시 인기 비등하던 과일럿들이요, 귀에 익은 하늘의 용사들이다.



어느 나라나 다 그럴까? 어느 군대나 다 그럴까? 어떻게 씩씩한 공군은 꼭도 다정하다. 친절하다. 젠들하고 지적이다. 그들 조종사들하고 들어오는 옷차림 또한 인상적이다. 온 몸에 포켓 투성이 조종복을 입고 내가 일하는 오피스에 나타나면 방안은 금세 활기를 띄워 젊음이 창일한다. 점잖은 정훈감실 장교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한바탕 떠들고 가노라면 그 힘찬 젊은 패기와 다정한 여운에 가족들과 떨어져 외로이 이어가던 피난살이의 고적함이 한결 가슴에 스며들곤 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없는 군세고 늘씬하던 남동생이랑, 조용하고 다정하던 오빠를 생각하며 그들 과일럿의 가족들을 얼마나 부러워 했는지! 그들은 나를 잊었겠지만 나는 그들의 모습과 이름, 주고받던 농담들이 귀에 익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리워지는 추억의 한토막이다.

어린 여동생과 네 살배기 큰 조카를 데리고 내려갔던 나의 피난살이 호랑이 담배피웠다는 옛날 이야기를 대신하여 공군의 가지가지 뉴스로 자장가를 삼아주던 그 어린 조카도 이제 중3의 큰 머슴아로 자랐다. 그는 요즘 부쩍 하늘에의 관심이 부풀어가고 있다.

“아줌마! 난 이담에 군대가면 과일럿이 될래. 얼마나 멋져! 썩썩이를 타면 참 신날거야!”

이런 말을 토하는 소년의 눈은 미지의 세계를 그리며 초롱초롱 빛난다. 불현듯 하늘을 쳐다본다. 새파란 하늘엔 하이얀 비행운을 그리며 제트기가 날고 있다. 우렁찬 폭음을 울리며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하늘은 어린 소년들의 그리운 꿈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필자·서울신문 문화부차장)

만용이 되고 오늘의 자유세계 자본주의경제는 공산세계에서 부정의로 되고 지난날 태평양전쟁에 몸바친 일본청년들의 애국심은 오늘에와서 인류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세계에서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쉽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런 상대적 세계에서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초월의 세계 즉 신의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 그 왕국과의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와 선과 사랑의 굽은 줄이 오르내리는 생의 아름다움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공포가 깃들지 못합니다. 불의가 항상 정의 앞에서 굴복되기 마련입니다. 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유가 극단으로 나아가면 방종과 무신론에 빠지고 정의가 극단으로 나가면 독재와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양자 곧 자유와 정의를 조절하는 초월적인 권위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앙이란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에게 용기와 정의와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존망의 운명을 걸머지고 일어나 5·16군사혁명의 주체가 되는 우리 군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정의와 애국심을 위해서 이러한 신앙이 절대 필요한 줄로 믿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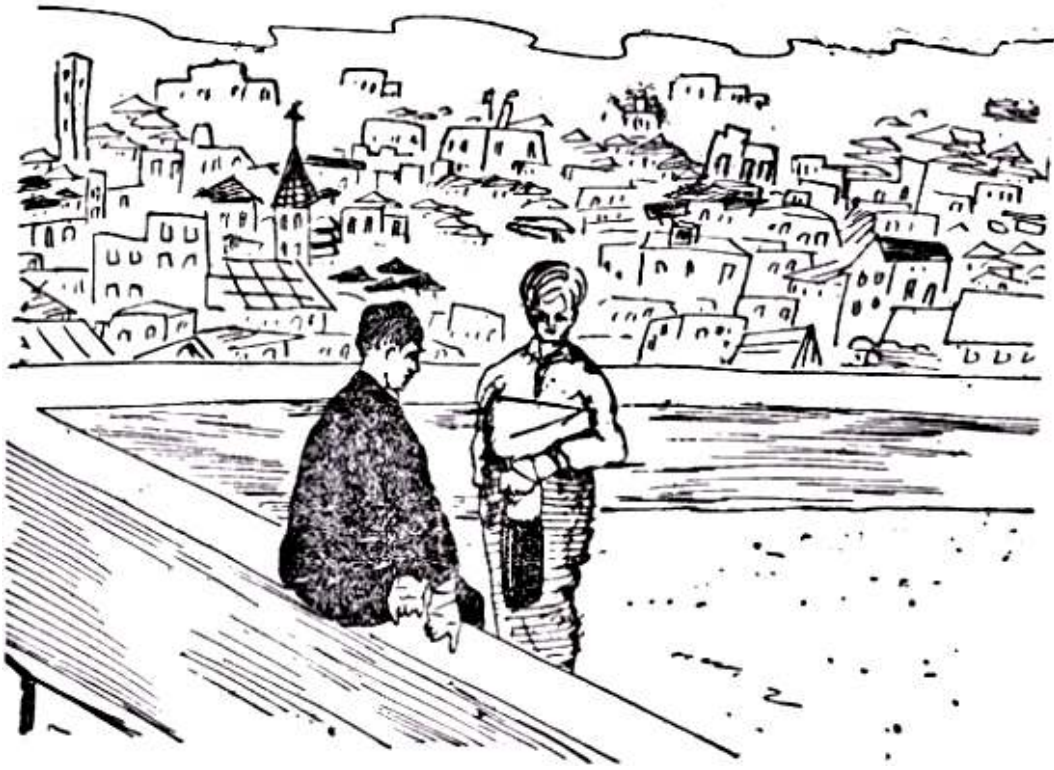
(필자·공군중령 공본군목실장)

(47면에서)

의 보급은 광장히 개선되고 전쟁에서의 커다란 손실도 그렇게 문제가 안되었다. 오히려 항공기 생산에 조종사의 훈련이 따라가지 못하였을 정도였다.”

비바부룩트경은 실업계에서 측근자를 선정하여 신설된 항공기생산성(省)에 들어갔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인물은 포드자동차회사의 총지배인 파트리크 헤네시와 항공기사 트레마 웨스트부룩트였다.

웨스트부룩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항공기 생산자의 수리부문은 그가 만든 것이며 영국 전쟁기간중 공군당국에 인도된 전투기 가운데 25%는 웨스트부룩트가 재생 수리한 것이었다. (차호 계속)



<소설>

푸른 하늘처럼

유 호(兪湖)

미쓰 민(閔)은 서울 장안에서도 맵씨있는 오락잡지를 내기로 유명한 ××사의 편집부 기자다. 여기자라고 하면 체격이 작달막하고, 성격도 거세고, 도무지 붙일 맛이 없는 것으로 알기 쉬운 사람이 많지만, 천만의 말씀—미쓰 민은 어디를 가거나 그 주위 십 미터쯤이 환해질만큼 미인인데다가, 성격도 상냥스럽고 말씨에도 애교가 넘쳐흘러서 아직 미쓰민 채로 잡지사 한 귀퉁이에 앉혀 두기엔 아깝다 못해 분할 정도다. 미쓰 민이 앉아 있는 자리에는 남자 기자가 세 사람 있다. 편집부장은 저만치 따로 앉아있으니 그것은 별 문제지만 앞에 있는 그 세 사람이 문제다.

한 사람은 성이 백가요, 또한 사람은 류가요, 나머지 한 사람은 김가다.

미쓰 민이 미쓰민에 비해서 그들 세 사람은 모두가 총각이 아니다. 어느새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되 집에는 애들이 두서넛은 데굴거리는 모양이다.

미스터 백이란 친구는 거름만 잘했더라면 여섯 자는 훨씬 넘었으리만큼 키가 밀대처럼 큰 데다가 꼬치꼬치 말라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금방 허리가 두 동강이 날 것처럼 휘청거린다. 직업이 만화가라서 그런지 무척 싱겁다. 그리고 술이 고래다.

그는 전부터 집에다가 전화를 놓지 못하는 것을 늘상 한으로 생각했다.

“적어도 문화인 집에 전화 하나쯤은 있어야 행세를 하자…”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도대체 문화인이란 게 어떤 것이고, 또한 전화를 놔야만 문화인이 되는 것인지, 미쓰 민은 그 소리를 들을 적마다 미스터 백을 일간망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딱하니 전화를 놓았다.

어느날 아침에 출근을 하더니 입이 헤벌어져서 하는 말이
 “헤헤헤 우리 집에 전화 왔어…”

하고는 한참동안 입을 다물줄 몰랐다.
 아마도 전화를 놓으면 입이 벌어지는 모양인가.
 그리고 나서는 하루종일 집에다가 전화를 걸 일이라도 생기지 않나해서 기다리는 눈치였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갑자기 날씨가 꾸물거리기 시작했다.
 미스터 백은 무슨 중대한 일이라도 생긴 듯이 얼른 수화기를 집에 들었다. 다이알을 돌리고 나더니 한나는 소리가,
 “아, 여보세요? 나야! 내! 이봐, 비가 올 모양인데 장독대 덮어요! 장독대…”

전화 개통 첫마디가 이것이었다. 미쓰 민을 비롯해서 모두들 웃음통이 그대로 있을리 만무했다.
 또 한번은 서울에 뇌염이 돌기 시작한다는 신문기사가 나던 날이었다. 석간신문을 펴들자 미스터 백은 또 큰일이나 난 듯이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다.
 “이봐요, 지금 신문을 보니까 뇌염이 돈다는데 애들 나가지 못하게 조심해요. 알았지?”
 이번엔 모두들 웃기는커녕
 ‘저 일간이…’

하고 눈총을 집중시켰다. 이럴 때 가만히나 있었음 좋겠는데 미스터 백은,
 “헤헤헤 집에 전화가 있으니까 무척 편리해…”

하고 턱을 쓰옥 문대는 그 표정을 바라다보며 미쓰 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에그…이 밥통아…’

그다음—

미스터 류라는 친구는 키가 다섯 자에 대단히 부족할 만한 키에, 이 역시 술통인데, 키가 작은 탓도 아니겠지만 웬일인지 부인한테는 꿈쩍 못하는 모양이었다. 모양이 아니라 틀림없어 그러했다.
 접에는 조그마한 아들 형제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월급날이나 잔돈뿐거나 생기는 나날엔 두말없이 과자점으로 달려가서 과자와 사탕을 사거나, 아니면 부인에게 줄 화장품을 사기가 일수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하루는 미쓰 민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문득 들으니까 어디선가 아야얏…하는 남자의 비명 아닌 비명이 들려와서 주춤하고 귀를 기울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는 빈방이 하나 있는데 아야얏 하는 소리는 분명히 거기서 들려왔다.
 “어쩐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것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미쓰 민은 여성으로서의 가질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금금증과 호기심에 끌려 문틈새로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미스터 류하고 그의 부인이었다.
 “어디서 주무셨죠? 당최 안하던 외박을 이제 다하구, 당신 이러기야요!”
 부인의 손가락이 미스터 류의 코앞에서 곤두섰다.
 “아, 떠들지 좀 말아요.”
 “떠들지 않을테니 대답을 해요…”
 “아, 어쩐 그만 술을 먹다가 시간을 놓쳐서…그래서…”
 부인이 똑같이 되물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관에서 잤지 뭐야.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구 술을 퍼 마시구, 생돈 버리구 여관에서 잔단 말예요?”
 “잘못됐어…잘못됐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우…”
 “그말을 누가 믿어요…”
 “정말야! 맹서해…”
 “다시는 안 그러죠?”
 “그럼…그럼…그럼…”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면 그런 소리가 연거푸 나온단 말인가. 그러나 부인은 그걸로 부족한 모양이었다.
 “정말 다시 그럼…”

하더니 났다 미스터 류의 콧발을 꼭 잡더니
 “알죠? 다시 그럼 알죠?”
 “아야! 아야얏!”
 “안그런다구 약속해요, 안그런다구…”
 “그래, 그래! 그래!”

아하, 그리고 보니까 아까 아야얏 소리도 그 때문이었고나. 미쓰 민은 하도 무안해서 얼른 자리를 떠나 버렸다.
 ‘어쩐 남자가 그 모양일까’
 미쓰 민은 이래서 미스터 류에게도 실망을 했다.
 또 한 사람, 미스터 김이란 남자의 경우다.
 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자세한 몰라도 어쩌나 살이졌는지 데룩데룩거리고 다니는 품이, 흡사 물소(水牛)와 같다. 조금만 어딜 다녀와도 식식거리며 당장에 숨이 꺼질 듯이 눈앞은 멀뚱거린다.
 그래서 술은 한잔도 못한다.
 술을 못하는 대신에 이 사람에게에는 이상한 취미가 있다. 취미라기보다 그것은 일종의 신념에 속한다.
 다름 아니라 그는 외상이라면 미치다시피 사들인다.

태백준령(太白峻嶺)

이인석(李仁石)

취녕쿨과 가시덤불에 얽혀
짐승이나 기어넘는 험한 준령
깊은 골자구니와 울창한 숲을 안고
하늘 높이 솟은 태백산맥(太白山脈)……

험준한 이곳 산허리에서
바위를 깨고 산을 헐며
큰 길을 닦는 젊은이들이 있다

요새는 하다못해 구두약까지 직장으로 들고 와서는 월부로 사라는 판이니까, 그 밖의 것은 얼마든지 있다. 회사에 잘 오는 월부장사로는 약장사, 여름에는 남방셔츠 장사, 국산 커피니 파인애플 가루 장사, 양말장사, 컵술, 비누장사, 어느 때는 어디서 누가 라디오를 월부로 샀다고 하니가 미스터 김은 하던 일을 제쳐 놓고는 뛰어 갔다오더니, 처음에 만 환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그만두었다고 투덜대기까지 했다.

월급은 작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월부도 좋고 외상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도 문제지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격으로 미친 듯이 사드린다는 것은 이것도 일간에 속할 문제인지 모른다.

그렇게 정신없이 외상은 사고 보니까 월급날은 야단이다.

어디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다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계산서를 내놓고는 성화다. 그렇게 되면 미스터 김은 아예 책상에 붙어 있지도 않게 되고, 다 저녁때 월급이 나올 때쯤 하면 어디선가 전화를 걸고는

“미안하지만 나요 앞 다방에 있으니 내 월급 좀 몰래 타가지구 나와요.”

하고 미쓰 민에게 애걸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한번은 그렇게 하는 기색을 알아차린 딱정때 마나님이 미쓰 민의 뒤를 밟아서는 다방까지 따라와서 한바탕 들었다 놓는 바람에 미스터 김은 혼이 난 일이 있었다. 그 래도 외상에 맛을 들인 그의 취미는 변함이 없었다.

이래저래 커다란 실망을 느끼고 있는 판에 바로 일주일 전,

새 바람을 일으키듯이 홀연히 나타난 신입 사원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진짜 미스터인 황이다.

오 척도 아니오 육 척도 아닌 알맞은 키에 어깨가 딱 바라지고 눈이 부리부리한게 첫인상이 그럴듯했다.

주간이 미스터 황의 소개를 하자, 미쓰 민은 몰래 서무과로 내려가서 그의 이력서를 살짝 들추어 보았다.

이력서 한 줄에 공군 중위로 제대했다는 대목을 보고는 공연히 가슴이 들먹했다.

그날부터 미쓰 민은 비록 부서는 다를지라도 미스터 황을 매일 보게 되는 것이 한없이 즐거웠다. 자연히 출근시간도 빨라지고 퇴근시간도 늦어졌다.

미스터 황이 남보다 빨리 나오고, 남보다 늦게 나가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점심 시간이나 일거리가 없을 적에는 미스터 황이 어디론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 했다. 여기에도 관심이 없을 수 없어서 하루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보았더니 그는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오, 곧장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올라가서 무엇을 하나 보니까,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오, 난간에 손을 댄 채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인기척에 놀란 그는 돌아다 보더니 미쓰 민이 서 있으니까 그저 싱겁게 시익 웃었다.

“매일 여길 올라오시나요?”

“네…….”

약속한 것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올라와서 무엇을 하시나요?”

“그저 하늘을 쳐다보는거죠.”

“하늘엔 무엇이 있나요?”

“구름과 바람…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좀 더 다른 말이 나올 줄 기다렸던 미쓰 백은 뭐라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일즉이 도시(都市)의 뒷골목에서

깡패와 양아치란 이름으로

악(惡)의 씨를 뿌리던 인생의 낙오자(落伍者)들

그러나 지금은 혁명의 대열에 서서

국토(國土)를 개발(開發)하는구나

여덟시간 노동이 끝나면

<짜리꼴> 개울 가에 기다리는

송진 냄새 향기로운 깨끗한 숙소(宿所)들

지난 날엔 트집이 버릇이요

싸움이 일과(日課)였건만

지금은 모두가 형님이요 동생

다정하게 지내며

서로 도우는 풍속(風俗)에 산다

겨래여, 형제(兄弟)가 따루 있다 하지마라

서로 도우며 정답게 지내면 형제이리

겨래여 과거를 허물하지 마라

뉘라서 허물이 없을건가

절망 속에 살던 지난 날은

이미 없는 것

밝은 태양 아래 넘뜰한 모습들이다

“공군에 계셨으니까 하늘을 잊지 못하는게 아니세요?”

“…….”

이번에는 미스터 황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손을 깎지끼어 뒤로 기대더니 시선은 역시 하늘로 흘러갔다.

“공군은 참 멋있어요. 제트기를 타고 저 넓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라 본다는 게 얼마나 상쾌해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대답하는 품이 어딘가 모르게 서글프게 느껴져서 미쓰 민은 조용히 그를 보았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나보죠….”

미스터 황은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는 바로 지금 눈앞에 파아랗게 펼쳐져 있는 하늘에 대해서 말하듯이 중얼거렸다.

“…나두 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번 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난 눈이 나뻑니다. 그래서 조종사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그래도 하늘을 나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공군에 남아 있었습시다. 언젠가는 한번, 언젠가는 내손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서 저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끝내 나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제대를 했습시다.”

미쓰 민은 끔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다른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한 대의 제트기가 나르게 되는데는 얼마나 많은 탄사람들의 힘이 필요한가를 알았습시다. 통신병도 있어야하고 정비병도 있어야 하고… 그밖에 도 한 대의 제트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을 나르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묵묵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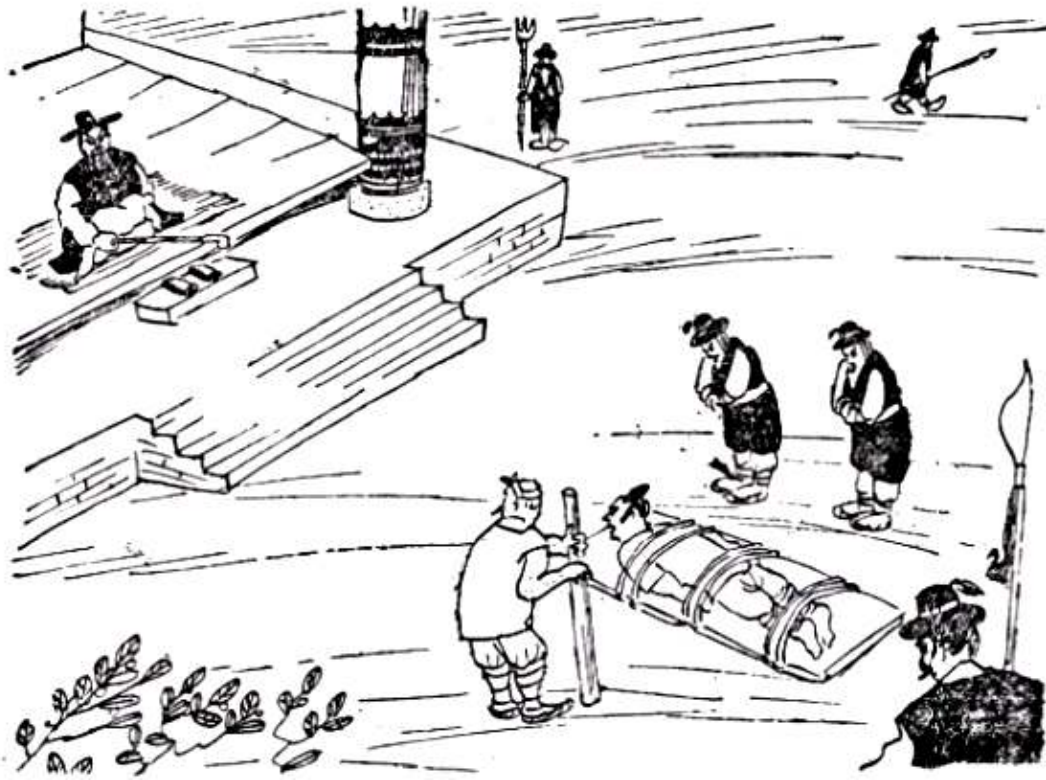
그는 깎지 낀 손을 풀고 미쓰 민을 바라다 보았다.

“그래도 역시 저 하늘에 대한 꿈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군요. 이젠 제대를 했구,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 몸이니가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별수는 없겠습시다만은, 공군에서도 지상 근무를 한 것처럼 새로운 직장을 얻은 지금의 지상근무 역시 나는 훌륭하게 해나가야 되겠습시다.”

열띤 미스터 황의 눈을 마주보며,

“훌륭하게 해 나가실 수 있을거예요.”

미쓰 민은 자꾸 이렇게 대답하려고 애를 썼다.



<역사소설(歷史小說)>

항거(抗拒)하는 사람들

박찬홍(朴贊興)

고종 31년 갑오.

이조말 나라가 한창 어지러울때의 일이다.

청병을 불러들여 대원군을 청국으로 잡아 가게한 민비일파의 사대당 정부는 도리어 외모(外侮)를 받아 나라의 체면을 떨어뜨리고 백성들은 도탄 속 진구렁에 빠지게 하였다.

백성은 그들의 당파싸움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쓰러지고 괴로운 생활을 계속한다. 사대당은 독립당을 죽이고 독립당은 사대당을 죽인다.

피투성이의 수라장이었다.

여기에다 흉년은 해마다 들었다.

못된 병들은 그대로 유행했다.

이 어지러운 정국을 틈타서 탐관오리들은 백성의 피와 기름을 쪽쪽 소리가 나도록 빨아 마신다.

궁중궁궐에 있는 상감 역시 돈이 필요했다. 염랑주머니에 신용있는 어음이 없음을 탄식한다.

쌀값, 나무값, 필육값이 그대로 뛰여 올라 간다.

나날이 뛰고 아침과 저녁이 달랐다.

한달전이 태고적이요 어제가 옛날이었다.

여기다 청병의 행패는 나날이 높아 갔다.

백성들은 정부를 원망했다. 사대당은 민비일파를 원망했다.

마침내 민중의 분노는 화산의 분화구처럼 터지고 만다.

전라도 고부군수에 조병갑이란 자가 있었다.

이 자는 현임 전라 관찰사 조병호의 가까운 일가의 한 사람이었다.

성격이 비루하고 욕심이 많아서 탐관오리 중에도 대표적 인물인 것이다.

조병갑이 일가 덕에 고부군수를 한자리 얻어 가지고 온 뒤에 정사 다스리는 것은 넷째 다섯째가 되고 백성들의 재물누탈하는 것이 본업이 되었다.

고부골 안에는 벼백이나 하는 부자라 이르는 사람이 칠팔명이나 있었다.

조병갑은 부자들의 재물을 모조리 빼아 드릴 생각이 났다.

힘 안들이고 빼는 도둑질!

생 터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늙은이 젊은이 계집 헤아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며칠을 가두고 다시 형틀에 맨 뒤에 호통을 하여 수죄를 날린다.

“네 이놈! 네가 네 죄상을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 불기 살이 헤어지도록 때려서 돈을 만량 이만량을 바치게 한다.

아버지와 어미에게 불효 노릇을 했다고 빼아 들고 일가형제가 반목했다고 빼아 들고 노름하고 잡기를 했다고 빼아 들고 별별 극형 극악한 일을 계획하고 궁리해서 빼아 들어갔다.

고부골 안엔 만석보(萬石洑)라는 큰 보가 있었다.

동진강(東津江) 어구에 보를 대어 태인현(泰仁顯)까지 이 보물을 대어 쓰면 만석이 난다해서 백성들이 만석보라 부른다.

작인들이 이 보물을 쓰게 되면 반드시 수세(水稅)를 물게 된다.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온 뒤에 이 수세를 버쩍 올려놓았다.

백성들이 등장을 들어 감해 주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감해 주는 것은 둘째요 조병갑이 도입한 그 이듬해 멸절한 만석보를 그대로 두고 그 밑에다가 새 보를 막는데 강제로 수천 명의 농군을 풀어 부역으로 보를 쌓고 폼삐는 동전 한 닢도 주지를 않았다.

새 보가 완성되자 조병갑은 호방을 다리고 수세를 도꾸는데 상답은 매 마지막에 두말 하답은 한 마지막에 한 말씩 더 받아서 가봉한 수세 무려 8백여 석은 그대로 조병갑의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다.

물론은 고부일군에 높아졌다.

“참 빌어먹을 일 다 보았지, 오늘 읍에 들어갔다 이방을 만나서 자세한 소문을 들었네, 이번 수세 가봉해 받은 것이 놀라지 말게 8백여 석이라네.”

“무어라고 8백여 석?”

“허허 참 요놈의 원님 계교가 비상하단말야, 백성의 등쌀 빨아 먹는데는 제일이거든, 요놈 두고 봐라!”

서당방에서 글 읽다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에 마실꾼들이 모여 들어서 새끼를 꼬며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훈장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참 남의 일 보듯 할게 아니올시다. 이러다가는전라도 고부 백성들은 모조리 거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훈장님 밤낮 말씀 하시던 때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아랫목에 앉아서 동리사람들의 이야기 하는 것을 한 귀로 들으며 고요히 책만 보고 앉았던 이 집주인 글방선생을 바라 본다.

글방선생은 책을 놓고 얼굴을 들었다.

셋별같이 반짝이는 두 눈이 이내 눈웃음을 머금는다.

나이는 사십 안팎 몸집은 조그마하다.

“때는 인제 왔네, 자네들이 기다리던 때는 인제 왔네.”

훈장은 말을 마치자 책을 덮고 또 한번 빙긋이 웃으며 입을 꼭 다문다.

“때가 왔어요?”

촌백성의 얼굴엔 금방 광명이 보이는 듯 즐거운 표정이 선연히 나타난다.

“왔네 얹러말게!”

이렇게 말하는 서당 훈장은 전봉준(全奉準)이란 사람이었다.

자(字)는 명숙(明淑)이요 별명은 녹두(綠豆)라고 부른다.

하도 몸집이 작고 행동이 경칩한 때문에 사람들은 녹두 녹두하고 불렀다.

그의 성명 석자는 몰라도 전녹두라면 전라도 일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전창혁(全彰赫)이란 사람으로 전임 전라 감사의 탁탁한 행동을 탄핵하고 반항하다가 관가에 잡혀 전라 감영에서 장살(杖殺)이 된 사람이었다.

전봉준은 탐관오리와 대대로 불공대천지 원수였다.

그는 여러 해 전부터 동학에 침착하여 도주(道主) 최시형의 명을 받아 전라도 고부의 집주가 된 것이다.

그 이튿날 아침 전봉준은 동골 사람 오십여 명을 거느리고 장두가 된 뒤에 고부읍으로 들어가서 군수 조병갑을 찾았다.

전봉준은 원님의 건방진 거드름 때문에 해가 반나절이나 되어서 만나 보게 되었다.

손화중(孫化中), 정의서(鄭益瑞) 두 사람이 뒤를 따랐다.

조병갑은 동천에 앉아서 들어오는 전봉준의 체소한 몸집을

바라보자 우선 한층 떨어뜨려 알잡아 보았다.

“무엇이 그리 억울하여서 백성을 충동시켜서 등장을 만들었는고?”

“소지에 사뢰었거니와 만석보 수세 가봉한 것 8백여 석은 도루 돌려 보내 주시옵소서.”

“수세를 돌려 보내주라, 그것이 무슨 소린가, 나라에 바친 세금을 어떻게 돌려보낸단 말인가, 보아하니 글자나 배운 사람 같은데 무지막지한 사람이면 모르되 그만 요량은 있을 사람이 이게 무슨 해고인고?”

“아니올시다 조금도 해고가 아니올시다. 만일 만석보세 8백여 석을 아니 돌려주시면 고부태인 백성은 다 굶어 죽게 됩니다.”

“나는 돌려 보낼 수 없어, 우선 새 보를 막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구 또 이미 상납 장부에 부친 이상 원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네.”

“새 보 대는데 무슨 비용이 들었습니까. 우리 백성들의 부역으로 된 것입니다. 공연히 이리저리 청탁마시고 도루 내어 주시오. 안 내어 주시면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8백여 석은 백성들의 피와 기름이올시다. 피와 기름을 너무 자시다가는 공연히 큰 봉변을 당하리라.”

전봉준은 대답하게 들어 선다.

조병갑의 얼굴은 별안간 누르락 푸르락 하여지며 펄펄 뛰었다.

“네 이놈! 지금 나를 위협하는 셈이나, 봉변을 당한다? 천하에 죽일놈, 네 이놈 광정 발악을 하면 어찌 되는지 모르느냐?”

“어디 발악입니까? 순순히 여쭙는 것입죠.”

드디어 병갑의 화증은 꼭두까지 치밀었다.

“네 이리 오너라!”

소리가 떨어지자 군노 사령들이 우루루 몰려 들었다.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원님의 호통은 추상같이 떨어진다.

전봉준은 군노사령들에게 꼭두잡이가 되어 옥에 갇힌 몸이 되었다.

전봉준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옥 속으로 들어간다.

며칠이 지난 뒤 엽포로 곤장 오십대를 때려서 전봉준을 삼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봉준은 곤장쥘므로 그 뜻을 굽힐 사람이 아니었다.

맛있던 장독이 조금 풀리니 두번째 농민 칠십명을 거느리고 다시 군수를 찾았다.

봉준의 일가부치와 동리사람들은 말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봉준은 코웃음쳤다. 드디어 봉준은 두 번째 고부읍 삼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병갑이 사령에게 전봉준이 다시 왔다는 소리를 듣자 불쾌하고 마음이 차차 약해진다.

보통사람 같으면 곤장 몇 대에 옥중생활 며칠이면 고개를 숙이는데 이번에는 칠십명이나 거느리고 들어 왔다하니 마음이 적이 깨름한 생각이 아니 날 수 없었다.

만나 보자니 귀찮고 죄를 주자니 또 곤장 몇 개를 때리는 것 뿐이었다.

보아하니 전봉준은 또다시 곤장 몇 개에 수그러질 인물은 아니었다.

이 편에서 차라리 무저항주의를 차리는게 옳은상 싶었다.

“애, 그놈이 도시 미친놈이다 전번에도 곤장을 맞고 나간 놈이 또다시 등쌀을 대이니 어디 성한 놈이라 볼 수 있느냐 소지를 받지 말고 덜미잡이를 해서 그놈을 삼문 밖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분부를 내려 버린다.

봉준은 다짜고짜로 군노사령에게 덜미잡이를 당하고 삼문 밖으로 내쫓긴다.

이것이 분화구가 되어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잔죽 굶고 굶었던 고름은 터져 나오고 응어리마저 쑥 빠지고 말았다.

분함을 참지 못하는 전봉준은 삼문 앞 하마비 위에 버썩 올라 선다.

“여러분, 나는 태인동골 전녹두요. 월전에 새로 막은 만석보 수세 8백여 석을 고부와 태인두골의 농민에게 내달라고 원정을 들었다가 곤장 50개를 맞고 내어 쫓겼던 바로 그 전녹두란 사람이오.”

“동학집주 전녹두는 동학당에게 명령한다. 시각을 지체 말고 무기를 갖추어 삼문 앞으로 대령하라!”

전녹두의 엄숙한 명령이 떨어지자 군중들의 얼굴빛은 별안간에 노랗게 질리고 사람물결이 짹 갈라져 흩어진다. 어느 틈에 모여들었는지 흰 수건을 질끈 동인 사람들이 쑥쑥 내달았다.

수효가 어마어마했다. 천명인지 만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행동을 질서 정연하게 하라! 군수 조병갑 이하 육방관속을 모조리 묶고 군기고(軍器庫)를 깨뜨려 병기를 압수하고 군수의 내이(內衙)에 들어가 우리의 피와 기름인 8백여 석의 곡식을 빼앗으라!”

이때 조병갑은 과사내아 다락 속에 숨었다가 와—소리가 일어나자 형세가 점점 불리함을 직각하자

다락에서 내려와 의관을 다 벗어 버리고 별벌 떨리는 손으로 첩에게 무명옷을 달래서 입은 뒤 험수룩한 농민의 행색을 채린채 맨상투 맨발로 뒷문을 열고 전주감영으로 달아나 버렸다.

전봉준은 십여 일 동안 곳간문을 열어서 농민에게 8백여 석의 곡식을 다 허쳐 주었다.

그는 마침내 봉건제도를 깨뜨리기를 결심하고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다.

한편 전봉준은 태인, 금구, 부안,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무주, 용담, 진안, 전주, 금산, 고산 십여 고을 접주에게 통문을 돌려 크게 응원해 주기를 청탁하니 열네 골 동학들은 일제히 구름 모이듯 고부로 향하고 오니 그 수효는 만 명이 넘었다.

때는 고종 31년 갑오 정월 초이렛날이었다.

이와 호응하여 전봉준의 휘하가 되기를 원하고 동학 진문에 농민 이천명을 거느리고 들어온 일흔살된 이침지란 늙은이가 있으니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종의 자식이었다.

동학이 벌떼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나 양반계급을 두드려 부시는 것을 보자 천년 내려오던 종의 울분이 그대로 폭발쳐 터졌다.

그 노인의 상전은 무장에 사는 흥가였다.

수백 년 뿌리 깊게 사는 혁혁한 양반으로 특히 신라와 고려 때는 큰 벼슬한 이가 많았다고 곤대짓을 하여 양반 자세를 하는 얼치기 양반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대로 가세가 부유하고 전답이 많으므로 무장에서는 흥가네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흥가의 집은 종이 많은 중에 더욱이 대대로 내려오는 씨종들이 많았다.

씨종이란 계집종이 비부쟁이와 혼인을 하여 딸을 나면 상전에게 바쳐서 또다시 종이 되게 하고 사내를 나면 장성한 뒤에 계집을 얻어서 탄 살림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종의 자식은 언제든지 종의 자식이지 별도로 없었다.

대대손손이 종년을 얻어서 천인의 대접을 받아 그들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악독한 봉건제도의 하나이다.

이침지도 흥가의 종의 자식의 한사람으로 사내인 까닭에 흥가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으나 역시 흥가를 상전대접하였다.

그러나 종의 자식이 된 기막힌 설움은 하늘 끝까지 사무쳐 있었다.

하나 국법에 상전이 종을 때려죽인다 하여도 살인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던차 동학이 터지는 것을 보자 이침지는 비로소 천년 내려오던 종의 신세를 한 번 씻어버릴 때라 생각했다.

그는 결지들을 불러 놓고 밤이 깊도록 의론한 뒤에 드디어 거사할 것을 결정하고 자기와 운명이 같은 종의 족속을 찾아다녔다.

원래 이침지는 나이가 칠십여 세 된 종의 결지의 장로일 뿐 아니라 신수와 풍채가 좋고 어렸을 때 흥가네 집 도련님 글 배우는 글방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글자가 있기 때문에 종의 결지 속에서는 타성이라도 그의 명령을 복종치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날짜를 기약하여 산중에서 모이게 하니 그 수효는 백여 명이 넘었다.

이침지는 먼저 몽둥이 하나씩을 짊어 들게 하고 해 십여 묶음을 따로이 묶게 하고 밤들기를 기다려 흥가네 집 사는 촌으로 내려왔다.

이때 흥가네 집은 육십 먹은 늙은 흥가와 사십 대의 중년 흥가와 이십 대의 젊은 흥가와 열일곱 살 먹은 소년 흥가 이렇게 삼대 사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조손이 경쟁으로 첩년들을 갈아들이는 어지러운 집안이기도 하다.

늙은 첩 젊은 첩의 집들은 큰집을 가운데로 두고 마치 바둑처럼 벌려져 있었다.

이침지는 자정이 훨씬 넘은 후에 백여 명의 종의 결지를 풀어 흥가네 대소가 첩년들의 집을 에워싸 놓고 그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들의 서로 서로 건너다보는 눈과 눈은 투지가 만만하다.

이침지는 호각을 한번 길게 뿡아 부니 거므스레한 동리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쿵쿵 두어 번 들리고 흥가네 큰집 비짱 때는 소리가 달그락 달그락 하더니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나타난다.

그 사람의 그림자는 조심조심 발자취를 죽여 가면서 호각 부는 편을 향해 걸어 온다.

“금옥이냐?”

늙은 이침지의 텁텁한 목소리가 고요한 적막을 깨뜨린다.

“예! 할아버지!”

나이 어린 처녀 계집애의 목소리다.

늙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는 어둠 속에서 서로 덤석 껴안는다.

다 같은 사람으로 천년을 내려오는 구박 맞는 설움이 할아버지와 손녀 늙고 어린 핏줄 속에 용솨음 처 흐른다. 금옥이는 이침지의 중손녀다.

“금옥아 그래 지금 늙은 흥가는 몇째 첩의 집에 있느냐?”
 “오늘 윈 종일 다섯째 첩의 집에 파묻혀 있어요.”
 “망할 놈 늙은 것이! 중치 놈은?”
 “아랫말 최진사하고 온종일 술타령을 하고 다니다가 저녁도 안 먹고 둘째첩의 집에 쓰러져 있어요.”
 “젊은 녀석은?”
 “오늘 밤은 웬일인지 큰집에서 대네하고 건너방에서 의중계 자는군요.”
 “그리고 아녀석은 어디서 자니?”
 “도련님은 사랑방에서 전처럼 자나봐요.”
 이침지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하고는 금옥의 등을 밀어 보내고 다시 한번 호각을 가만히 분다.
 호각소리를 듣자 백여 명 총중에서 장정 세 명이 나타난다.
 “새삼스레 말 안하거니와 이 거사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 천년동안 쓰라리고 쓰라리던 원한을 설분해 보자는 것이다. 각별히 조심해서 거행하도록 하여라.”
 하고 이침지는 흥가 사부자가 있는 곳을 말해준다.
 “지금 늙은 흥가는 다섯째 첩의 집에 있다니 복질이 너는 사람 열다섯 데리고 가서 늙은 흥가를 결박해서 저 건너 동리 앞에 선 느티나무 가지에 매달아라. 그리고 둘째 너는 사람 열다섯을 다리고 중늙은 흥가를 둘째 첩의 집에서 묶어 다가 이 앞에 있는 대추나무 가지에 발가벗겨서 매달고, 그리고, 봉길이 너는 사람 스무 명을 데리고 큰집에 들어가서 열 명씩 나누어서 건너방에 본계집과 자고있는 젊은 녀석을, 다른 열 명은 사랑방에서 자고있는 아이녀석을 묶어서 이 앞에 있는 왜나무와 김나무에 각각 매달아라. 그리고 화잡이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내 앞에 모이게 해라…….”
 조용하던 동리 안이 별안간 발끈 뒤집혀진다.
 위 아래 집에서 개가 목이 터져라 하고 멍멍 짓고 날카로운 계집들의 목소리.
 이집 저집에서 도둑이야! 사람살려! 하고 놀랜 비명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그러나 소장지변이라 하인들과 비부쟁이들은 모두 다 이침지의 통속이고 그 지휘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하나 내달아 주인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늙은 흥가와 중년 흥가는 계가꿈 벌거벗고 계집들을 끼고 자다가 추운 겨울에 알몸동이로 묶여 나오고 젊은 흥가와 아이 흥가는 항거를 하다가 별타구니와 눈두덩에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얻어맞은 뒤에 결박을 당하여 강아지 끌려오듯 끌려 나오고 있다.
 “혜를 다려라!”
 이침지의 굵은 목소리로 말이 떨어지자 이십여 속의 햇불은 휘황한 불빛을 뿜어 대낮같이 밝았다.
 흥가네 늙고 젊은 사부자는 발가벗은 알 몸동이로 느티나무 대추나무 왜나무 밤나무 가지에 차례 차례 동그랗게 매달린다.
 이때 흥가네 대소가 늙고 젊은 계집들은 사내들이 결박지어 붙잡혀 나오는 것을 보자 호곡하며 쫓아 나왔다가 이침지가 죽이지는 않는다는 소리를 듣자
 “할아버지 그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이침지에게 매달리듯 애걸하는 계집도 있었다.
 “호호 급하면 늙었으나 종의 자식보고도 할아버지라고 너희 년 아가리에서도 나오는구나…… 그래 인생이 불쌍해서 죽이지는 않을 테다. 그 대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종의 문서를 내 오너라.”
 늙은 흥가의 둘째 첩년이 잼싸게 발가 벗겨 대추나무에 매달린 늙은 흥가에게로 바짝 간다.
 일은 다급했다.
 “여보, 영감 얼른 내줍시다. 문서 께짜이 어디 있소?”
 “저 큰집 다락 위 오동나무 농 속에 청 보자기로 싸서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야!”
 늙은 흥가는 혀 굳은 소리로 벌벌 떨면서 겨우 말끝을 막는다.
 계집들은 벌벌 떨며 허청 걸음으로 맞은 편 기와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윽고 한 아람이나 되는 청 보자기를 안고 나와서 이침지 앞에 놓고 영영 우는 것이다.
 “끌러라!”
 이침지의 우렁찬 목소리로 상전의 계집에게 영을 내린다.
 늙은 흥가의 젊은 첩이 발발 떨리는 손으로 청 보자기를 끌러 놓는다.
 장지에 달필로 쓴 종의 문서가 차곡차곡 개어 있다.
 이침지는 화잡이에게 햇불을 받아 든 뒤에 말없이 종의 문서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문서에 불이 당겼다.
 천년 묵은 종의 원한이 시뻘건 불길을 이루며 한 줄기 연기가 되어 고요한 새벽바람에 흩어져 버린다.
 마지막 한 장이 다 타버릴 때 이침지의 두 눈에선 소리 없는 더운 눈물이 주루루 흐르고 또 흘러서 햇불 아래 빛난다.
 좌우에 웅기 중기 모여 서 있던 모든 종의 결지도 이침지를 따라 소리 없이 울고 있다.
 품고 품었던 천년 묵은 원한을 이제야 완전히 풀고 만 것이다. (끝)



상(上) 김참모총장의 공식초청으로 자유 중국 공군총사령 진가상대장(陳嘉尙 大將) 내한(來韓) (9.20~22)

중(中) 영국극동공군사령관(英國極東空軍司令官) 안토니 썰왜이 중장(中將) 공본예방(空本禮訪) (10.17)

하(下) 자유중국(自由中國) 최강농구(最強籠球)팀인 공군(空軍) □ 풍(風) 농구단 초청경기(招請競技) (9.20?) (10.4) [공군(空軍)팀과 기념촬영]



군어가는 유대(紐帶)

미국태평양지구(美國太平洋地區) 공군사령관(空軍司令官) 에멧트 오드넬 대장(大將)이 김총장(金總長)을 예방(禮訪) (10.16?)

미국공군의무감(美國空軍醫務監) O 크리스 소장(少將) 내한(韓) (10.13~14) 공본(空本)을 예방(禮訪)하고 장 참모차장(參謀次長)의 영접을 받고 있다.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산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발행처(發行處) ·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겸편집인(發行兼編輯人) · 공군대령(空軍大領) 주정호(朱貞鎬)
 인쇄처(印刷處) · 공군교재창(空軍教材廠)
 인쇄인(印刷人) · 공군대령(空軍大領) 김석환(金石桓)
 월간(月刊) 미사일 6호

공군본부 정훈감실

미사일

